



# 정답과 해설

고등국어

하 6~9단원

## 6. 함께 만드는 세상



### (1) 두근두근 내 인생

#### 교과서 꼼꼼히 이해하기

|       |      |      |                |
|-------|------|------|----------------|
| ❶ 11쪽 | 01 ⑤ | 02 ⑤ | 03 ①           |
| ❷ 13쪽 | 04 ④ | 05 ③ | 06 ②           |
| ❸ 15쪽 | 07 ③ | 08 ⑤ | 09 Insert(인서트) |
| ❹ 17쪽 | 10 ④ | 11 ② |                |
| ❺ 19쪽 | 12 ③ | 13 ② | 14 ②           |
| ❻ 21쪽 | 15 ③ | 16 ② | 17 ① 18 ④      |
| ❼ 23쪽 | 19 ⑤ | 20 ① | 21 ③           |

**01** 이 글은 영화의 대본인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는 서술자가 개입하지 않고, 주로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표현된다. 서술자가 등장하여 사건의 전개 과정과 인물의 심리를 전달하는 것은 소설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장면 표시(Scene Number)는 장면의 극중 순서나 위치 등을 나타내는 번호로, 'S#'으로 나타낸다.

② 시나리오는 영화 촬영을 전제로 하여 창작되며, 장면의 차례, 인물의 대사 및 동작, 배경 등을 지시한다.

③ 시나리오에서는 현재형 진술로 사건이 전개된다.

④ 시나리오에서는 등장인물의 행동, 표정, 음향 효과, 카메라 위치 등을 지시하는 글인 지시문을 사용한다.

**02**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각자의 경험이나 지식, 자라 온 환경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아름'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여학생 3'은 스마트폰으로 '아름'의 정보를 검색하기는 하였으나, 택시에서 내리면서 '대수'에게 인사만 하였을 뿐 '대수'와 '아름'의 처지를 동정하거나 위로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부인'은 택시에서 '아름'을 본 뒤 반가움을 드러내었다.

② '여자'는 통화를 하다가 뒤늦게 '아름'을 발견하고는 '깽!' 하며 비명을 지르고 짜증을 내며 혐오감을 드러내었다.

③ '여학생 1'은 제일 먼저 '아름'을 알아보고 '여학생 2'에게 속닥거렸다.

④ '여학생 2'는 '아름'을 보고 인증 사진을 찍을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

**03** '아름'은 학원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을 보며 평범한 삶을 사는 또래들에게 부러움을 느꼈을 것이다. 기대, 아쉬움, 불만, 격정 등은 [A]의 상황에서 느낄 만한 심리와 거리가 멀다.

**04** 시나리오는 희곡처럼 한정된 무대에서 상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공간을 나타내는 세트나 실제 야외에서 촬영하여 영화로 상연된다.

**05** '아름'과 '미라', '대수'는 한강에서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미라'에 대한 지시문을 비롯하여 '미라'의 행동과 대사로 미루어 볼 때, '미라'가 억지로 밝은 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수'와 '아름'도 맥주를 사러 같이 간 것이지, '미라'를 위해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아름'은 '대수'와 농담을 주고받고, 가족과 한강 둔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는 등 가족과 함께할 때 편안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아름'과 '아름'의 부모인 '대수', '미라'는 밤에 한강 둔치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며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④ '대수'는 "네가 나보다 좀 더 늙었다고 해서 아빠를 함부로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라고 하며, '아름'의 병에 대해서도 가볍게 농담하며 아픔을 웃음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⑤ '미라'와 '대수'는 서로 '아름'이 자신을 닮았다고 우기고 있는데, 이는 아들인 '아름'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06** '대수'와 '미라'는 아들인 '아름'이 조로증에 걸려 심각한 상황임에도 이를 특별하게 의식하며 괴로워하거나 과보호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그저 평범한 부모들이 자식을 대하듯 아끼고 사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07** 이 글의 '불량한 학생들'은 조로증 때문에 또래의 아이들보다 늦어 있는 '아름'의 다른 외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이한 동물처럼 대하며 '아름'을 괴롭히고 있다.

**08** 이 글은 조로증을 앓고 있어 또래와는 다른 외모를 지니게 된 '아름'을 대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아름'에 대한 진심이나 배려보다는 편견과 호기심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성숙하지 못한 태도를 통해 장애인으로서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 '아름'을 이용해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는다.

**09** 이 글에서는 '아름'이 '불량한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 사이에 '아름'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는 '대수'의 모습이 'Insert(인서트)'로 삽입되고 있다.

**10** S# 16에서 '아름'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엄마인 '미라'에게 빨리 가자고 하고 있다. 따라서 '아름'이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것은 자신의 모습이 창피하여 병색을 가리기 위해서이다. 또래처럼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다.

**11** S# 15에서 '미라'가 '아름'에게 나가 있으라고 한 것은 '아름'이 자신의 병세가 심각하다는 것을 몰랐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다. '아름'과 '주치의'의 갈등을 염려해서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주치의'는 '아름'의 병세가 악화된 것을 이야기하며 '미라'에게 화가 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주치의'가 '아름'을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미라'는 '아름'의 병세가 걱정되고 '아름'이 병원비를 걱정하는 것에 대해 속상해할 뿐,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④ S# 16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름'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혹은 '동정 어린 눈길로' 훑고대고 있다.

⑤ "나, 열일곱 살에 애 낳은 여자야."라는 말을 '아름'이 따라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미라'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말임을 알 수 있으며, 갈등을 겪던 '미라'와 '아름'은 이 말을 통해 웃음을 되찾으며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12** '아름'과 '서하'에 대한 설명은 '중략 부분 줄거리'를 통해 나타난다. '아름'과 '서하'는 '서하'가 먼저 전자 우편을 보내고, '아름'이 이에 답장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아름'은 처음에 쉽게 답장을 쓰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입원을 한 후 용기를 내어 '서하'에게 전자 우편을 쓴 것이므로, '아름'이 즉시 답장을 보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아름'은 자신이 출연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 '서하'라는 소녀에게서 전자 우편을 받고, '서하'와 전자 우편을 주고받으면서 설명을 느끼고 있다.

④ '아름'이 출연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 '서하'라는 소녀가 먼저 '아름'에게 전자 우편을 보낸 것이다.

⑤ '아름'에게 전자 우편을 보낸 '서하'라는 소녀는 '아름'과 같은 나이이고 병을 앓고 있다는 점에서 '아름'과 처지가 비슷하다.

**13** '장 씨'는 평소보다 맛을 낸 옷차림으로 촬영장에 나타나고, '아름'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가족과 함께 '장 씨'를 콧자 우쭐해한다. 이를 통해 천진하고 꾸밈없는 '장 씨'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14** 이 글의 '미라', '장 씨', '승찬', '서하' 등은 각자의 방식으로 '아름'을 대하고 있다.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이나 지식, 자라 온 환경이나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이라도 그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②와 같이 대상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일치한다면 모두 비슷한 태도로 '아름'을 대했을 것이다.

**15** '아름'과 '장 씨'는 늙어 가는 것에 대하여 서로 마음 편하게 소통하는 사이로, 나이 차를 뛰어넘는 우정을 나누는 관계이다. '장 씨'는 방송 인터뷰를 처음 해 보고 쉬운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방송을 통해 '아름'과 가까워진 것이 아니다. '장 씨'와 '아름'은 원래 이웃 사이로 알고 지냈다.

**16** 전자 우편함에 새 편지가 0통임을 확인하는 '아름'의 모습이 반복되다가 'Cut to(컷 투)'를 통해 전자 우편을 받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Cut to(컷 투)'는 같은 장소에서 시간 경과를 나타내는 장면 전환 기법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은 '몽타주(montage)', ③은 '큐(cue)', ④는 '인서트(insert)', ⑤는 '이미지(image)'에 대한 설명이다.

**17** '서하'의 사진을 보고 싶다는 '아름'의 전자 우편에 대한 답장으로 '서하'는 자신의 손을 찍은 사진을 보낸다. 지시문에서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소녀의 손. / 그 사진에서, 차마 아픈 모습을 보여 주고 싶지 않은 사춘기 소녀의 마음이 느껴진다.'라고 하였으므로, '서하'는 자신의 아픈 모습을 보여 주고 싶지 않아 손을 찍은 사진을 보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8** ㉠에서 '아름'은 '서하'의 답장을 기다리느라 잠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기에는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을 의미하는 전전반측(轉轉反側)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수구초심(首丘初心)'은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돈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다.

② '연목구어(緣木求魚)'는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이심전심(以心傳心)'은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한다는 말이다.

⑤ '조삼모사(朝三暮四)'는 간사한 피로 남을 속여 횡횡함을 이르는 말이다.

**19** '아름'은 상상 속에서 건강한 열여섯 살 소년의 모습을 하고 '서하'와 함께 오솔길을 걷고 있다. '서하'는 '아름'과 마주 보고 미소 지으며 '아름'에게 언제 살고 싶어지냐고 묻고 있으므로, 이러한 '서하'의 모습에서 '서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떠올릴 만한 근거는 없다.

**오답 풀이** ① '아름'은 상상 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서하'와 오솔길을 걸어가고 있다.

② 상상 속에서 '아름'이 건강한 모습으로 '서하'를 만나는 이유는 '아름'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평범한 행복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③ '아름'은 현실에서 노인의 외모를 하고 있지만, 상상 속에서는 건강한 열여섯 살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다.

④ S# 50의 첫 부분에, 사진 위로 겹쳐진 두 손('아름'의 현실)이 실제로 맞잡은 손('아름'의 상상)이 되고 있다. 현실과 상상이 연결되는 장면이다.

**20** '아름'이 언급한 순간들은 하늘에 뭉게구름이 떠 있고, 아이들이 웃고, 엄마와 함께 빨래를 하는 등,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평화롭고 평범한 순간들이다.

**21** 이 시나리오의 작가는 장애를 가진 소년인 '아름'과 '아름'을 둘러싼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독자는 이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우리 사회의 면면에 대해 성찰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를 읽는다고 해서 독자가 시나리오 속 인물들의 삶을 모방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24~29쪽

- 01 ③    02 ⑤    03 ⑤    04 ①    05 ④    06 앞  
의 장면에서는 여학생들이 택시 안에 있지만, 뒤의 장면에서는 여학생들이 학  
원가 앞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리고 있다. 즉 이 글에서 'Cut to(컷 투)'는 택시  
안에서의 시간 경과를 보여 준다.    07 ④    08 ④    09 ④  
10 ⑤    11 ②    12 ②    13 ③    14 ①    15 ①  
16 ⑤    17 ④    18 두 사람, 마주 보고 피식 웃는다.    19 ②  
20 ③

**01** 이 글은 영화의 대본인 시나리오이다.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면 음악성을 얻을 수 있지만, 시나리오에는 갈등의

문학으로 음악성을 갖추어야 하는 갈래가 아니다. 반복을 통해 음악성을 얻는 것은 시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02** (라)에서 ‘불량한 학생들’은 ‘아름’의 모자를 벗기고 등성듬성한 머리가 드러나자 놀라고 있으며,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혹시 옴는 병 아냐?”라고 하며 혐오감을 더욱 표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다)에서 ‘대수’와 ‘미라’는 서로 ‘아름’이 자신을 닮았다고 우기고 있는데, 이는 아들인 ‘아름’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 때문이다.  
 ② (가)와 (나)에서 ‘대수’가 택시 기사 일을 하면서 아들인 ‘아름’과 함께 택시를 타고 다니며 손님들을 태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여자’는 ‘아름’을 보자 혐오감을 표출하며 차에서 내리고 있다.  
 ④ ‘여학생들’은 ‘아름’을 보고 인증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는 ‘아름’과의 만남을 기념할 만한 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03** 이 글에서는 장애가 있는 소년인 ‘아름’을 대하는 ‘여자’, ‘여학생들’, ‘불량한 학생들’을 비롯하여 ‘아름’의 부모인 ‘대수’와 ‘미라’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

**04** (다)에서 ‘아름’은 ‘대수’, ‘미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신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아름’은 자신이 비록 병에 걸려 아프기는 해도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며 행복해하고 있을 것이다.

**05** (라)의 ‘불량한 학생들’은 ‘아름’에게 심한 언행을 하며 ‘아름’을 괴롭히고 있다. 이는 ‘아름’의 노인 같은 외모를 조롱하는 것으로,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들은 ‘아름’이 아니라 ‘불량한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② (라)에서 ‘불량한 학생들’은 ‘아름’의 외모를 보고 ‘할배, 외계인’ 등이라고 놀리며 ‘아름’의 마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  
 ③ ‘불량한 학생들’의 행동은 자신들과 다른 모습을 한 대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⑤ ‘불량한 학생들’은 다수이기 때문에 혼자인 ‘아름’을 더욱 괴롭히고 있다.

**06** **서술형** ‘Cut to(컷 투)’는 같은 장소에서 시간 경과를 나타내는 장면 전환 기법이다. (나)에서 ‘여학생들’은 택시 안에서 ‘아름’과 인증 사진을 찍고, ‘Cut to(컷 투)’를 통해 시간이 경과한 뒤 택시가 학원가 앞에 도착하자 택시에서 내리고 있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택시에 타고 있던 여학생들이 시간 경과 후 학원가 앞에서 내렸다는 내용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이 글에서 ‘Cut to(컷 투)’가 택시 안에서의 시간 경과를 보여 준다는 내용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07** (라)의 ‘불량한 학생들’은 ‘아름’의 외모를 놀림거리로 삼으며 ‘아름’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므로, ‘불량한 여학생 2’가 ㉔에서 주위를 의식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8** 이 글에서 ‘아름’은 조로병에 걸려 80세 노인의 외모를 지닌 환자이고, 그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편견 어린 시선을 받는다. 그렇지만 이는 개인적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회의 개발과 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삶과는 관련이 없다.

- 오답 풀이** ①, ⑤ ‘아름’은 사회적 약자로 장애를 가진 소년이다. 이 글은 이런 ‘아름’을 대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고민하게 하고,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끔 한다.  
 ② ‘아름’을 대하는 사람들을 통해 상대를 진정으로 배려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③ ‘아름’을 비롯하여 ‘아름’의 어머니인 ‘미라’, ‘아름’의 친구가 되어 주는 ‘장씨’, 전자 우편을 주고받는 ‘서하’ 등의 모습을 보며 이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09** (나)의 내용에 따르면, ‘아름’과 ‘서하’는 텔레비전에 출연한 ‘아름’을 보고 ‘서하’가 먼저 전자 우편을 보낸 후 ‘아름’이 다시 답장을 보내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따라서 ‘서하’는 처음부터 ‘아름’의 병에 대해 알고 있었다.

**10** (가)에서 ‘미라’는 ‘막내 외삼촌’의 사례를 들어 ‘아름’을 설득한 뒤, ‘아름’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걷고 있다. ‘아름’에게 자신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거나, ‘아름’을 강압적으로 설득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오답 풀이** ① 가벼운 수술을 했던 ‘막내 외삼촌’의 상황과 비교하며, 이보다 더한 검사도 받고 위기도 많이 넘긴 ‘아름’을 칭찬하고 있다.  
 ② ‘미라’는 ‘아름’이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③ ‘미라’는 “우리 이 길 몇 년 다녔어?”라고 하며 ‘아름’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④ ‘아름’에게 친숙한 ‘막내 외삼촌’의 사례를 제시하고, ‘아름’은 이보다 훨씬 대단하다고 하며 상황을 쉽게 이해시키고 있다.

**11** (라)에서 ‘아름’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전자 우편함을 계속 확인하는데, 이를 통해 ‘아름’이 ‘서하’에게 답장이 오지 않는 것을 걱정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아름’이 ‘서하’의 사진을 보고 싶다는 내용의 전자 우편을 보낸 뒤의 일로, 어렵게 사귀는 친구인 ‘서하’와 멀어지거나 이대로 계속해서 연락을 못하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름’의 병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12** ‘서하’는 사진을 보내 달라는 ‘아름’의 편지를 받고, 자신의 손 사진을 보낸다. 이를 통해 차마 아픈 모습을 보여 주고 싶지 않은 ‘서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아름’은 비록 ‘서하’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이를 서운해하기보다는 ‘서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사진에 자신의 손을 포개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아름’은 (라)에서 ‘서하’의 답장을 몹시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③ <보기>에 따르면, ‘서하’의 손 사진에서 차마 아픈 모습을 보여 주고 싶지 않은 사춘기 소녀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하였다.

④ '아름'은 아픈 모습을 보여 주고 싶지 않은 '서하'의 마음을 이해하고,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서하'의 손 사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공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서로 맞잡은 것처럼 보이는 소년과 소녀의 손이 (마)의 '아름'이 상상하는 장면과 연결되고 있다.

**13** ㉠을 통해 이 장면이 시나리오(작품의 갈래)의 49번째 장면(장면의 순서)이며, '아름이의 병실'이라는 공간(공간적 배경)에서 '밤'이라는 시간(시간적 배경)에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전개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물의 동작은 나타나지 않는다.

**14** '아름'은 현실에서는 노인의 외모를 지닌 아픈 모습이지만, 상상 속에서는 건강한 열여섯 살 소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아름'이 나이에 맞는 신체로 살고 싶은 소망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15** '미라'는 말과 행동을 통해 소심한 모습을 보이는 '아름'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아름'도 말과 행동을 통해 위축된 심리와 '서하'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제시된 부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극적 반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병실'과 같이 공간을 지칭하는 단어는 발견되지만, 실제 지명이 사용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④ 병원 앞 거리와 병실이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의 전부이므로, 장면 전환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⑤ 제시된 부분의 공간적 배경은 병원 앞 거리와 병실로, 총 두 곳이다.

**16** (나)에서 '서하'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아름'을 보았고, 그 후에 '아름'에게 전자 우편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서하'가 '아름'에게 연락하는 것을 처음에 주지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아름'이 병원 앞 거리를 13년 동안 다녔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나)~(다)에서 '아름'과 '서하'는 전자 우편을 주고받으며 소통하였고, '아름'은 '서하'의 얼굴을 모른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아름'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아름'이 병세 악화로 입원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 (가)에서 자신들과 다른 모습을 한 '아름'을 호기심 어린 눈빛이나 동정 어린 눈길로 힐끗대는 인물들의 태도를 통해 독자는 장애인을 대하는 자신과 사회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다. 즉 독자는 편견과 호기심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속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다.

**18** (가)에서는 타인의 시선에 위축된 '아름'과, '아름'이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미라'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평소에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라'가 곧잘 하는 말을 '아름'이 따라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해소된다. 그리고 '두 사람, 마주 보고 피식 웃는다.'에서 두 사람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었음이 드러난다.

**19** '아름'이 '미라'의 손을 잡아끌며 재촉한 것은, 얼른 자리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이 글에서 '아름'은 '미라'와 함께 있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③ '아름'은 병 때문에 자기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다. '미라'는 아픈 '아름'이 병원비를 걱정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까지 신경 쓰는 모습에 속상해하며 '아름'이 또래 아이들처럼 자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④ '아름'은 '서하'의 답장이 왔는지 확인하려고 계속 전자 우편함을 확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름'이 '서하'의 편지를 기다리며 마음을 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아름'은 '서하'에 대해 잘 알고 싶어서 '서하'가 보낸 사진을 화면 가득 키워서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20** '아름'은 병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피하고 싶어서 모자와 커다란 선글라스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다. '미라'는 아픈 '아름'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데에 속상함을 느끼고 있다. '미라'가 "연예인도 아니면서 이런 걸 쓰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지!"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미라'가 '아름'에게 선글라스를 씌우는 행위를 하는 것은 맥락상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에는 '선글라스를 벗기면서'라는 지시문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30~31쪽

01 ㉠

02 ㉡

03 ㉢

04 ㉤

05 ㉥

**01** 작가는 자신이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나 가치관 등을 반영하여 문학 작품을 창작하고, 독자는 이를 읽으며 작가가 전달하는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작가는 문학 작품을 매개로 독자에게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독자가 글을 읽음과 동시에 작품의 주제가 독자의 삶과 독자가 속한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참고 자료] 「두근두근 내 인생」의 뒷이야기

'승찬'이 알아보니, '서하'는 작가 지망생이 꾸며 낸 인물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름'은 몹시 상심해서 게임에만 빠지는 등 엇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대수'는 작가 지망생을 만나 때려 주려다 결국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이해하게 된다. 병세가 악화된 '아름'은 시력마저 잃게 되고, '대수'는 그런 '아름'에게 '서하'가 보낸 전자 우편인 것처럼 편지를 읽어 준다. '아름'은 모든 사실을 알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고마워한다. '아름'은 자신이 듣고 상상했던 것을 바탕으로 부모에 대한 소설을 써서 '대수'와 '미라'에게 선물하고, '미라'가 읽어 주는 소설을 들으며 숨을 거둔다.

**02** (라)에서 '서하'가 전자 우편으로 보낸 손 사진은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소녀의 손'이라고 하였다. 또한 '아름'과 '서하'가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근거는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하'의 손이 '아름'처럼 늙게 보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주치의'는 '아름'의 병이 악화되었음을 말하고 있으므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은 적절하다.

- ② '미라'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은 '아름'에게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을 갖고 있으므로 걱정스러움과 함께 속상한 표정을 짓는 것은 적절하다.
- ③ (라)와 (마)에서 '서하'의 대사는 '소리'로 들리고 있다. '소리'는 화면 밖에서 들리는 등장인물의 대사를 말한다.
- ⑤ (나)에서 '미라'는 아픈 '아름'이 주위를 의식하며 창피해하는 것에 대해 안쓰러워하며 선글라스를 벗기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03** <보기>를 통해 '아름'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서 살고 싶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⑤ 중 가장 일상적인 상황은 비 오는 날 부모님이 우산을 들고 자녀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⑤ 초등학교 때 대학에 입학한 영재, 자치구에서 가장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우리나라 국가 대표 수영 선수, 태어나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간 소녀의 모습 등은 모두 일상적 경험보다는 특별한 경험에 가깝다.

**04** (마)에서 '아름'이 건강한 열여섯 살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상상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싶은 '아름'의 바람을 형상화한 것이지, 건강한 모습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형상화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아름'은 자신이 항상 아팠기 때문에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미라'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한 것이므로 '아름'의 어른스러운 성격을 알 수 있다.
- ② 아픈 '아름'이 사람들의 시선이나 병원비 등을 신경 쓰지 않고 아프면 오히려 평범한 아이처럼 행동하기 바라는 '미라'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 ③ '아름'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장 씨'를 '짱가'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동안이라고 하는 등 친구처럼 스스럼없이 편하게 대하고 있다.
- ④ '아름'은 '서하'의 마음에 공감하여 사진 위에 손을 포개어 보고 있다.

**05** <보기>는 겨울밤 거리에서 굴을 파는 '할머니'를 소재로 하여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노래하고 있다. 이 글의 '서하'는 '아름'의 또래 친구로, '아름'에게 긍정적인 대상이지만, <보기>의 '너'는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를 팔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 가는 '할머니'에게 그 굴값을 깎는 사람이므로 긍정적인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의 '아름'은 조로증을 앓고 있고, <보기>의 '할머니'는 힘겹게 생계를 이어 가고 있으므로 둘 다 고통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
- ③, ⑤ 이 글은 영화 상영을 전제로 쓰인 시나리오이므로 화면의 시각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반면 <보기>는 작가의 정서를 운율감 있게 전달하는 시이므로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 ④ 이 글은 '아름'을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고, <보기>는 '할머니'를 중심으로 굴값을 깎는 '너'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은 모두 '아름'과 '할머니' 같은 소외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성찰하게끔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겨울밤에 차가운 밤거리에서 굴을 파는 할머니를 소재로 하여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노래한 시이다.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며 기뻐하는 이기적인 '너'에게 화자는 상대의 처지를 살피고 연민을 느낄 수 있는 '슬픔', 즉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전하고자 한다.

## (2)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

### 교과서 꼼꼼히 이해하기

35쪽 | 01 ⑤ | 02 ③

**01** '결론-①'에서는 영국의 시인 '밀턴'의 말을 인용하여 이단자를 포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의 동력임을 말하고 있다. ⑤에서 말하는 '이탈리아가 몰락한 이유는 갈릴레이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은 '결론-①'의 중심적인 내용이 아니라,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된 근거이다.

**02** 쓰기 맥락은 글의 주제, 글을 쓰는 목적, 예상 독자, 글이 실릴 매체 등과 같이 다양한 글쓰기 상황을 의미한다. 소재가 같은 글이라도 쓰기 맥락(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글을 쓰는 목적이 설명인지 설득인지 등)에 따라 글의 내용이나 형식이 달라질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새로운 생각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독자를 설득하는 논설문이다.
- ② '서론-본론-결론'을 갖춘 완성된 글이므로, 인쇄 매체에 실릴 수 있다.
- ④ '존 스노'의 연구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보아, 예상 독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로 볼 수 있다.
- ⑤ 이 글은 이단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의 동력임을 제시하며, '새로운 생각을 수용하는 문화와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36~39쪽

- 01 ④ | 02 ⑤ | 03 ⑤ | 04 권위 있는 인물의 말을 인용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05 ② | 06 ⑤ | 07 ④ | 08 ② | 09 ⑤ | 10 ⑤ | 11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사회의 발전을 위한 저항임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12 ② | 13 ①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을 촉구함, ① 학급 친구들

**01** 이 글의 제목에서 '반란'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회의 너그럽지 못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단자'들이 기존의 권위나 통념을 거부하거나 새로운 생각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 글의 글쓴이는 '이단자'들을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반란'이라는 표현에 글쓴이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02** (라)에서는 과학의 도약이 대개 이단적 발상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직과 사회도 이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과학, 사회, 조직 모두 새로운 생각을 수용할 때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하자 천동설을 지지하던 당시의 권력층이 '갈릴레이'를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단자로 욕하고 목숨까지 위협했다고 하였다.

② (나)에서 19세기인 1854년에 런던의 브로드가에 퍼진 콜레라에 대해 언급하면서 당시 과학자들이 별다른 증거 없이 오염된 공기로 콜레라가 전염된다고 주장했다고 하였다.

③ (다)에서 당시 과학자들이 오염된 공기로 콜레라가 전염된다고 주장했지만, 영국의 의사 '존 스노'만은 공기가 아니라 물이 콜레라균의 매개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입증하려고 했다고 하였다.

④ (라)에서 사회나 조직이 구축한 문화적 동질성은 구성원의 연대를 강화하고 구성원이 사회 공동의 목표에 집중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03** 이 글에서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의 사례와 콜레라균의 매개체가 물이라는 가설을 입증했던 '존 스노'의 사례를 들고 있다. 이 글에 '존 스노'가 했던 실험의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기존의 통념인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의 사례는 '용기 있는 이단자'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②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갈릴레이'의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의 관심을 환기하고,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③ 오염된 공기가 콜레라균의 매개체라고 생각했던 기존의 통념을 부정하고 물이 콜레라균의 매개체임을 밝혀냈던 '존 스노'의 사례는,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사례이다.
- ④ 예상 독자가 일반인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존 스노'의 실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04 서술형** (바)에서 글쓴이는 영국의 시인 '밀턴'의 말을 인용하여 새로운 생각을 수용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권위 있는 인물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효과를 얻고 있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권위 있는 인물의 말을 인용하였음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인용을 통해 주장의 설득력을 높였음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05** 쓰기 맥락이란 글의 주제, 글을 쓰는 목적, 예상 독자, 글이 실릴 매체 등과 같은 다양한 글쓰기 상황을 말한다. 쓰기 맥락에 따라 글의 내용이나 형식, 글을 쓰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소재가 같은 글이라도 글의 주제나 글을 쓰는 목적에 따라 글의 내용이나 형식이 달라질 수 있다.
- ③ 글을 고쳐 쓸 때에는 쓰기 맥락 및 문장의 호응, 맞춤법 등을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 ④ 예상 독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글쓰기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 ⑤ 글을 쓰는 목적과 예상 독자는 글쓰기 상황이 어떠한지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므로, 글을 쓰는 목적에 따라 예상 독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06**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자.'라는 주제로 글을 쓰려면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자료를 찾아보아야 한다. ⑤는 환경 문제보다는 과학 기술에 대해 중점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07** 글을 평가할 때 정보의 양은 평가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정보를 많이 넣어도 글에 짜임새가 없으면 주제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고, 정보를 적게 넣어도 짜임새 있게 전달하면 좋은 글이 될 수 있다.

**08** 이 글의 주제는 '새로운 생각을 수용하는 문화와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이다. 이 글은 독자를 설득하고 있으며, '서론-본론-결론'의 구성을 갖추고 있다. 예상 독자는 전문적인 과학·기술의 지식을 지니지 않은 일반적인 독자, 글이 실릴 매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의 기고란과 같은 인쇄 매체가 적절하다.

**09** (가)에서는 잘 알려진 인물인 '갈릴레이'의 사례를 들고 있다. 이는 독자에게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앞으로 전개할 주장에 대한 근거로 쓰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인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존 스노'가 콜레라균의 매개체를 밝히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으나, 과학 기술의 발달 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 ②, ④ 이 글은 천동설과 지동설, 콜레라균의 매개체에 대한 상반된 두 견해는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절충하는 견해는 제시하지 않았다. 상반된 두 견해 중 옳은 견해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을 뿐이다.
- ③ 이 글은 통념에 대한 정의나 이와 비슷한 학문적 개념은 제시하지 않았다.

**10** '존 스노'는 '콜레라는 공기로 전염된다.'라는 지배적 통념에서 벗어나, 콜레라가 물을 통해 전염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기에 콜레라의 전염 경로를 알아낼 수 있었다.

- 오답 풀이** ① '존 스노'는 콜레라가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 ② '밀턴'은 '갈릴레이'를 침묵하게 만든 것이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의 몰락을 불러왔다고 하였다.
- ③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는 영원한 침묵을 맹세하여 처형을 면했다.
- ④ '갈릴레이'의 지동설은 당시 신의 권위를 중시하며 천동설을 신봉하던 사람들에게 배척당했다.

**11 서술형** 과학 분야, 사회, 조직 등은 새로운 생각에 너그럽지 못하여, 기존의 제도나 학설에 도전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레이'나 '존 스노'와 같은 사람들은 과학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용기를 내어 이단적 발상을 제시하였다. '충심 어린 이단자들'은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사회의 발전을 위한 저항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이단자들의 저항이 사회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한 문장으로 썼다.                        | <input type="checkbox"/>               |

**12** 글쓴이는 마지막 문단에서 환경 보호는 어려운 일이 아니며,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자원 낭비를 막고 쓰레기 처리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를 분류해서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글쓴이는 청소 당번을 하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들이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있어', '있더라고' 등과 같이 비격식체를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친근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⑤ 글쓴이는 첫 번째 문장에서 환경 오염이 심각하지만 우리는 이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13** 이 글은 환경 보호를 주제로 하여, 독자에게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을 촉구하는 글이다. 이 글이 실린 매체는 학교 누리집의 학급 게시판이므로 독자는 학급 친구들이다.

###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40~41쪽

**01 ④**    **02 ②**    **03 ②**    **04 ①**    **05 ⑤**    **06 (가)**  
와 (나)의 주제는 환경 보호이고, 글을 쓴 목적은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가)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예상 독자가 일반인이고, (나)는 학급 친구들만 아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예상 독자가 학급 친구들이다.

**01** 이 글의 글쓴이는 다양한 근거와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반론은 소개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새로운 생각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의 사례와 콜레라균의 매개체가 물이라는 가설을 입증했던 '존 스노'의 사례를 들고 있다.

② (마)에서는 영국의 시인 '밀턴'이라는 권위 있는 인물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③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례로, 이를 통해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있다.

⑤ 과학 분야의 사례인 '갈릴레이'와 '존 스노'의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조직과 사회에 확대 적용하여, 용기 있는 이단을 수용할 때 사회의 발전과 도약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02** '새로운 생각에 대한 너그럽지 못한 태도'에서 '새로운 생각'이란 기존 사회의 통념과는 다른 새로운 생각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에 대해 너그럽지 못한 태도란, 새로운 생각을 배척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천동설을 믿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는 진리의 창시자가 아니라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온한 이단자였다고 하였다.

③ '갈릴레이'와 '존 스노'는 모두 기존의 통념을 거부하고 새로운 생각을 제시한 사람으로, 이러한 용기 있는 이단자들로 인해 사회의 발전과 도약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하였다.

④ '갈릴레이'의 새로운 생각을 수용하지 않은 이탈리아는 결국 몰락하였다는 말로, 폐쇄성이 사회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⑤ '이상한 말'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생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글의 글쓴이는 이러한 '이상한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고 있다.

**03** <보기>는 우리나라의 환경 위기 시각이 위험 수준임을 보여주는 자료로,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04** ㉠~㉤ 중 <보기>의 '환경이 급속하게 오염되고 있는 실태'와 내용상 가장 유사한 부분은 현 사회의 심각한 환경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서론' 부분이다. '본론'에서는 학급에서 쓰레기 분류가 되지 않는 문제 상황, 환경 보호의 실천 사례,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결론'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태도를 지켜야 한다는 글쓴이의 주장을 강조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보기>의 내용이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05** (가)에서 이제 '구호'뿐인 환경 보호가 아닌 '실천'으로서의 환경 보호를 해야 할 때라고 하였다. 따라서 구호를 만들어 일상에서 기억하자고 되새기는 내용의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④ (가)에서 음식을 쓰레기를 줄이는 것과 자동차 매연을 줄이는 것을 실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③ (나)에서 이면지로 활용할 수 있는 용지, 캔, 플라스틱 등을 일반 쓰레기와 분류해서 버리는 것을 실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06 서술형** <보기>의 쓰기 맥락에 따라 (가)와 (나)를 분석하면, (가)와 (나)는 글의 주제와 글을 쓴 목적이 같다. 그러나 내용과 표현 형식으로 볼 때 예상 독자는 서로 다름을 짐작할 수 있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가)와 (나)의 주제와 목적을 알맞게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가)와 (나)의 예상 독자가 서로 다름을 알맞게 썼다. | <input type="checkbox"/>               |

본문 42~48쪽

### 대단원 정리 문제

**01 ④**    **02 ⑤**    **03 ⑤**    **04 ③**    **05 ④**    **06 ③**  
**07 ④**    **08 ④**    **09 ④**    **10 ③**    **11 ②**    **12 ③**  
**13 ②**    **14 '장 씨'와 '촬영 팀'이 인터뷰하고 있는 장소에서의 시간이 경과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15 ②**    **16 ②**    **17 ④**    **18 ③**  
**19 ③**    **20 ⑤**    **21 ②**

**01** (가)는 사회적 약자인 '아름'을 중심으로 한 시나리오의 한 장면이고, (나)는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글쓴이의 주장이 담긴 논설문이다. (나)에서 과거의 인물인 '갈릴레이'와 '존 스노'의 사례를 통해 유사한 깨달음을 전하고 있으므로, 그 당시에 인물이 겪었던 사건을 대조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서술자 없이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② (나)는 독자를 설득할 목적으로 쓰인 논설문이다.  
 ③ (가)는 '아름'과 '대수', '불량한 학생들'이 같이 화장실이라는 한 공간에서 겪는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⑤ (가)의 독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에 대해, (나)의 독자는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02** (가)의 '불량한 학생들'은 자신들과 다른 외모를 지닌 '아름'을 수용하지 못하고 괴롭히고 있다. (나)의 글쓴이는 새로운 생각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가)의 '불량한 학생들'에게 자신들과 다른 모습의 '아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기존의 것을 단단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글쓴이의 주장과 다르므로 적절하지 않다.

**03** (가)에는 자신들과 다른 '아름'을 괴롭히는 '불량한 학생들'의 편견과 차별이, (나)에는 '용기 있는 이단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차별하려 하는 편견이, <보기>에는 가난이라는 사회적 차별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버려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04** (가)에서 ㉠의 앞부분에는 '불량한 학생들'이 '아름'을 괴롭히는 장면이, ㉠의 뒷부분에는 '대수'가 두리번거리는 장면이 제시되고 있다. 즉 '대수'의 모습이 삽입되면서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05** (나)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이단자들의 말을 받아들이자는 내용의 설득하는 글이다. 설득하는 글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기보다는,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독자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답 풀이** ① 설득하는 글을 쓰기 전에는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등 다양한 글쓰기 상황인 쓰기 맥락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  
 ②, ⑤ 설득하는 글은 글쓴이의 주장이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고, 글쓴이는 글을 통해 독자의 생각이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 한다.  
 ③ 논설문, 연설문, 건의문, 신문 사설 등은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글이다.

**06** (나)에서는 사회나 조직이 구축한 문화적 동질성이 구성원의 연대를 강화하는 순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생각에 대한 너그럽지 못한 태도가 사회나 조직의 발전을 해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들을 연대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7** (나)에서는 기존 사회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이상한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였으므로, ㉠은 기존 사회의 편협한 시각이나 통념과는 다른 새로운 발상(생각)을 의미한다.

**08** (가)와 (나)는 모두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자고 주장하며 각각의 근거를 들어 독자를 설득하고 있지만,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가)는 격식체를 사용하였고, (나)는 비격식체를 사용하였다.  
 ② (가)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일반인을 예상 독자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나)는 글쓴이의 교실

에 쓰레기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 사례를 제시하여 쓰레기를 분류하여 배출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예상 독자를 학급 친구들로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와 (나)는 모두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독자를 설득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환경 보호라는 같은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쓰기 맥락의 차이에 따라 내용과 형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09** (가)에서는 글쓴이의 경험을 찾아볼 수 없다. (나)에서는 교실 쓰레기통을 정리하며 쓰레기 분류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목격한 글쓴이의 경험은 나타나지만, 환경 보호를 실천한 경험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 반면, 환경이 급속도로 오염되어 가고 있다고 하였다. (나)에서는 요즘 뉴스에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다룬 기사가 많이 나온다고 하였다.  
 ②, ⑤ (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자동차 매년 줄이기를, (나)에서는 쓰레기 분리배출을 일상에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가)와 (나) 둘 다 글의 끝부분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과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0** (가)에서는 '구호'뿐인 환경 보호가 아닌 '실천'으로서의 환경 보호를 해야 할 때라고 하였으므로, 환경 보호 구호를 글과 함께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1** (가)의 앞부분에 '밝은 음악과 함께 시작되는 택시 안 풍경.'이라는 지시문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가)의 앞부분에는 밝은 음악을 삽입하여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심 없이 통화하는 여자는 눈길도 안 준다.'를 통해, '여자'는 통화를 하느라 주변을 전혀 둘러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불량스러워 보이는 학생들에게 둘러싸인 아름. 남학생 넷, 여학생 둘.'을 통해 남학생 역할의 배우는 네 명, 여학생 역할의 배우는 두 명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아름'과 '불량한 학생들'의 조명 밝기를 달리해야 하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나)의 공간적 배경은 같이 화장실 옆의 으스스한 공간이므로, 조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다)에서 '어색해하며', '장 씨, 고개를 끄덕이지만 여전히 얼어 있다.' 등을 통해, '장 씨'가 매우 긴장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 씨'가 농담을 하거나 일부러 과장된 행동을 하는 것은 맥락상 적절하지 않다.

**12** '아름이 옆집 할아버지시죠?'라는 '승찬'의 말을 통해 '장 씨'가 '아름'의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임을 알 수 있다. '장 씨'는 '아름'과 나이 차가 많지만 신체 연령이 비슷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밀한 사이이다.

**오답 풀이** ① '아름'의 아버지인 '대수'는 택시 기사로 일하며, 필요한 경우 '아름'을 택시에 태운 채로 일을 하기도 한다.  
 ② '아름'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다. 그래서 '30대 부부'나 '불량한 학생들'이 '아름'을 알아본 것이다.  
 ④ '너 진짜 애야? 할배 아니고?' 등을 통해 '아름'이 또래와는 다른 외모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⑤ ‘애가 몸이 좀 불편……’, ‘암튼 막 빨리 늙어서 죽는 병이래.’ 등을 통해, ‘아름’이 병에 걸린 상태이며 현재 몸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이나 지식, 자라 온 환경이나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이라도 그에 대한 생각과 태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이 글의 등장인물들이 ‘아름’을 대하는 태도가 다양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중 (가)의 ‘여자’는 짜증을 내며 ‘아름’에게 혐오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부인’은 방송에 나왔던 ‘아름’을 알아보고 반가워하고 있다. 따라서 ‘아름’에게 호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장 씨’와 ‘아름’은 나이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이이다. 그래서 ‘장 씨’는 ‘아름’을 무척 소중히 여기며, ‘아름’이 자신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다.

④, ⑤ ‘불량한 학생들’은 ‘아름’을 동물원의 동물을 보듯이 구경하고, ‘할배’, ‘외계인’이라고 부르며 조롱하고 있다. 또한 ‘암튼 막 빨리 늙어서 죽는 병이래.’라며 아픈 ‘아름’을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있다.

**14 서술형** (다)에서 ‘장 씨’와 ‘촬영 팀’은 동일한 장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도 ‘장 씨’가 계속 실수를 하자 ‘촬영 팀’은 지친 상태이다. 이처럼 ‘Cut to(컷 투)’는 주로 같은 장소에서 시간 경과를 나타내는 장면 전환 기법이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Cut to(컷 투)’가 ‘장 씨’와 ‘촬영 팀’이 인터뷰하고 있는 같은 장소에서의 시간 경과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완성된 문장으로 썼다.                                                                | <input type="checkbox"/>               |

**15** 이 글과 <보기>는 각각 조로증을 앓고 있는 ‘아름’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젊은이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는 ‘여자’와 ‘아름’, ‘불량한 학생들’과 ‘아름’ 사이에서 외적 갈등이 나타난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인물 간의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난한 삶에 대한 공감과 연민을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은 <보기>뿐이다. 이 글의 주제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를 보듬는 부모와 자식의 아름다운 사랑이다.

④ <보기>에는 시적 화자와 그의 연인이 이별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지만, 이 글에는 인물과 사랑하는 이가 이별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지만, <보기>는 그렇지 않다.

#### [ 참고 자료 ] 신경림, 「가난한 사랑 노래」

|    |                                                                                                        |
|----|--------------------------------------------------------------------------------------------------------|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 성격 | 애상적, 현실적, 감각적                                                                                          |
| 제재 | 가난한 삶                                                                                                  |
| 주제 | 가난하고 소외된 삶에 대한 공감과 연민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호소력 있는 어조를 사용함</li> <li>동일한 구문을 반복하여 화자의 진솔한 감정을 강조함</li> </ul> |

**16** 이 글은 논설문으로,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글이다. 논설문에는 글쓴이의 생각과 주장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논설문은 논리성을 갖추어야 하는 글로, 내용 전개가 논리적이어야 한다.

③ 논설문은 신뢰성을 갖추어야 하는 글로, 주장에 대한 근거는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 만한 것이어야 한다.

④ 논설문은 타당성을 갖추어야 하는 글로, 주장에 대한 근거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⑤ 논설문은 체계성을 갖추어야 하는 글로, ‘서론 - 본론 - 결론’의 형식에 따라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17** 이 글은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과학 분야의 전문 지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실재했던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들어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므로, 예상 독자를 과학 분야의 전문가로 보기는 어렵다.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진,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가 당시 이단자로 몰렸던 사례나 콜레라의 전염 경로를 밝힌 ‘존 스노’의 사례를 자세히 제시한 것은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8** (라)에서는 과학 분야의 사례를 통해 도출한 생각을 사회와 조직으로 확장하여,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나 조직도 새로운 생각에 너그럽지 못하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19** ‘통념’이란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글은 기존의 통념에 저항한 ‘갈릴레이’와 ‘존 스노’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갈릴레이’는 기존의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곤욕을 치렀고, ‘존 스노’는 콜레라는 공기를 통해 전염된다는 기존의 가설을 부정하고 콜레라는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새로운 가설을 세웠다. 즉, ‘통념’에 해당하는 것은 ‘모든 천체는 지구의 둘레를 돈다.’와 ‘콜레라는 공기를 통해 전염된다.’이다.

**오답 풀이** ㄱ. ‘존 스노’는 기존의 통념을 부정하고, 콜레라는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새로운 가설을 내세웠다.

ㄴ. ‘갈릴레이’는 기존의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가설인 ‘지동설’을 내세웠다.

**20** ㉠의 ‘이상한 말’은 기존 사회의 편협한 시각이나 통념과는 다른 새로운 발상을 의미한다. 반면, 구성원의 연대를 강화하고 구성원이 사회 공동의 목표에 집중하게 하는 요인은 사회나 조직이 구축한 문화적 동질성이다. 문화적 동질성은 기존의 제도나 학설에 도전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불합리한 측면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상한 말’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21** 설득하는 글을 쓰는 과정은 ‘소재 선정하기 - 쓰기 맥락 분석하기 - 자료 수집하고 근거 마련하기 - 개요 작성하고 글 쓰기 - 고쳐쓰기’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글을 쓰거나 고쳐쓰기를 할 때에는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의 내용이나 형식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 7. 우리의 말과 글을 따라서

### (1) 국어의 문법 요소

#### 교과서 꼼꼼히 이해하기

|       |      |                               |                                                             |      |
|-------|------|-------------------------------|-------------------------------------------------------------|------|
| ① 53쪽 | 01 ⑤ | 02 ②                          | 03 어머니께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 04 ② |
| ② 55쪽 | 05 ④ | 06 ④                          | 07 •진행상: 꽃이 피고 있다. / 꽃이 피어 간다. •완료상: 꽃이 피어 있다. / 꽃이 피어 버렸다. |      |
| ③ 57쪽 | 08 ② | 09 도망치던 도둑이 경찰에게(경찰에 의해) 잡혔다. | 10 ②                                                        |      |

**01** 높임을 나타낼 때에는 한 문장에서 조사, 어미, 특수 어휘 등의 높임 표현이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할머니께 가방을 가져다 드렸습니다.’라는 문장에서는 조사 ‘께’, 어미 ‘-습니다’, 특수 어휘 ‘드리다’가 쓰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청자를 높이면 상대 높임법, 문장의 주체를 높이면 주체 높임법, 문장의 객체를 높이면 객체 높임법이 된다.

② 대상이 높으면 하십시오체 등 높임을 나타내는 표현을, 대상이 낮으면 해라체 등 그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

③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은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된다.

④ 주체 높임법에서는 주격 조사 ‘께서’, 객체 높임법에서는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하여 높임을 나타낼 수 있다.

**02** ②에서는 어휘 ‘저’를 사용하여 화자 자신을 낮추고, ‘-습니다’라는 하십시오체의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청자인 ‘선생님’을 높이는 상대 높임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높임의 대상은 ‘선생님’이다.

**03** 이 문장에서는 주체인 ‘어머니’를 높여야 한다. 주체 높임은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십니다.’로 고치면 된다.

**04** <보기>에서는 서술의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부사격 조사인 ‘께’와 특수 어휘인 ‘여쭙다’를 사용하였다.

**오답 풀이** ① <보기>의 문장에는 격식체인 ‘하십시오체’가 사용되었다.

③ 주격 조사가 아닌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하였다.

④, ⑤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시-’나 화자 자신을 낮추는 ‘저’, ‘제’ 등의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05**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는 현재 시제이다. ‘건너는’은 동사 ‘건너다’의 어간 ‘건너-’에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된 말로,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오답 풀이** ①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겠-’과 시간 부사 ‘내일’을 사용하여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뒤에 오는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② 동사 ‘보다’의 어간 ‘보-’에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되어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섰음을 나타낸다.

③ 동사 어간 ‘보-’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을 결합하여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섰음을 나타낸다.

⑤ 관형사형 어미 ‘-(으)ㄹ’에 의존 명사 ‘것’이 결합된 ‘-ㄹ 것’을 사용하여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뒤에 오는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06** ④의 ‘먹는다’는 동사 ‘먹다’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이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오답 풀이** ① 동사 ‘내리다’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이 쓰여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② 동사 ‘앉다’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을 결합하고, 부사 ‘지금’을 사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③ 동사 ‘어지럽다’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을 결합하고, 부사 ‘어제’를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⑤ 동사 ‘볼다’에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겠-’이 결합하고,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 ‘오후에는’을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07** 진행상은 보조 용언 ‘-고 있다’, ‘-아 가다/-어 가다’의 형태로, 완료상은 보조 용언 ‘-아 있다/-어 있다’ 또는 ‘-아 버리다/-어 버리다’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진행상은 ‘꽃이 피고 있다.’ 또는 ‘꽃이 피어 간다.’로, 완료상은 ‘꽃이 피어 있다.’ 또는 ‘꽃이 피어 버렸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08**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꿀 때에는 문장 안에 있는 인용절의 시간 표현, 높임 표현, 지시어, 종결 어미 등을 문장에 맞게 적절히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방금’은 ‘지금’과 유사한 의미의 부사어이므로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

**09** 피동문으로 바꿀 때에는 먼저 능동문 주어(경찰이)를 ‘에게’나 ‘에 의해’를 사용한 부사어(경찰에게/경찰에 의해)로 바꾸고, 목적어(도둑을)는 주어(도둑이)로 바꾼다. 그리고 이에 맞게 서술어는 피동 접미사 ‘-히-’를 붙여 바꾸고(잡혔다) 나머지 문장 성분은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따라서 <보기>의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면 ‘도망치던 도둑이 경찰에게(또는 ‘경찰에 의해’) 잡혔다.’가 된다.

**10** ‘형성되었다’는 능동사(형성하다)에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 ‘-되다’가 결합된 말로, 피동 표현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① ‘칠판에 쓰여진 글씨’에서 ‘쓰여진’은 동사 ‘쓰다’의 어간 ‘쓰-’에 피동 접미사 ‘-아-’와 피동 표현 ‘-어지다’가 둘 다 쓰인 이중 피동 표현이다. 따라서 ‘쓰인’이나 ‘써진’으로 고쳐야 한다.

③ ‘뒤집혀졌다’는 동사 어간 ‘뒤집-’에 피동 접미사 ‘-히-’와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뒤집혔다’나 ‘뒤집어졌다’로 고쳐야 한다.

④ ‘입증되어진’은 ‘입증’에 피동 접미사 ‘-되다’와 ‘-어지다’를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입증된’으로 고쳐야 한다.

⑤ ‘믿겨지지’는 동사 어간 ‘믿-’에 피동 접미사 ‘-기-’와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믿기지’ 또는 ‘믿어지지’로 고쳐야 한다.



- 01 ③    02 ⑤    03 ②    04 ④    05 용준아, 선생님께서 너를 데리고 오라셔.(오라고 하셔.)    06 ⑤    07 ⑤    08 ②  
09 ②    10 ③    11 ④    12 ③    13 '아까'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인데, '널어 두는'에서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는'을 사용하여 어색한 문장이 되었다. 따라서 '널어 두는'을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ㄴ'을 사용한 '널어 둔'으로 바꾸어야 한다.  
14 ⑤    15 ④    16 •(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 원작자의 의도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나):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 글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17 ②    18 ③    19 ③  
20 ⑤    21 ①    22 ④    23 ⑤    24 동생아, 조금만 기다리면 어머니께서 곧 돌아오실 거야.    25 ⑤    26 ②    27 ⑤  
28 ①    29 A: 동사, B: 형용사, C: 현재 시제를 표현할 때 동사인 '왔다'는 선어말 어미 '-는-'을 쓰지만, 형용사인 '작다'는 현재 시제 표시가 따로 없어서 기본형을 씁니다.    30 ①    31 ④    32 ②  
33 ③    34 ④    35 이 문장은 이중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으므로 '발굴되어졌다'를 '발굴되었다'로 바꾸어 '유적지에서 많은 유물이 발굴되었다.'라고 고쳐 써야 한다.

01 '아버지'는 문장의 주어이므로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 '께서'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한 것은 적절하다. 여기서 '있다'의 주어는 '걱정거리'인데, '걱정거리'가 '아버지'에게 속한, 일종의 생각이므로 '있으시다'라고 높여 간접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삼촌'이 높임의 대상이므로 '에게는' '께'로, '주었다'는 '드렸다'로 바꾸어야 한다.  
② '고모'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가'는 '께서'로, '왔다'는 '오셨다'로 바꾸어야 한다.  
④ '할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잔다'를 '주무신다'로 바꾸어야 한다.  
⑤ 청자를 높이려면 '나'를 자신을 낮추는 표현인 '저'로 바꾸어야 한다.

02 ㉠에서 높임의 대상은 청자인 '손님'인데, 어말 어미 '-버시다'를 적절히 사용하여 상대 높임법을 알맞게 표현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높임의 대상은 '찾는' 행위의 주어인 '손님'이므로,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사-'를 사용하여 '찾는'을 '찾으시는'으로 고친다.  
② '만나다'의 대상은 '선생님'으로, 목적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에 맞게 '만나러'를 '뵈러'로 고친다.  
③ 높임의 대상이 부사격 조사가 지시하는 대상인 '선배님'이므로 '물어볼'을 객체 높임에 맞게 '여쭙볼'로 고친다.  
④ '종으세요'의 주어는 '제품'이다. '제품'은 사물로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종으세요'를 '종아요'로 고친다.

03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라는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은 객체인 '할아버지'이며, '모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해 높임 표현을 실현하고 있다.

04 (가)는 원래 친분이 있는 사이에 사적으로 만나 나눈 대화이므로 비격식체의 반말을 사용하였지만, (나)는 방송이라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이기 때문에 격식체의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② (가)와 (나)는 공식적인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차이가 있을 뿐, 두 인물의 친밀도나 관계에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③ (가)는 사적인 자리지만, (나)는 방송 중이므로 공식적인 자리이다.  
⑤ (가)와 (나)에서는 격식적인 상황이나 아니냐에 따라 높임 표현이 달라진 것이지,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높임 표현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05 청자이자 문장의 객체인 '용준'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며, 문장의 주체인 '선생님'은 높임의 대상이므로 '선생님'에 맞는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모시다'는 높임의 뜻을 담고 있는 특수 어휘인데, '선생님'이 학생인 '용준'을 '모시고' 오라고 높여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높임 표현이 아닌 '데리고'로 고쳐야 한다. 또한 '오시래'는 '오시라고 해'의 준말로,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선생님'이 오는 행위의 주체인 화자와 '용준'을 높임 표현이다. 따라서 '선생님'을 높이려면 '선생님'이 주체인 '해' 부분을 높여서 '오라셔' 또는 '오라고 하셔'로 고쳐야 한다.

06 사건시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고, 발화시는 그 사건을 언어로 표현하는 시점이다.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이고, 미래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뒤에 오는 시제이다.

07 사건시보다 발화시가 뒤에 온다는 것은 말하는 시점 이전에 사건이 벌어졌다는 뜻으로, 과거 시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린 시절'이라는 과거 시간 표현,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 '-던'과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을 사용해 과거를 나타낸 ⑤가 과거 시제에 해당하는 문장이다.

- 오답 풀이** ①, ③ 현재 시제에 해당한다.  
②, ④ 미래 시제에 해당한다.

08 ㉠의 '-겠-'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인 반면, '-ㄴ-'은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이다. 따라서 '-겠-'을 '-ㄴ-'으로 바꾸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가 되므로, ㉠의 미래 시제가 현재 시제로 바뀌고,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는 의미도 사라진다.

09 '산다'는 동사 '살다'의 어간 '살'에서 'ㄹ'이 탈락한 후,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ㄴ-'이 쓰인 현재형 표현이다. 하지만 '옛날'은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이와 어울리려면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해 '살았다'로 고쳐야 한다. ②의 '살 것이다'는 미래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ㄹ'에 의존 명사 '것'이 결합된 표현으로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고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내일'은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인데, '했다'는 과거형이므로 시제 표현에 맞게 '했다'를 '하겠다'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③ '어제'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인데, '내리는'은 현재형이므로 시제 표현에 맞게 '내리던'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④ '학생 시절'은 과거이다. 그런데 서술격 조사 '이다'는 과거를 나타낼 때 관형사형 어미 '-던'과 결합하므로 '학생이던'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⑤ '이미'는 완료상, 과거형과 호응하는 부사인데, '밝아 간다'는 진행상, 현재형이므로 과거 완료형인 '밝아 있었다'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10**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는-’은 동사와만 결합하고,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형용사에 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붙지 않지만, 관형사형 어미 ‘-(으) ㄴ’이 쓰이거나 선어말 어미 없이 현재 의미를 나타낸다.

**11** 동작상 중, 어떤 동작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미 끝났거나 그 결과가 지속될 때 사용하는 문법 요소인 ‘완료상’이 나타난 문장을 찾는 문제이다. ④는 동사 ‘있다’에 보조 용언 ‘-아 있다’를 결합하여 완료상을 표현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동사 ‘되다’에 보조 용언 ‘-어 가다’가 결합한 진행상 표현이다.  
 ② 동사 ‘치다’에 보조 용언 ‘-고 있다’가 결합한 진행상 표현이다.  
 ③ 동사 ‘썰다’에 보조 용언 ‘-고 있다’가 결합한 진행상 표현이다.  
 ⑤ 동사 ‘먹다’에 연결 어미 ‘-으면서’가 결합한 진행상 표현이다.

**12** 동작상은 어떤 동작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진행상과, 어떤 동작이 이미 끝났거나 그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완료상이 있다. ③의 ‘먹어 버렸다’는 먹는 행동이 끝났음을 나타낸 것으로 완료상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보조 용언 ‘-어 간다’를 사용한 진행상 표현이다.  
 ②, ④ 보조 용언 ‘-고 있다’를 사용한 진행상 표현이다.  
 ⑤ 연결 어미 ‘-면서’를 사용한 진행상 표현이다.

**13 서술형** ‘아까’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이다. 그런데 ‘널어 두는’의 ‘-는’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이므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인 ‘-ㄴ’을 사용하여 ‘널어 둔’으로 바꾸어야 한다.

| 평가 기준                          | 확인 ☑                     |
|--------------------------------|--------------------------|
| 주어진 문장의 시제와 그 근거를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밑줄 친 부분의 어미가 어색한 이유를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밑줄 친 부분의 어미를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고쳐 썼다. | <input type="checkbox"/> |

**14** “정말 아름답구나.”라는 감탄문이 간접 인용절이 될 때에는 종결 어미 ‘구나’를 ‘-다’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직접 인용절 뒤에는 ‘라고’를 쓰지만, 간접 인용절 뒤에는 ‘고’를 써야 한다. 따라서 ⑤는 ‘아름답다고 말했다.’로 고쳐 써야 한다.

**15** 제시된 문장은 다른 데에서 들은 말이나 읽은 글을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인용한 직접 인용 방식이 사용되었다. 직접 인용 표현을 할 때는 인용절에 큰따옴표를 하고, 큰따옴표 뒤에 조사 ‘라고’를 써야 하므로 ④를 ‘라고’로 고쳐야 한다.

**16 서술형** (가)에서는 말의 내용을 일부만 인용하여 본래 그 말을 한 사람의 의도를 훼손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인용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 평가 기준                               | 확인 ☑                     |
|-------------------------------------|--------------------------|
| (가)에 원작자의 의도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나)에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각각 한 문장으로 썼다.                       | <input type="checkbox"/> |

**17**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어떤 동작을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것이다. ②는 ‘엄마’가 행동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밥을 먹게 하는 것으로,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사동 표현이 사용되었다. ②에 쓰인 사동 접미사 ‘-이-’는 피동 접미사 ‘-어-’와 모양이 같아 혼동하기 쉽다.

- 오답 풀이** ① ‘담겨’는 동사 ‘담다’의 어간 ‘담-’에 피동 접미사 ‘-기-’가 붙어 만들어진 말이다.  
 ③ ‘팔리지’는 동사 ‘팔다’의 어간 ‘팔-’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어 만들어진 말이다.  
 ④ ‘깎이지’는 동사 ‘깎다’의 어간 ‘깎-’에 피동 접미사 ‘-아-’가 붙어 만들어진 말이다.  
 ⑤ ‘널려’는 동사 ‘널다’의 어간 ‘널-’에 피동 접미사 ‘-라-’가 붙어 만들어진 말이다.

#### [참고 자료] 사동 표현

- 의미: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
- 실현 방법: 사동 접미사 ‘-아-, -하-, -리-, -가-, -우-, -구-, -추-’를 쓰거나 ‘-시키다’, ‘-게 하다’를 씀

**18** ㉠은 능동문이고, ㉡은 피동문이다. 능동문에서는 행위의 주체에 초점이 맞춰지고, 피동문에서는 행위의 대상에 초점이 맞춰진다. 따라서 ㉠은 ‘그 사건’에 초점이, ㉡은 ‘학교’에 초점이 맞춰진다.

**19** ‘만들어지다’는 ‘만들다’의 어간 ‘만들-’에 ‘-어지다’가 결합한 말로,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 하나만 붙었으므로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중 피동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접혀졌다’는 동사 어간 ‘접-’에 피동 접미사 ‘-히-’와 ‘-어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② ‘열려지다’는 피동 접미사 동사 어간 ‘열-’에 피동 접미사 ‘-리-’와 ‘-어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④ ‘입증되어졌다’는 명사 ‘입증’에 ‘-되다’와 ‘-어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⑤ ‘쓰여진’은 동사 어간 ‘쓰-’에 피동 접미사 ‘-아-’와 ‘-어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이중 피동 표현이다.

**20** <보기>의 ㉠과 ㉡은 능동 표현, ㉢과 ㉣은 피동 표현이다. 제시된 글에 따르면,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행위를 하는 주체가 숨겨지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행위의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거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것은 피동 표현인 ㉢과 ㉣이다.

- 오답 풀이** ① ㉠과 ㉡은 능동 표현이므로 ‘물을 낭비하는’, ‘식탁을 안 닦은’ 행위를 한 주체가 드러난다.

②, ③ ㉠과 ㉡은 피동 표현이므로 행위의 결과를 당하는 대상, 즉 '물이 낭비되는 사실'과 '식탁이 안 닦인 사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제시된 글에 따르면, 이와 같은 피동 표현은 행위를 하는 주체를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④ 능동 표현인 ㉠은 피동 표현인 ㉡과 달리 문장에서 실제 행위를 하는 주체가 드러나므로, 물을 낭비하거나 식탁을 닦지 않은 문제 상황의 원인이 주체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21** 제시된 '선생님이 "선영이를 모시고 와라."라고'라는 부분은 '선생님께서 너를 데리고 오라고'로 바뀌었다. 이는 선생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던 것을 간접 인용으로 바꾼 것이다(ㄱ). 또한 '선생님이'는 '선생님께서'로, '모시고'는 '데리고'로 바뀌었다. 이는 화자보다 높은 대상인 '선생님'을 낮추어 표현하는 주격 조사 '이' 대신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고, '선생님'보다 낮은 대상인 '선영'에게 불필요하게 쓰였던 높임말인 '모시고' 대신 반말인 '데리고'를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잘못 쓰인 높임 표현을 바르게 고쳐 쓰고 있다(ㄴ).

**22** ㉢은 인용 표현이 아니라 피동 표현이 잘못 쓰인 문장이다. 따라서 이중 피동 표현인 '무엇이 배워졌는지'를 '무엇을 배웠는지'로 고쳐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참가되었습니다'의 주어는 '저'이다. '저'가 능동적으로 백 일장에 참가한 것이므로, '참가하였습니다'로 고쳐 써야 한다.

② '실패란 하나의 사건일 뿐이라고'는 '실패란 하나의 사건일 뿐이라고'로 고쳐야 자연스러운 인용 표현이 된다. 혹은 "'실패란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라고처럼 고칠 수도 있다.

③ '말해 주었습니다.'의 주어는 '어머니'이므로 주체 높임법에 맞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로 고쳐 써야 한다.

⑤ '앞으로도'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실패하였지만'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을 사용한 과거 시제이므로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겠-'을 써서 '실패하겠지만'으로 고쳐 써야 한다.

**23** ⑤는 시간 표현, 높임 표현, 인용 표현을 모두 알맞게 사용한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발굴되어졌다'는 '되다'와 '-어지다'가 모두 쓰인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발굴되었다'로 바꾸어야 한다.

② '나오다'의 주어는 사물인 '커피'이므로 높임 표현 '나오셨습니다'를 '나왔습니다'로 바꾸어야 한다.

③ '어제'는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고, '할 것이다'는 미래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ㄹ'에 의존 명사 '것'이 결합한 미래 시제 표현이므로 '했다'로 바꾸어야 한다. 또는 '할 것이다'를 그대로 두고, 과거 시제 표현인 '어제'를 미래 시간 표현인 '내일', '다음 주에' 등으로 고칠 수도 있다.

④ 간접 인용일 경우 조사 '라고'가 아닌 조사 '고'를 사용하므로, '소중하냐라고'를 '소중하냐고'로 바꾸어야 한다.

**24 서술형** '기다리는' 행위의 주체는 '동생'이므로 화자보다 어린 사람이다. 따라서 '기다리시면'을 '기다리면'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어머니'는 '돌아오는' 행위의 주체이므로 주체 높임 표현에 맞게 '어머니께서 돌아오시다'로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곧'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부사이므로 '돌아오는 거야'를 미래 시제에 맞게 '돌아오실 거야'로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제시된 문장은 '동생아, 조금만 기다리면 어머니께서 곧 돌아오실 거야.'로 고쳐 쓴다.

| 평가 기준                        | 확인 ☑                     |
|------------------------------|--------------------------|
| '기다리시면'을 '기다리면'으로 고쳐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어머니가'를 '어머니께서'로 고쳐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돌아오는 거야'를 '돌아오실 거야'로 고쳐 썼다. | <input type="checkbox"/> |

**25** ⑤는 피동 표현이 아니라 사동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어떤 동작을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것을 표현하는 국어의 문법 요소이다.

**26** '저희'는 상대인 청자를 고려하여 화자가 자신을 낮춘 표현으로, '어머니'를 높이는 것이 아니다. ㉠은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 참고 자료 ] 객체 높임법에 사용되는 특수 어휘의 예**

- 보다 → 뵈다  
예 제가 선생님을 뵈고자 한 이유가 있습니다.
- 주다 → 드리다  
예 이 책을 할아버지께 가져다 드렸다.
- 데리다 → 모시다  
예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 묻다 → 여쭙다  
예 나는 아버지께 오늘 일정을 여쭙었다.

**27**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자다'의 높임말인 '주무시다'를 사용하였으므로,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이 시간이면 낮잠을 주무셔.'라는 문장은 높임법에 맞는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높임의 대상이 '삼촌'이므로 '삼촌께서 오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신다.'라고 고쳐 써야 한다.

② 높임의 대상이 '선생님'이므로 '저는 집에 있어요. / 있습니다.'라고 고쳐 써야 한다.

③ 높임의 대상이 '선생님'이므로 '용준아, 선생님께서 너를 데리고 오라셔.'라고 고쳐 써야 한다.

④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사-'를 사용하여 높이는 것은 주체 높임법에 해당한다. 이 문장에서는 높임의 대상이 '동생'이 아니라 '할머니'이므로,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여 '동생이 할머니께 준비했던 선물을 드린다.'라고 고쳐 써야 한다.

**28**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서는 시제는 과거 시제이다. 그러나 ㉠의 '년 이제 아버지께 혼나겠다.'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표현한 것이다. 즉 미래에 어떤 일이 실현될 것을 화자가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데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한 것이다.

**29 서술형** 현재 시제를 표현할 때 동사인 '있다'는 선어말 어미 '-는-'을 사용한다. 그러나 형용사인 '작다'는 현재 시제 표시가 따로 사용되지 않고 단어의 기본형으로 현재 시제를 표현한다.

| 평가 기준                                                   | 확인 ☑                     |
|---------------------------------------------------------|--------------------------|
| '앉는다'와 '작다'의 품사를 정확히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동사인 '앉다'는 선어말 어미 '-는-'으로 현재 시제를 표현하였음을 밝혀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형용사인 '작다'는 현재 시제를 표현할 때 따로 현재 시제 표시가 없어 기본형을 썼음을 밝혀 썼다. | <input type="checkbox"/> |

**30** ①은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겠-'을 사용하여 부드럽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말하는 이의 완곡한 태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② 이 문장에서 '-겠-'은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낸다.  
 ③ 이 문장에서 '-겠-'은 미래의 일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  
 ④, ⑤ 이 문장에서 '-겠-'은 말하는 이의 의지를 나타낸다.

**31** 간접 인용은 직접 인용과 달리 따옴표를 쓰지 않으며, 해당 인용절 다음에 조사 '고'를 쓴다.

**32** 국어에서 물건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사물 존칭을 쓰지 않는다. ②를 제외한 문장들은 모두 물건에 높임 표현을 쓴 잘못된 표현이다.

- 오답 풀이** ① '환불이 안 됩니다.'라고 고쳐 써야 한다.  
 ③ '이 색깔은 하나 남았습니다.'라고 고쳐 써야 한다.  
 ④ '이 제품은 반응이 아주 좋아요.'라고 고쳐 써야 한다.  
 ⑤ '손님, 가격은 모두 만 오천 원 되겠습니다. / 만 오천 원입니다.'라고 고쳐 써야 한다.

**33** ③의 '드러나게 될'은 '-게 되다'가 붙어서 실현된 피동문이고, 나머지는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나 접사 '-되다'가 붙어서 실현된 피동문이다.

- 오답 풀이** ① '맷다'에 피동 접미사 '-하-'가 붙은 피동문이다.  
 ② '안다'에 피동 접미사 '-기-'가 붙은 피동문이다.  
 ④ '듣다'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은 피동문이다.  
 ⑤ '사용'이라는 명사에 접사 '-되다'가 붙은 피동문이다.

**34** '드디어 오빠가 초상화를 보았다.'를 피동문으로 바꾸면 '드디어 초상화가 오빠에게 보였다.'가 된다.

**35 서술형** '발굴되어졌다(발굴+-되(다)+-어지+-었+-다)'는 '-되(다)'가 결합된 피동사에 '-어지-'가 또 붙었으므로 이중 피동에 해당한다. 이중 피동은 잘못된 표현이므로 '유적지에서 많은 유물이 발굴되었다.'라고 써야 한다.

| 평가 기준                          | 확인 ☑                     |
|--------------------------------|--------------------------|
| 해당 표현을 고쳐야 하는 이유를 포함하여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발굴되어졌다'를 '발굴되었다'로 올바르게 고쳐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완성된 문장으로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64~65쪽

**01** ⑤      **02** ③      **03** (1) 높임의 대상: 어머니, 할아버지 (2)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 종결 어미 '-어요'를 사용하여 청자인 '어머니'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또한 주격 조사 '께서'와 특수 어휘 '진지, 잡수다'를 사용하여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04** ③      **05** ⑤      **06** ②      **07** ④      **08** ①      **09** ②

**01** ⑤에서 운동을 하는 주체는 '아버지'이므로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한 '하신다'는 주어를 직접 높인 말이 된다.

**오답 풀이** ①은 '삼촌의 발'을, ②는 '선배의 손'을, ③은 '어르신'을, ④는 '할머니의 걱정거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문장의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02** '어느 쪽으로 가세요?'는 종결 어미 '-어요?'가 쓰여 비격식체의 '해요체'에 해당하고, '저는 이쪽으로 갑니다.'는 종결 어미 '-니다.'가 쓰여 격식체의 '하십시오체'에 해당한다. 즉 ③은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섞여 쓰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두 문장 모두 비격식체의 '해체'에 해당한다.  
 ② 두 문장 모두 격식체의 '하체'에 속한다.  
 ④ 두 문장 모두 격식체의 '해라체'에 해당한다.  
 ⑤ 두 문장 모두 격식체의 '하십시오체'에 해당한다.

**03 서술형** 제시된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은 청자인 '어머니'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이다. '어머니'에 대한 높임을 비격식체의 높임 표현인 '해요체'의 종결 어미를 사용해 나타내었으며, 이는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다. '할아버지'에 대한 높임은 주격 조사 '께서', 특수 어휘 '진지, 잡수다'를 사용해 나타내었으며 이는 주체 높임법이다.

| 평가 기준                                                         | 확인 ☑                     |
|---------------------------------------------------------------|--------------------------|
| 높임의 대상으로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어머니'를 높이는 방법으로 '종결 어미의 사용' 또는 '비격식체의 해요체의 사용'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할아버지'를 높이는 방법으로 '께서', '진지', '잡수다'의 사용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어머니'의 높임을 실현한 방법이 상대 높임법이고, '할아버지'의 높임을 실현한 방법이 주체 높임법임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04** ③에서 사용한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겠-'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라는 능력이나 가능성과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④의 '-겠-'은 의지, ②의 '-겠-'은 추측, ⑤의 '-겠-'은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05** '좀 전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인데, '먹는'은 현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색한 것은 맞다. 그러나 '먹는'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는-’이 쓰인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 ‘-는-’이 쓰인 것이다. ‘먹는’이 위에 오는 명사 ‘빵’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는’이 관형사형 어미임을 알 수 있다.

**06** “부족하면 더 잡주세요.”가 간접 인용절로 안길 때에는 일단 ‘부족하면 더 잡주시라고’로 바꿀 수 있다. 이때 높임말인 ‘잡시다’의 주체는 ‘나’이므로,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서 주어에 맞게 높임 표현을 조절하면 ‘먹으라고’가 된다. 따라서 ㄴ의 빈칸에는 ‘부족하면 더 먹으라고’가 들어가야 한다.

**07** 가족들끼리 직접 시간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④와 같이 ‘맞추어져’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보기>의 ㉠ ‘맞추어’를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대화가 부족한 상황’은 가족들로 인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므로 ‘지속하다’는 피동 표현인 ‘지속되다’로 고쳐야 한다.  
 ② ‘가정’은 구성원들에 의해 변하는 것이므로 ‘변하게 한다’는 피동 표현인 ‘변하게 된다’로 고쳐야 한다.  
 ③ ‘대화’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루어야’는 피동 표현인 ‘이루어져야’로 고쳐야 한다.  
 ⑤ ‘대화의 문’은 사람들의 행동 변화에 의해 바뀌는 것이므로 ‘열 것이다’는 피동 표현인 ‘열릴 것이다’로 고쳐야 한다.

**08** ‘찍이었다.’는 동사 어간 ‘찍-’에 피동 접미사 ‘-이-’,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한 것이다. 따라서 이중 피동 표현이 아닌 정상적인 피동 표현에 해당하고, 바람에 의해 나뭇가지가 꺾는 동작을 당했다는 상황을 표현하여 불필요한 피동 표현도 아니므로 <보기>를 뒷받침하는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찢겨져’는 동사 어간 ‘찢-’에 피동 접미사 ‘-기-’와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③ ‘읽혀지지’는 동사 어간 ‘읽-’에 피동 접미사 ‘-하-’와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④ ‘예상되어집니다’는 명사 ‘예상’에 피동 접미사 ‘-되다’와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⑤ ‘달혀진’은 동사 어간 ‘달-’에 피동 접미사 ‘-하-’와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09** ㉠의 ‘하셨다’에서는 높임을 표현하기 위해 선어말 어미 ‘-시-’를, 시제를 표현하기 위해 선어말 어미 ‘-었-’을 사용하였다. 이 둘은 각각 다른 선어말 어미이다.

**오답 풀이** ① ㉡은 보조 용언 ‘-어 있다’를 통해서 완료상을, 선어말 어미 ‘-었-’을 통해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③ ㉢의 ‘드렸던’은 선어말 어미 ‘-었-’과 관형사형 어미 ‘-던’을 통해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고, ‘예쁜’은 관형사형 어미 ‘-ㄴ’을 통해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④ ㉠과 ㉡은 모두 하십시오체의 어말 어미 ‘-습니다’를 통해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을 사용하고 있다.  
 ⑤ ㉢은 주격 조사 ‘께서’를 통해 문장의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고, ㉤은 부사격 조사 ‘께’를 통해 선물을 받는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 (2) 국어의 어제와 오늘

### 교과서 꼼꼼히 이해하기

69쪽 01 ② 02 ④ 03 ⑤

**01** 훈민정음 창제 당시 받침 표기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개 자음만을 허용하는 8종성법이 원칙이었다.

**02** ‘여·름 ·하·느·니’가 ‘열매 많습니다.’로 풀이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서 ‘하다’는 현대 국어에서 ‘많다’의 의미이다. 따라서 ‘하느니’는 현대 국어의 ‘하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는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는 음운인 아래애(·)가 사용되었다.  
 ② 글자 옆에 점을 하나 또는 두 개 찍거나 점을 찍지 않는 것으로 음의 높낮이를 나타낸 방점이 쓰였다.  
 ③ ‘기쁜’은 ‘값-+-은’으로, 소리나는 대로 이어서 ‘기쁜’으로 적은 것이다.  
 ⑤ ‘부루매’는 ‘부름’과 조사 ‘ㅁ’가 결합된 말이고, ‘구무래’는 ‘구물’과 조사 ‘ㅁ’가 결합된 말이다. 이에는 ‘·, ㅁ’의 양성 모음들이 어우러진 모음 조화가 나타나고 있다.

### [참고 자료] 성조

소리의 높이를 의미하며, 글자의 왼쪽에 방점을 찍어 표시하였다.

|    |                            |
|----|----------------------------|
| 평성 | 낮은 소리로 방점이 없음              |
| 거성 | 높은 소리로 방점이 한 개임            |
| 상성 | 처음은 낮고 나중에 높은 소리로 방점이 두 개임 |

**03** 끊어적기는 형태소의 모습을 밝혀 적는 것이다. ⑤는 소리나는 대로 ‘얼구리며’라고 적지 않고 ‘얼굴’이라는 각 형태소의 모습을 밝혀 적는 끊어적기가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④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적기가 사용되었다.

###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70~75쪽

01 ② 02 ③ 03 ⑤ 04 ④ 05 ② 06 ②  
 07 ③ 08 ④ 09 ⑤ 10 ⑤ 11 ② 12 ③  
 13 ④ 14 ④ 15 ④ 16 ② 17 ⑤ 18 ㉠:  
 변화, ㉡: 역사성 19 ③ 20 ② 21 ㉠은 몸과 형태  
 와 머리털과 살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은 입신하여 도를 행  
 하여 이름을 후세에 날려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22 ②  
 23 ③ 24 ① 25 ② 26 ⑤ 27 ① 28 ㉠  
 은 자음으로 끝난 체언 ‘말씀’ 뒤에 주격 조사 ‘이’가 쓰였다. ㉡은 ‘ㅣ’ 이외  
 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나’ 뒤에 주격 조사 ‘ㅣ’가 쓰였다.

**01** 제시된 글을 보면 중세 국어 문헌에서는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많은 고유어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고, 그 어휘들이

현대 국어에까지 그대로 살아남은 경우도 있지만 소멸하거나 의미나 형태가 바뀌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언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는 언어의 역사성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언어의 규칙성에 대한 설명이다.

③ 언어의 자의성에 대한 설명이다.

④ 언어의 사회성에 대한 설명이다.

⑤ 언어의 창조성에 대한 설명이다.

**02** ㄱ은 몽골에서 들어온 외래어에 대한 예이고, ㄴ은 한자와 고구려의 경쟁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ㄹ은 중국에서 들어온 외래어의 예이다. 따라서 ㄱ, ㄴ, ㄹ은 ㉠의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ㄷ은 현대 국어에서 우리의 옛말을 다시 살려 사용한 것으로 ㉠와는 관련이 없다.

**03** 제시된 글은 15세기에 쓰인 『용비어천가』로 중세 국어 자료이다. 중세 국어는 고려가 건국되면서 국어의 중심지가 경주에서 개성으로 옮겨간 후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난 16세기 말까지의 국어를 가리킨다. 갑오개혁 이후부터 현재까지 쓰고 있는 국어는 현대 국어이다.

**[ 참고 자료 ] 『용비어천가』 제재 개관**

|    |                                          |
|----|------------------------------------------|
| 갈래 | 악장(조선 시대 초기에 궁중에서 종묘제향 때 부르던 송축가)        |
| 성격 | 설득적, 서사적, 예찬적, 송축적                       |
| 주제 |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고 조선의 무궁한 발전을 송축함          |
| 의의 | •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임<br>• 한국 악장 문학의 대표작임 |

**04** ‘여·름’은 현대어로 ‘열매’라는 의미이다.

**05** ㉠은 형태소를 밝혀 ‘깊은’과 같이 끊어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기·픈’이라고 표기하였으므로 이어적기가 사용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글자 앞의 ‘.’, ‘:’을 보면 방점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부·름·매’에는 ‘:’(아래아)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용비어천가』가 창작된 중세에는 현대 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음운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④ ‘하·느·니’의 기본형은 ‘하다’로 이는 현대 국어로 ‘많다’는 뜻이다.

⑤ ‘:므·른’, ‘:그·래’, ‘바·:르·래’ 등에서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결합하는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고 있다.

**[ 참고 자료 ] 모음 조화**

동일한 계열의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으로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다.

|       |                                  |
|-------|----------------------------------|
| 양성 모음 | 밝고 가벼운 느낌을 줌<br>예) ㅏ, ㅑ, ㅓ, ㅕ 등  |
| 음성 모음 |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줌<br>예) ㅓ, ㅕ, ㅗ, ㅛ 등 |

**06** 중세 국어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적기가 일반적이었고, 형태소의 모습을 밝혀 적는 끊어적기도 함께 쓰였다. 현대에는 끊어적기만 쓰이고 있다.

**07** 이 글에서는 훈민정음을 창제한 취지와 목적으로 백성들이 쉽게 글자를 배워 뜻을 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훈민정음 언해’라고도 불리는 글로, 한문으로 쓰인 훈민정음을 한글로 풀어 쓴 글이다.

② 훈민정음의 서문은 세종이 쓴 것이다. ‘:내 ·이·를 爲·왕·ᄒᆞ·야 :어엿 ·비 나·겨 ·새·로 ·스·물여·들 字·宗·를 明·ᄒᆞ·니’를 통해 ‘내’가 ‘세종’임을 알 수 있다.

④ 훈민정음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이 책은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담고 있을 뿐, 백성들에게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지는 않다.

⑤ 이 글에서는 훈민정음을 백성들이 익히기 쉽게 만들었다는 훈민정음의 실용 정신을 알 수 있으나, 이 글을 통해서 훈민정음의 실용성을 실험해 보려는 의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 참고 자료 ] 『세종어제훈민정음』 제재 개관**

|    |                                                         |
|----|---------------------------------------------------------|
| 갈래 | 훈민정음의 서문                                                |
| 성격 | 설명적, 교시적                                                |
| 주제 | 훈민정음 창제의 취지와 목적, 의의                                     |
| 의의 | • 15세기 국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임<br>•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이 잘 드러나 있음 |

**08** ‘:어엿·비’는 현대 국어로 ‘가엾게, 불쌍히’라는 의미였다가, 후에 현대 국어의 ‘어여뻐’로 의미의 이동이 일어난 어휘이다.

**09** ‘:부·:매’에서는 명사형 어미 ‘-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당시에 명사형 어미 ‘-에’가 사용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中·동·國·궐·에 달·아’는 ‘중국과 달라’라는 뜻으로, ‘에’는 비교 부사격 조사 ‘과’와 대응된다.

② ‘니르·고·저’는 두음 법칙이 나타나지 않은 형태로, 현대 국어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어 ‘이르고자’로 쓴다.

③ ‘:무·:춤·:내’는 ‘:’와 ‘:ㅐ’의 양성 모음끼리 어우러진 모음 조화 현상이 나타난다.

④ ‘:ㅐ·:들’에는 음절의 첫소리에 자음이 연속으로 둘 이상 오는 어두 자음 군인 ‘ㅐ’이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어두 자음군은 ‘:ㅐ·:들’이 ‘:똥·:들’이 된 것처럼 현대 국어에서 대개 된소리로 변하였다.

**10** 『세종어제훈민정음』에는 세종 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이 담겨 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언어생활에 차이가 있음을 인식한 점에서 우리나라를 독립된 주체로 생각한 자주정신이(①, ②), 문자 생활을 하지 못하는 백성을 가엾게 여겼다는 점에서 애민정신이 드러난다(③). 또한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문자로 창제했다는 점에서 실용 정신이 엿보인다(④). 하지만 이러한 실용 정신으로 인해 자음과 모음을 최소화하였다는 내용은 추론할 수 없으며, ‘훈민정음’에도 기본적인 문법 요소는 존재했기 때문에 ⑤는 적절하지 않다.

11 『소학언해』는 중국의 수양서인 『소학』을 한글로 풀이한 책이다.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은 『용비어천가』이다.

【참고 자료】 『소학언해』 제재 개관

|    |                         |
|----|-------------------------|
| 갈래 | 언해                      |
| 성격 | 교훈적, 유교적                |
| 주제 | 효의 시작과 마침               |
| 의의 | 16세기 국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임 |

12 중세 국어 초기에는 한자음을 중국 발음에 가깝게 하기 위해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적는 『동국정운』식으로 표기하였다가 점차 실제 발음하는 한자음에 맞게 표기하였다. 『소학언해』에서도 ‘父·부母:모’와 같이 현실적인 한자음으로 표기하고 있다. 『동국정운』식으로 표기하였다면 중성 자리에 ‘ㅇ’을 썼을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글자 옆에 성조를 나타내는 방점이 찍혀 있다.  
 ② 이 글에는 ‘ㅁ(순경음 비읍)’이 나타나지 않으며 원래 ‘ㅁ’을 썼어야 할 ‘받조운’에서도 ‘ㅁ’이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ㅁ(순경음 비읍)’의 사용이 축소되었거나 아예 음운이 소멸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현대와 같은 문장 부호는 사용되지 않았다.  
 ⑤ ‘·몸·이며’, ‘일:흠:을’에서 보듯 끊어적기가 확대되었다.

13 ‘풍수지탄(風樹之嘆)’은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여윈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로, 이 글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 오답 풀이 ① ‘출세하여 세상에 이름을 떨침’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로, 입신하여 이름을 후세에 날려야 한다는 이 글의 내용과 통한다.  
 ② ‘꽃다운 이름이 후세에 길이 전함’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로, 입신하여 이름을 후세에 날려야 한다는 이 글의 내용과 통한다.  
 ③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된다는 뜻으로, 문무를 다 갖추어 장상(將相)의 벼슬을 모두 지냄을 이르는 말’인 한자 성어로, 입신하여 이름을 후세에 날려야 한다는 이 글의 내용과 통한다.  
 ⑤ ‘오륜(五倫)’의 하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도리는 친애에 있음을 이른다.는 의미로,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한다는 이 글의 내용과 통한다.

14 ‘받조·온’에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줍-’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현대로 계승되지 않고 소실되었으므로 현대의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께’와는 관련이 없다. ‘께’와 관련 있는 것은 ‘父·부母:모·썩’에 사용된 ‘썩’이다.

- 오답 풀이 ① ‘孔·공子·지’의 ‘子’는 주격 조사로 현대 국어에서는 ‘가’가 되는데, ‘공자’가 높임의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께서’에도 대응됨을 알 수 있다.  
 ② ‘을중子·주드:려’는 ‘중자에게’라는 의미이므로 ‘드려’는 ‘에게’에 대응됨을 알 수 있다.  
 ③ ‘·술:훈’은 ‘살은’이라는 의미이므로 중세 국어의 보조사 ‘운’은 현대 국어의 보조사 ‘은’에 대응됨을 알 수 있다.  
 ⑤ ‘:효:도:이’의 ‘이’는 현대 국어의 관형격 조사 ‘의’에 대응된다.

15 ‘몸’에는 양성 모음 ‘ㅛ’가 사용되었으므로, 뒤에는 양성 모음을 가진 ‘을’이 와야 모음 조화에 맞다. 그런데 ‘을’의 ‘ㅡ’는 음

성 모음이다. 따라서 ‘·몸:을’은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만났으므로 모음 조화에 어긋난다.

16 ‘얼굴’은 중세 국어에서는 몸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눈, 코, 입이 있는 머리의 앞면’만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17 (가)는 15세기, (나)는 16세기에 쓰인 글로, 둘 사이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중세 국어에 속한다. 중세 국어 시기에는 이웃 나라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중국어, 몽골어, 여진어 등의 외래어가 들어왔다.

- 오답 풀이 ① 중세 국어에는 음절의 첫소리에 ‘ㅼ, ㅼᄃ, ㅼᄌ’과 같이 자음이 연속으로 둘 이상 오는 어두 자음군이 존재했다.  
 ② 중세 국어에서는 이어적기와 끊어적기로 표기하였다.  
 ③ 중세 국어 시기에는 한자어의 유입으로 이전 시기에 비해 한자어의 쓰임이 증가하였다.  
 ④ 중세 국어에서는 세로쓰기를 하였고, 의미 구분이 되는 곳에 ‘방점’이 아닌 ‘구두점’을 찍었다.

18 (가)와 (나)는 모두 중세 국어 자료지만 약 130년의 시간 차이가 있는 자료이다. 두 자료의 표기를 비교해 보면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언어는 시간에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화하는 언어의 특성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19 중세 국어에서는 ‘이’와 ‘ㅣ’가 주로 쓰이고 ‘가’는 별로 쓰이지 않았다. (가)와 (나) 모두 주격 조사로는 ‘이’와 ‘ㅣ’만을 쓰고 있으며 ‘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사용되었던 ‘ㅁ(순경음 비읍)’과 같은 음운은 (나)에 이르러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② (가)에서 음의 높낮이를 표기했던 기호는 글자의 왼쪽 옆에 찍는 점인 방점으로, (나)에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④ (가)에서 한자음은 ‘중국’을 ‘中東國’이라고 실제 한자음에 일치하지 않는 발음으로 표기하고, ‘字(자)’를 ‘중’로 적는 것처럼 종성에 음가가 없는 말도 종성 자리에 ‘ㅇ’을 적는 등 『동국정운』식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현실 한자음에 가깝게 표기하고 있다.  
 ⑤ (가)에서는 ‘나:랏:말썩:미’처럼 글자를 소리대로 적는 이어적기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나)에서는 ‘아:니:흠:이’처럼 형태소의 모습을 밝혀 적는 끊어적기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20 ‘어·린’은 중세 국어에서 ‘어리석은’이라는 뜻이었지만, 현대 국어에서 ‘나이가 적은’이라는 뜻으로 단어의 의미가 이동하였다.

21 서술형 효도의 시작인 ㉠은 몸과 얼굴과 머리털과 살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고, 효도의 끝인 ㉡은 입신하여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날려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평가 기준                                  | 확인 ☑                     |
|----------------------------------------|--------------------------|
| ㉠이 몸과 형체와 머리털과 살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임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이 임신하여 후세에 이름을 날려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임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22** 중세 국어에는 음절의 첫소리에 ‘ㅁ’, ‘ㅂ’, ‘ㅅ’ 등과 같이 자음이 연속으로 둘 이상 오는 어두 자음군이 존재하였는데, 이들은 현대 국어로 오면서 대개 된소리(ㅃ, ㅆ, ㅈ, ㅊ, ㅌ)로 변화하였다.

**오답 풀이** ① 중세 국어는 고려 건국 이후부터 임진왜란이 발생한 16세기 말까지의 국어이다.

③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 ‘이’와 ‘ㅣ’가 주로 쓰이고 ‘가’는 별로 쓰이지 않았다.

④ 중세 국어에서는 한자어가 많이 유입되면서 고유어와 한자어가 경쟁하였고, 이전 시기(고대 국어)에 비해 한자어의 쓰임이 증가하였다. 또한 이웃 나라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중국어, 몽골어, 여진어 등의 다양한 외래어가 들어왔다.

⑤ 중세 국어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적기가 일반적이었고, 형태소의 모습을 밝혀 적는 끊어적기도 쓰였다.

**23**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에 비해 모음 조화 현상이 비교적 잘 지켜졌으며, ‘ㅅㅅ·매’, ‘·ㅅㅅ·래’, ‘ㅅㅅ·래’에서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 조화가 나타나고 있다. 모음 조화란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다. ‘ㅅ’, ‘ㅌ’, ‘ㅊ’는 양성 모음, ‘ㅁ’, ‘ㄴ’, ‘ㅇ’는 음성 모음, ‘ㅣ’는 중성 모음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깊은’이 아니라 ‘가·픈’으로 쓴 것으로 보아,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적기가 쓰였다. 그러나 ‘불·휘(뿌리가)’에는 이어적기가 쓰이지 않았다.

② ‘남·근’에는 보조사 ‘은’이 사용되었고, ‘시·미’에는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되었다.

④ ‘꽃’에는 ‘ㅈ’이 받침으로 쓰이고 있으므로, 받침 표기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여덟 개의 자음만 허용하는 8종성법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⑤ ‘뭇·씨’는 ‘뭇(여간) + ·씨(여미)’로 구분할 수 있으며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다.

**24**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은 『용비어천가』이다. 『세종어제훈민정음』은 세종 대왕이 훈민정음 창제의 취지를 밝힌 ‘어제 서문(御製序文)’과, 자음자와 모음자의 음가와 운영 방법을 설명한 ‘예의(例義)’를 우리말로 풀어 쓴 것이다. 15세기 국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세종 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이 잘 드러난다.

**25** ‘말썽·미’, ‘뿌·메’에는 형태소의 모습을 밝혀 적는 끊어적기가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적기가 쓰였다. ‘말썽·미’는 ‘썽’의 받침 ‘ㅁ’을 뒤의 모음에 이어 적고 있다. 또한 ‘뿌·메’는 현대 국어로 ‘썹에(쓰는 데에)’를 뜻하는데, 현대 국어처럼 끊어적기가 쓰였다면 ‘썹에’로 적었을 것이다. 하지만 중세 국어에는 이어적기가 적용되었으므로 ‘뿌·메’로 표기하였다.

**오답 풀이** ① ‘말썽·미’의 ‘·’와 ‘수·비’의 ‘ㅁ’은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는 음운이다.

③ 성조는 방점으로 구분하였는데 ‘어’는 방점이 2개(상성), ‘비’는 방점이 1개(거성)이므로 서로 소리의 높낮이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④ 현대 국어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어 ‘이르고자’라고 표기하지만, 이 자료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니르·고·저’라고 표기하였다.

⑤ 현대 국어에서는 구개음화가 적용되어 ‘퍼지’라고 표기하지만, 이 자료에서는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아 ‘퍼·디’라고 표기하였다.

**26** ‘어엿·비’는 단어의 의미가 변화하였으므로 의미의 이동에 해당한다. 중세 국어에서 ‘가엿게, 불쌍하게’라는 뜻이었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보기에 사랑스럽고 귀엽게’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말썽·미’의 ‘말썽’은 ‘말’을 뜻하였는데, 현대 국어의 ‘말썽’은 남의 말을 높여 이르거나 자기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을 뜻하므로 의미 축소가 일어난 것이다.

② ‘어·린’의 ‘어리다’는 ‘어리석다’를 뜻하였는데, 현대 국어의 ‘어리다’는 ‘나이가 적다’를 뜻하므로 의미 이동이 일어난 것이다.

③ ‘노·미’의 ‘놈’은 ‘보통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현대 국어의 ‘놈’은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쓰이므로 의미 축소가 일어난 것이다.

④ ‘하·니·라’의 ‘하다’는 중세 국어에서 ‘많다’, ‘크다’ 등을 뜻하였으며, 그 다의성 때문에 점차 소멸되어 현대 국어에서 단일 어휘로는 쓰이지 않는다. ‘하고 많다’, ‘황소’ 등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27** ‘中囯·국·에 달·아’는 ‘중국과 달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세 국어에는 비교, 기준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文文字·중·와·로’를 통해 한자음은 『동국정운』식으로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받침이 없는 한자어를 표기할 때 종성에 소리값이 없는 ‘ㅇ’을 받쳐 적었다.

③ ‘퍼·디’를 통해 중세 국어에는 ‘ㅣ’ 계열 모음 앞에 오는 ‘ㄷ’이 ‘ㅈ’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뿌·메’를 통해 중세 국어에 명사형 어미 ‘-음/-음’이 사용되었으며, 현대 국어에 비해 모음 조화가 규칙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⑤ ‘ㅅㅅ·미니·라’를 통해 중세 국어에는 이어적기가 보편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28 서술형** ㉠은 자음으로 끝난 체언 ‘말썽’ 뒤에 주격 조사가 사용되는 경우이므로, 주격 조사 ‘이’가 쓰였다. ㉡은 ‘ㅣ’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나’ 뒤에 주격 조사가 사용되는 경우이므로, 주격 조사 ‘ㅣ’가 쓰였다. 이처럼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음운 조건에 따라 주로 ‘이’, ‘ㅣ’, ‘ㅇ’로 실현되었으며, 현대 국어에 나타나는 주격 조사 ‘가’는 별로 쓰이지 않았다.

| 평가 기준                            | 확인 ☑                     |
|----------------------------------|--------------------------|
| 음운 환경과 관련하여 ㉠에 사용된 주격 조사를 밝혀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음운 환경과 관련하여 ㉡에 사용된 주격 조사를 밝혀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01 ⑤      02 ③      03 -줍-. '받-'이 'ㄷ'으로 끝나므로 자음 'ㄷ, ㅌ, ㅊ' 뒤에 오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어야 한다.      04 ②  
05 ④      06 ⑤      07 ①

01 '버릇·매'는 체언 '버릇'과 조사 'ㅁ'가 결합된 말이다. 따라서 체언 '버릇'에 주격 조사를 붙이면, 자음 'ㄷ' 뒤이므로 '이'가 와야 한다. '쨌중지·즈드·려'의 체언은 '중즈'로, 뒤에 주격 조사를 붙이면, 'ㄹ' 모음 이외의 모음 뒤이므로 '이'가 와야 한다. 따라서 모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불·휘'는 'ㄹ'로 끝나므로 주격 조사는 없음의 형태로 결합되었다.  
② '시·미'는 '심' 뒤에 주격 조사가 온 것이므로 자음 뒤에서 주격 조사 '이'가 쓰인 것인데, 이어적기를 하여 '시미'가 된 것이다. 'ㅁ·빅姓·성·이'는 '백성'의 뒤, 즉 자음 뒤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되었다.  
③ '공·지'는 '공자+ㅣ'이고, '흙·배'의 '배'는 '바+ㅣ'로 모두 주격 조사 앞에 모음이 오므로 'ㅣ'가 결합되었다.  
④ '남·곤'은 '남+ㅣ'와 '은'이 결합한 것이고, '므·른'은 '믈+은'을 이어적기한 것으로 '남+ㅣ'와 '믈'은 자음 뒤에 오는 주격 조사 '이'가 결합될 수 있다.

02 <보기>에서는 초·중·종성을 갖추게 하기 위해 받침 없는 말의 받침 자리에 'ㅇ'을 표기한, 『동국정운』식 표기의 한 예를 제시하고 있다. '中囯國·꺈' 역시 『동국정운』식 표기에 해당하지만 원래 받침 소리가 있는 말이어서 음가가 있는 'ㅇ(옛이음)'이 사용되었다.

- 오답 풀이** ① 'ㅁ·성(세)', ② '御·영製·정(어제)', ④ '字·쫘(자)', ⑤ '爲·윙(위)'은 모두 종성이 없는 한자들이므로, 받침 'ㅇ'은 형식적 기호로 사용된 것이다.

03 서술형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들어갈 자리의 앞말은 '받-'이다. 즉 'ㄷ' 뒤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놓이는 것이므로 '-줍-'이 와야 한다.

| 평가 기준                                        | 확인 ☑                     |
|----------------------------------------------|--------------------------|
| '-줍-'이 들어가야 함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자음 'ㄷ' 뒤에 오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근거를 한 문장으로 썼다.                               | <input type="checkbox"/> |

04 '어엿쁘다'는 '가없다, 불쌍하다'에서 '예쁘다'라는 의미로 의미가 이동한 말이다. '씩씩하다'가 '엄하다'라는 뜻에서 '용감하다'라는 의미로 변한 것도 의미의 이동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미인'은 남녀 모두를 가리키는 말에서 여지만 가리키는 말로 바뀌었으므로 의미의 축소에 해당한다.  
③ '세수'는 '손'에서 '손이나 얼굴'을 씻는다는 의미로 바뀐 것이므로 의미 확대에 해당한다.  
④ '지갑'은 종이로 만든 것에서 다양한 재료로 만든 것을 포함하는 말로 바뀌었으므로, 의미의 확대에 해당한다.

⑤ '소랑후다'는 '생각하다'와 '사랑하다' 두 가지 의미에서 '사랑하다'의 한 가지 의미로 바뀌었으므로 의미의 축소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의미의 변화**

|        |                      |
|--------|----------------------|
| 의미의 확대 | 단어의 의미 영역이 넓어지는 것    |
| 의미의 축소 | 단어의 의미 영역이 좁아지는 것    |
| 의미의 이동 | 단어의 의미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 |

05 (나)의 '머·리털·이·며'는 '머리털'과 '이며'로 분석할 수 있다. 이때 '머리털'은 체언이고, '이며'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따라서 '머·리털·이·며'에서 끊어적기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적는 것이 아니라, 체언과 조사를 구분하여 적는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뜨들'은 뜯+을인데, 체언 '뜯'에 조사 '을'이 결합할 때, 각각의 형태소를 밝혀 '뜯을'로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있으므로 (가) 시기에는 이어적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나·랏·말썸'은 '말썸'이라는 체언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각각의 형태소를 밝혀 '말썸이'로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이어적고 있다.  
③ (나)의 '가·시·라'는 '것'에 '이라'가 결합한 것인데, 각각의 형태소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이어적고 있다. 따라서 끊어적기가 이전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나) 시기에도 여전히 이어적기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⑤ (가)의 '썩루·미니·라'와 (나)의 '무·춤·이니·라'는 각각 체언 '썩름'과 '무춤' 뒤에 '이니라'를 결합하고 있다. 이때 (가)는 소리 나는 대로 이어적은 반면, (나)는 앞말의 형태를 살려 끊어적고 있으므로, (가)에서 (나) 시기로 넘어가며 끊어적기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06 '나·랏·말썸·미'에는 이어적기 표기와 된소리되기가 나타나지만, 체언이 조사와 결합하면서 형태가 바뀌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체언이 조사와 결합하면서 형태가 바뀌는 것은 '남+ㅣ'와 '은'과 같은 경우에 나타난다.

- 오답 풀이** ① '노·미'는 체언 '놈'에 주격 조사 '이'를 결합하여 이어적기한 것이다.  
② '뜨·들'은 '뜯+을'인데, 체언 '뜯'에 음성 모음 'ㅡ'가 쓰였고, 조사 '을'에도 음성 모음 'ㅡ'가 쓰였다. 따라서 모음 조화를 지킨 사례에 해당한다.  
③ 중세 국어에는 '어엿·비'처럼 글자 왼쪽에 하나, 또는 두 개의 방점을 찍거나 점을 찍지 않는 방식으로 성조를 표시하였다.  
④ '물흙'에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자모인 'ㅇ' (아래아)와 'ㅎ(여린하울)'이 쓰였다.

07 (나)의 ㉠ '글·ㅇ·샤·닥'을 보면, 어간과 어미를 모두 양성 모음인 'ㅇ', 'ㅏ', 'ㅣ'로 구성하고 있으므로 모음 조화를 잘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 '하·눌·을'에서는 양성 모음으로 된 체언인 '하·눌'에 음성 모음으로 된 조사인 '을'을 결합하고 있다. 따라서 중세 국어에서 근대 국어로 넘어가면서 모음 조화의 혼란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② '거룩후야', '하·눌'에서 보듯 아래아(ㅇ)가 계속하여 쓰이고 있다.  
③ ㉠과 ㉡는 둘 다 고유어이다.  
④ ㉠과 ㉡는 둘 다 끊어적기가 사용되었다.  
⑤ ㉠과 ㉡에서는 받침 'ㄹ'이 사용되었다.

### (3) 한국어의 위상과 미래

#### 교과서 꿈공 이해하기

|       |      |      |      |      |
|-------|------|------|------|------|
| ❶ 81쪽 | 01 ① | 02 ⑤ | 03 ⑤ | 04 ② |
| ❷ 83쪽 | 05 ③ | 06 ③ | 07 ④ |      |

**01** '가운데 1'에서는 한국어의 높아지고 있는 국제적 위상을 보여 주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여러 국가의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또한 한글의 우수성 또한 한국어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소재목으로는 '한국어와 한글의 세계에서의 위상' 정도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한국어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한국어 기관이 있다는 것은 한국어의 위상을 보여 주기 위한 부분적인 내용임으로 소재목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③ 한국어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을 뿐, 이를 지속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노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소재목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④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은 알 수 있지만, 한국인이 외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재목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⑤ 한국어의 위상이 세계에서 높아지고 있는 근거로 제시한 것은 한국어 보급 기관과 수강생 수, 한국어 교재 수,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수 등이다. 한국 문화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고 있지 않으므로 소재목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02** '가운데 1'에 제시된 시각 자료에는 전 세계 한국어 교육 기관의 수와 전 세계 한국어 교육 기관의 학생 수가 제시되어 있다. 이 글의 글쓴이는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며 독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전 세계에 있는 한국어 교육 기관인 세종 학당, 한글 학교, 한국 학교 등의 개수를 알 수 있다.

② 시각 자료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자료에 있는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③ 전 세계에 있는 한국어 교육 기관의 수 외에 막대그래프로 학생 수를 표시하고 있다.

④ 전 세계 한국어 교육 기관별 현황은 객관적 수치를 표시하고 있고, 교육 부에서 발표한 것이기에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03** '가운데 1-①'에 따르면,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 나라 안팎에서 발간된 한국어 교재는 약 3,400권 정도라고 하였다. 이처럼 많은 양의 한국어 교재가 발간되고 있음은 알 수 있지만, 이들 교재가 국내에서 제작되는 추세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한국어 교재라고 해서 무조건 국내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④ '가운데 1-①'에 따르면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의 증가하여 한국어 보급 기관과 수강생, 한국어 능력 시험의 응시자, 한국어를 제 2외국어로 채택한 국가의 수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04** 이 글에서 한글이 정보화 시대에 유용한 언어라고 한 근거로 한글의 우수성을 들고 있다. 이 글에 드러난 한글의 우수성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 24자를 조합하여 다양한 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는 것(ㄱ), 한글의 모아쓰기 방식은 디지털 기기에서의 정보 검색 시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ㄷ)이다.

**오답 풀이** ㄴ. 한글의 자음을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이나 이 글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ㄷ. 한글은 『훈민정음』과 그 서문을 통해 글자를 만든 목적, 글자의 유래, 제자 원리 등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점이 정보 사회에 적합한 한글의 우수성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05** 이 글에서 글쓴이는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한국어의 위상이 낮아지고 있음을 우리나라 사람들의 실제 언어생활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의 말과 글을 다듬고 올바르게 쓰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실천이 뒤따를 때 진정한 한국어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우리의 언어생활을 돌아보고 한국어에 자긍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가꾸어 가자고 하였으나, 외국인이 한국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한국어를 고쳐야 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② 한국어가 그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에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의 말과 글을 소중히 가꾸자고 하였을 뿐, 위상에 맞는 다양한 행사가 필요하다고 하지는 않았다.

④ 글쓴이가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이를 위해 외국어를 학습하자고 하지는 않았다.

⑤ 한국어의 세계화가 단순히 한국어 사용자 수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06** '가운데 2-②'에서 국내 한국어 사용자들 사이에서 한국어보다 외국어나 외래어를 더 세련되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가운데 2-③'에서 텔레비전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서도 한국어 파괴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② '가운데 2-②'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민원 문서와 같은 공문서와, 계약에 사용하는 각종 문서에 한자어가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④ '가운데 2-①'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스로가 맞춤법과 어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한국어를 잘못 사용할 때가 많다고 하였다.

⑤ '가운데 2-③'에서 텔레비전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서도 한국어 파괴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이 이러한 매체를 자주 접하다 보면 정체불명의 새말이나 비속어를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였다.

**07** '자정 작용'은 우리말을 소중하게 가꾸고 다듬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에는 쉬운 우리말이나 순화된 말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외래어와 외국어를 모두 고유어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보기는 어렵다. 외래어나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꾸어 쓰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모든 외래어와 외국어를 고유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01 ⑤    02 ⑤    03 ④    04 지구촌 시대    05 ②  
 06 ①    07 ④    08 ⑤    09 그 자체로도 문제이며, 세대 간의  
 의 소통이 단절될 수도 있다. / 세대 간의 의사소통에서 오해를 유발할 수 있  
 고, 언어 규범을 파괴할 수 있다.    10 ⑤    11 ④    12 ⑤  
 13 ①    14 ②    15 ④    16 ③    17 ④    18 ④  
 19 ②    20 ③    21 정체불명의 새말이나 비속어를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22 ⑤

01 (가)에서는 현대가 지구촌 시대가 되었다면서 시대의 변화 모습을 소개하고, (나)와 (다)에서는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른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을 살펴보고 있다.

02 (나)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각 자료는 한국어 보급 기관과 이 기관의 수강생, 한국어 교재, 한국어 능력 시험 실시와 응시자에 대한 도표이다. 이들 내용은 한국어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과 학습 욕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한국어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 준다.

03 (나)에서는 4천여 개에 이르는 한국어 보급 기관의 수, 30만여 명에 달하는 한국어 교육 기관의 수강생,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하는 외국인들의 증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태국에서 대학 입학시험에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추가한다는 발표는 있지만, 세계의 대학에서 한국어 학과를 신설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이 글만으로는 알 수 없다.

04 ㉠의 내용은 (가)에 제시되어 있다. 즉 현대는 세계가 하나의 마을과 같은 지구촌 시대라는 것이다. 이는 한 민족이라고 해서 한 나라에서만 살지 않으며, 한 언어라고 해서 한곳에서만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05 ㉡에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르는 외국인 응시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한국어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커짐을 보여 준다고 하였으므로, ㉡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본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는 사람은 한국인이거나 평소에도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외국인일 수도 있다. 즉,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한다고 해서 반드시 한국어 사용자는 아닌 것이다. ③ (나)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는 외국인이 늘어난다고 해서 한국어 사용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는 한국어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줄 뿐이다.

④ 한국어 사용자는 말 그대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 사람은 한국에 태어난 것만으로 한국어를 사용하게 되므로, 한국어 능력 시험에 통과해야만 한국어 사용자가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⑤ (나)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의 응시자 수가 17만 명에 달한다고 했는데, 한국인 인구와만 비교해 보아도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수가 한국어 사용자 수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

06 (다)에서는 한글의 우수성이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한글이 정보화 시대에서 디지털 기기나 음성 인식 기술과 같은 정보 통신 기술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글과 알파벳을 비교하고 있는 부분은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참고 자료] 음성 인식 기술**

컴퓨터가 마이크와 같은 소리 센서를 통해 얻은 음향학적 신호를 단어나 문장으로 변환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한글은 한 글자에 하나의 음이 대응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음성 인식 기술에 유용하다. 한글은 영어에 비해 한 글자에 대응되는 음의 숫자가 적은 편이어서 음성 인식을에서 앞설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07 (라)를 보면, ‘정부에서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끔 행정 용어를 순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우리말 순화를 위한 노력은 민간의 언어 사용자들뿐만 아니라 공공 기관인 정부의 주도하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8 이 글에서는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국외에서의 상황과 달리 국내에서 낮아지고 있는 한국어의 위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주로 매체의 영향을 받아 이해할 수 없는 새말이나 합성어를 사용하는 한국어 파괴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정체불명의 새말이나 합성어는 한국어의 위상을 낮추는 사례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정체불명의 새말이나 합성어가 한국어를 풍부하게 해 준다는 긍정적 입장은 이 글을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다.

09 **서술형** <보기>의 대화는 지나치게 축약된 어휘나 어휘의 초성, 맞춤법에 어긋난 유희적 표현 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세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 (다)에서는 청소년이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말과 글을 쓰는 것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청소년이 이런 말을 씀으로써 세대 간의 소통이 단절되는 것을 문제로 보았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세대 간 의사소통이 단절된다는 문제를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썼다.        | <input type="checkbox"/>               |

10 ㉠은 오염된 물이나 공기의 자정 작용에 빗대어 언어생활에서의 자정 작용이 필요함을 설명한 것으로, ⑤ 역시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 설명하는 방식인 유추를 사용하였다. ‘유추(유비추리)’는 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게 하는 설명 방식이다.

**오답 풀이** ① 하나의 대상을 구성 요소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인 ‘분석’이 사용되었다.

② 둘 이상의 대상의 내용을 맞대어 같고 다름을 검토하는 방식인 ‘대조’가 사용되었다.

③ 대상을 종류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인 ‘분류’가 사용되었다.

④ 용어의 개념을 풀어 설명하는 방식인 ‘정의’가 사용되었다.

11 글쓴이는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말에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말과 글을 소중히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의 의사소통 문화를 성찰하고 세계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를 다듬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외국에서 우리말이 잘못 사용된 사례를 찾아 널리 알리자는 내용은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12 [A]의 '구입 시 할부 수수료율은'은 [B]에서 '할부로 살 때에는 할부 이자율'로 풀어 썼고, [A]의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는 [B]에서 '후대 전화 값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매월 내는 방식으로 갚습니다.'로 풀어 설명하였다. 즉 [A]의 어려운 한자어를 [B]에서는 좀 더 쉽게 풀어써 설명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B]는 한자어로 된 전문 용어를 일상적인 말로 풀어써 설명한 것으로, 외래어로 설명한 것은 아니다.  
 ② [A]와 [B] 모두 같은 수치(5.9퍼센트)를 제시하였다.  
 ③ [B]가 전문 용어를 더 쉽게 풀어써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A]와 [B] 모두 전문 용어(할부, 원금)를 사용하고 있다.  
 ④ [B]에서는 용어를 좀 더 쉽게 풀어써 설명하였을 뿐,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13 (가)는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일 때, 그 내용을 직접 말하지 않고 넌지시 돌려 말하던 우리 조상들의 담화 관습을 설명하고 있다. (나)에는 속담을 사용하여 말하려는 바를 비유적이고 완곡하게 표현한 조상들의 담화 관습이 드러나 있다. (다)에는 외국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담겨 있다. 그러나 침묵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켰다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14 (나)에서는 속담을 사용하여 백성들이 착취당하는 상황을 완곡히 말문을 살려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속담은 전달하려는 내용을 다른 구체적인 상황에 빗대어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속담은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세세히 설명해야 될 것을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다.  
 ③ 속담은 직설적 표현이 아니라 전하고자 하는 말을 다른 상황에 빗대어 표현하는 완곡한 표현에 해당하므로, 청자는 속담에 담긴 의미를 바탕으로 화자가 전달하려는 의미를 스스로 파악해야 한다.  
 ④ '밑바닥 뚫어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리게 하여 화자의 의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⑤ 속담을 사용해 완곡한 표현을 하는 것이므로, 직설적으로 말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청자의 부담을 고려해 속담을 사용하여 돌려 말할 수 있다.

15 ㉠은 전달하려는 내용을 완곡하게 돌려 말하는 우리 조상들의 담화 관습을 의미한다. 한편 ㉡에서는 창문을 닫으라는 뜻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용돈을 더 달라.'라는 의미를 돌려 말하고 있다.  
 ② '계임을 그만하라.'라는 의미를 돌려 말하고 있다.  
 ③ '웃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돌려 말하고 있다.  
 ⑤ '담배를 피우지 말라.'라는 의미를 돌려 말하고 있다.

16 ㉠은 새로운 말을 만들었을 때, 이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있어야만 두루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새말에 대한 사람들의 호응, 즉 사회적 약속이 이루어져야 대중적으로 쓰이게 됨을 보여 주는 것으로, 언어의 사회성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언어의 규칙성에 대한 설명이다.  
 ②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설명이다.  
 ④ 언어의 자의성에 대한 설명이다.  
 ⑤ 언어의 창조성에 대한 설명이다.

17 '네티즌(netizen)'은 영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로, 순화된 말인 '누리꾼'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네티켓(netiquette)'을 '누리꾼 예절'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피겨(figure)'는 흔히 '피규어'라고 잘못 쓰는 말로, 관절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다양한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동물 형상의 모형 장난감을 뜻한다. '정밀 모형'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캡처(capture)'는 주로 편집이나 저장에 위해 화면에 나타난 일부 정보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이 단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해서는 '화면 담기', '장면 갈무리' 등의 말로 바꿀 수 있다.  
 ③ '컬러링(color ring)'은 기존의 단조로운 통화 연결음 대신에 가입자가 원하는 음악이나 다양한 소리로 바뀌 들려주는 통신 부가 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멋울림', '발신대기음' 등으로 순화할 수 있다.  
 ⑤ '비트박스(beat box)'는 손과 입을 이용하여 강한 악센트의 리듬을 만들어 내는 일을 뜻하는 단어로, '입소리손장단'으로 순화할 수 있다.

18 (라)에서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자신이 한글과 한국어를 아끼고 사랑하며, 맞춤법과 어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한국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수치화된 자료를 통해 한국어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과 학습 욕구가 증가하였음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고 하였다.  
 ② (마)에서 외국어와 외래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넘어 외국어나 외래어를 섞어서 쓰면 세련되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③ (아)에서 글쓴이는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국어에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의 말과 글을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야 하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사소통 문화를 성찰해야 한다고 하였다.  
 ⑤ (다)에서 한글은 자음과 모음 24자를 조합하여 다양한 소리를 표기할 수 있고, 알파벳과 달리 자음과 모음을 모아쓰기 때문에 정보화 사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문자라고 하였다.

19 [A]에서 학생들은 '빠박'과 같이 지나치게 축약된 어휘와 'ㅇㅇㅇㅇ(이거레알, '이거 진짜'라는 뜻)'과 같이 어휘의 초성만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우승각'과 같이 특정 집단만 이해할 수 있는 새말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A]와 같은 의사소통 방식은 의사소통을 할 때 오해를 유발할 수 있고, 언어 규범을 파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B]에서는 '구입 시 할부 수수료율',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과 같은 한자어로 된 전문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어려운 한자어를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20 (나)에서 글쓴이는 한국어에 대한 세계적 관심의 증가를 설명하기 위해 객관적인 수치를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 세계 한국어 교육 기관별 현황'을 보여 주는 <보기>의 시각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며 독자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1 (바)에서는 청소년이 텔레비전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한국어 파괴 현상을 자주 접하다 보면, 정체불명의 새말이나 비속어를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2 ㉠에서 글쓴이는 생태계의 자정 작용에 빗대어 언어생활에서도 언어 사용자들이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자신의 언어생활을 바로잡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어문 규범에 맞게 한국어를 사용하고, 외국어와 외래어,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하며, 정체불명의 새말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등을 실천해야 한다. ㉡는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언어생활에서 외국어나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고, 가급적 고유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② 비속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자칫하면 언어폭력으로까지 변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③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민원 문서 같은 공문서와 계약에 사용하는 각종 문서에 한자가 지나치게 많이 쓰여 있으므로 이를 우리말로 순화하도록 한다.  
 ④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말과 글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세대 간의 소통 단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해야 한다.

##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90~91쪽

- 01 ⑤    02 ④    03 ④    04 ②    05 ③    06 이  
 성계를 왕으로 만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 동참하자.    07 ④  
 08 ⑤

01 (가)에서는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문자인 한글의 우수성이 한국어의 세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말하고 있고, (나)에서는 빠른 경제 발전, 문화 콘텐츠의 개발과 같은 사회·문화적 역량의 성장이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가)는 언어와 기술의 관계를 중심으로, (나)는 언어와 사회·문화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어의 위상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나)에서는 경제 발전과 문화 콘텐츠 개발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본다. 하지만 (가)에서는 한국어의 위상이 단기간에 높아진 것인지 장기간에 걸쳐 높아진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② (가)는 한국어가 그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글을 가꾸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나)에는 한국어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③ (가)에서는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어를 사용하는 우리 스스로가 가져야 할 태도를 다룬 반면, (나)에서는 한국어 보급 정책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말하고 있으므로 둘 다 한국어의 세계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02 <보기>는 한국어의 세계화에 대한 생각이다. 세계인들이 한국어를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한국어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과정과 교육 기관을 세계에 보급하고 한국어 교원을 세계에 파견하거나 한국어 사전을 편찬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한국어를 배우길 원하는 외국인을 위해 온라인 누리집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정책이다. 하지만 각국의 언어에는 그 나라의 사고와 문화가 담겨 있으므로 모든 나라의 언어를 한국어로 통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정책이다.

03 [A]는 한글은 몇몇 개의 모음과 자음만으로 많은 음운과 글자를 나타낼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한글의 원리는 글자판을 만들 때 자판 개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휴대 전화와 같은 작은 기기의 글자판을 만드는 데 유용할 수 있다. [B]는 표의 문자의 입력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표의 문자를 글자판으로 만들 때에는 문자의 개수가 너무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A]와 [B]의 비교를 통해 정보화 시대에 따른 자판 개발 시 한글이 매우 유용할 것임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표의 문자를 입력할 때에는 자판에 로마자로 발음을 쓰고 그 다음에 원하는 글자를 찾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원하는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표음 문자에 비해 입력 과정이 더 복잡하다.  
 ② 기본 음운에 획을 더하는 방식은 표음 문자인 한글의 천지인 방식으로, 표의 문자의 입력 방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자는 휴대 전화에 입력할 때 먼저 로마자로 발음을 먼저 쓴 다음에, 그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를 찾아서 입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③ 한글의 모아쓰기는 글자를 빨리 입력할 수 있는 장점에 해당하는 특징으로, 이로 인해 단어의 의미 파악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내용은 <보기>에 나오지 않는다.  
 ⑤ 한자를 입력하여 검색할 때에는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아지기 때문에 한자와 한글을 모두 사용해 검색하는 것보다 한글만을 사용해 검색하는 것이 더 빠르다.

04 '분실(紛失)하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건 따위를 잃어버리다.'라는 뜻의 단어로, '가지고 있던 돈이나 물건 따위를 부주의로 잃어버리다.'라는 뜻의 단어인 '유실(遺失)하다'와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둘 다 한자어이기 때문에 ㉡는 순우리말인 '잃어버림' 등으로 고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수수(收受)'는 '거두어서 받음', '무상으로 금품을 받음'이라는 뜻의 단어이다. 따라서 순우리말 '받음'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③ '야기(惹起)하다'는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키다.'라는 단어로, 순우리말 '일으키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④ '매몰(埋沒)되다'는 '보이지 아니하게 파묻히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순우리말 '파묻히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⑤ '추출(抽出)하다'는 '전체 속에서 어떤 물건, 생각, 요소 따위를 뽑아내다.'라는 뜻으로, 순우리말 '뽑아내다'와 바꿀 수 있다.

**05** ‘언어폭력’은 ‘말로써 온갖 응답패설을 늘어놓거나 욕설, 헐박 따위를 하는 일.’을 뜻한다. <보기>는 인터넷상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말이나 그림말(이모티콘)에 대한 설명으로, 사용을 지양해야 할 언어이기는 하지만 욕설과 같은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예라고 보기 어렵다.

- 오답 풀이** ① 진지한 대화나 지적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말과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데, <보기>의 말과 표현은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아서 진지한 대화나 토론에서 사용하기 어렵다.  
 ② 새롭게 만들어진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고유어나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국어 어휘들이나 표현이 사라질 수 있다.  
 ④, ⑤ <보기>의 언어는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한다. 따라서 세대 간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06 서술형** <보기>에 제시된 시조는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조선 건국에 반대하던 정몽주를 완곡하게 설득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이방원은 이 시조를 통해 함께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설득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은 직설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이처럼 시조를 통해 비유적으로 전달하곤 하였다.

| 평가 기준                                           | 확인 ☑                     |
|-------------------------------------------------|--------------------------|
| 시조에 함께 이성계를 왕으로 만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40자 내외로 썼다.                                     | <input type="checkbox"/> |

**【참고 자료】 이방원, 『하여가』 제재 개관**

|    |                                          |
|----|------------------------------------------|
| 갈래 | 시조, 단시조, 평시조                             |
| 성격 | 회유적, 우회적, 설득적                            |
| 제재 | 드령침                                      |
| 주제 | 조선 건국에 동참하기를 회유함                         |
| 특징 | 협력하여 새 나라를 건설하자는 회유를 만수산 드령침이 얹히는 것에 비유함 |

**07** ‘ㄱ.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아무도 안 듣는 데에서라도 말조심해야 한다는 말이고, ‘ㄴ. 살은 쏘고 주위도 말은 하고 못 좁는다.’는 화살은 쏘아도 찾을 수 있으나 말은 다시 수습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ㄷ. 거짓말도 잘만 하면 눈 닷 마지기보다 낫다.’는 거짓말도 경우에 따라서는 처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사람은 아무쪼록 말을 잘해야 한다는 말이고, ‘ㄹ.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는 가루는 체에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길어질수록 시비가 붙을 수 있고 마침내는 말다툼까지 가게 되니 말을 삼가라는 말이다. 한편 <보기>에는 같은 말도 표현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속담은 제시되지 않았다. 참고로 같은 말도 표현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속담에는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르다.’가 있다.

**08** 우리말 대신 외국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우리말 어휘로만 표현할 수 있는 의미를 전달할 수 없고, 우리말에 담긴

우리 고유의 문화를 함께 잃게 되며, 한국어 사용자들 간에 국어로 소통하는 능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외국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이다. 한편 비속어는 격이 낮고 속된 말을 일컫는 것으로, 외국어는 비속어라고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② 외국어를 순화하면서 더 좋은 우리말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말을 더 사랑하고 가꾸어 나가게 된다.  
 ③ 우리말은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간직하고 있으므로, 외국어 대신 우리말을 사용하면 이를 보전할 수 있게 된다.  
 ④ 우리말 어휘력이 늘어나면 우리말로 소통하는 능력도 향상된다.

본문 92~96쪽

**대단원 정리 문제**

- 01** ① ② ㄱ.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학생들이 있다. ㄴ.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학생들이 있겠다(있으리라). ㄷ. 도서관에서 책을 읽은(읽던) 학생들이 있었다. **03** ③ **04** ② **05** ④ **06** ⑤ **07** ⑤ **08** ④ **09** ④ **10** ⑤ **11** ② **12** ② **13** ① **14** ③ **15** ④ **16** 그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바쁘다. 이 문장이 어색한 이유는 동작상은 동사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문장이 어색한 이유는 형용사인 ‘바쁘다’에 동작상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17** ⑤ **18** ② **19** ③ **20** ② **21** ③ **22** ④

**01** 행위의 주체를 높이는 것은 주체 높임법에 해당한다.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것으로, 주어에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고,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으)시-’를 붙여 실현한다. 또한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도 있다. 한편 주어를 직접 높이는 방법은 직접 높임에 해당한다. ①에서는 주어인 ‘선생님’에 ‘께서’를 붙이고, ‘댁’과 ‘계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주체를 직접 높이고 있다.

- 오답 풀이** ② 선어말 어미 ‘-사-’를 써서 과장님의 소유물인 ‘옷차림’을 ‘멋있으십니다’라고 표현하여 ‘과장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③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의 자녀인 ‘따님’은 ‘몇 살이신가요?’라고 높여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④ ‘있어요’에서 해요체를 사용하여 듣는 상대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⑤ 특수 어휘 ‘모시고’를 사용하여 문장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02 서술형**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ㄱ은 현재 시제이고,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뒤에 오는 ㄴ은 미래 시제이고,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 ㄷ은 과거 시제이다. 동사 ‘읽다’에 관형사형 어미를 결합할 때, 현재 시제인 ㄱ에서는 ‘-는’을 써서 ‘읽는’으로, 미래 시제인 ㄴ에서는 ‘-(으)ㄹ’을 써서 ‘읽을’로, 과거 시제인 ㄷ에서는 ‘-(으)ㄴ’이나 ‘-던’을 써서 ‘읽은’이나 ‘읽던’으로 고친다. 형용사인 ‘있다’에 선어말 어미를 결합할 때는, 현재 시제인 ㄱ에서는 형용사 시제 표현이 따로 없으므로 ‘있다’로, 미래 시제인 ㄴ에서는 ‘-겠-’이나 ‘-(으)리-’를 써서 ‘있겠다’나 ‘있으리라’로, 과거 시제인 ㄷ에서는 ‘-았-’/‘-었-’을 써서 ‘있었다’로 고친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ㄱ에서 관형사형 어미 ‘-는’ 사용, 선어말 어미는 사용하지 않고 적절하게 현재 시제에 맞게 고쳐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ㄴ에서 관형사형 어미 ‘-을’ 사용, 선어말 어미는 ‘-겠-’이나 ‘-으랴-’를 사용하여 미래 시제에 맞게 고쳐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ㄷ에서 관형사형 어미 ‘-은’이나 ‘-던’ 사용, 선어말 어미는 ‘-었-’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에 맞게 고쳐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문장을 ‘-다.’로 끝나는 평서문 형태로 썼다.                                         | <input type="checkbox"/>               |

**03** 진행상은 보조 용언 ‘-고 있다’, ‘-아 가다/-어 가다’, 연결 어미 ‘-(으)면서’를 쓴다. 완료상은 보조 용언 ‘-아 있다/-어 있다’, ‘-아 버리다/-어 버리다’, 연결 어미 ‘-고서’를 쓴다. 따라서 ‘-아 버리다’를 쓴 ③은 완료상, 나머지는 진행상이다.

- 오답 풀이** ① 보조 용언 ‘-어 가다’를 쓴 진행상이다.  
 ②, ⑤ 보조 용언 ‘-고 있다’를 쓴 진행상이다.  
 ④ 연결 어미 ‘-면서’를 사용한 진행상이다.

**04** 간접 인용으로 다른 데에서 들은 말이나 읽은 글을 인용할 때, 원래 문장의 형식은 유지하지 않고 내용만 인용한다.

- 오답 풀이** ① 간접 인용은 인용절 다음에 조사 ‘고’를 붙이고, 직접 인용은 ‘라고’를 붙인다.  
 ③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원작자의 의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④ 직접 인용할 때에는 인용절 앞뒤에 큰따옴표를 표시하고 조사 ‘라고’를 붙이며, 원래의 형식과 내용은 유지한다.  
 ⑤ 직접 인용절에서 간접 인용절로 바꿀 때 또는 간접 인용절을 직접 인용절로 바꿀 때에는 시간 표현, 높임 표현, 지시어, 종결 어미 등도 적절하게 바꾸어야 한다.

**05** ‘불·휘’는 ‘ㅣ’ 모음 뒤이기에 주격 조사가 나타나지 않으며, ‘·흙·배’의 ‘배’는 ‘ㅂ’ 모음 뒤에서 주격 조사 ‘ㅣ’가 사용되었다. ‘·시·미’, ‘·말·미’, ‘·ㅂ·박·성·이’ 등에서 보듯 자음 뒤에서는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된다. 따라서 (가)와 (나)에서는 앞말의 끝소리가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 주격 조사 ‘이’나 ‘ㅣ’가 쓰이고, ‘가’는 사용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기·픈’, ‘부·루·매’, ‘·말·미’ 등에서 보듯 이어적기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글자 옆에 있는 점은 점이 없거나, 점을 하나나 두 개를 찍어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방점이다.  
 ③ 중세 국어에는 ‘ㅅ(반치음)’, ‘ㅈ(순경음 비음)’, ‘(아래아)’와 같이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음운이 존재하였다.  
 ⑤ ‘부·루·매’, ‘·하·나·니’, ‘·구·루·래’에서 보듯 모음 조화가 규칙적으로 나타났다.

**06** <보기>는 어두 자음군에 대한 설명이다. ⑤의 ‘·ㅃ·들’의 ‘ㅃ’은 음절의 첫소리에 자음이 연속으로 오는 어두 자음군에 속한다. 어두 자음군은 음절의 첫소리에 자음이 연속으로 둘 이상 발음되었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어두에 자음군을 허락하지 않는 음운상의 특징 때문에 된소리 ‘ㅃ, ㅆ, ㅈ, ㅊ’으로 변했다.

**07** ㉠은 현대 국어로 오면서 의미가 축소된 경우이고, ㉡은 현대 국어로 오면서 의미가 이동한 경우로, 둘 다 어휘의 의미가 변화한 예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중세 국어에서 현대 국어로 오는 과정에서 ‘돌다’의 의미는 유지되되, 형태가 변하여 ‘좋다’가 된 것이고, 중세 국어의 ‘좋다’는 사라진 예이다. 따라서 형태가 변한 것이지 의미가 변한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현대 국어로 오는 과정에서 ‘열매’를 의미하는 ‘여름’은 사라지고, ‘녀름’의 형태가 변하여 ‘여름’이 되었다. 따라서 형태가 변한 것이지 의미가 변한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08** ‘받·주·온’은 ‘받+·+·주-(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온’의 구성으로, 15세기에는 ‘받·주·온’으로 표기되었으나, 16세기에는 ‘받’이 소실되어 ‘받·주·온’으로 표기되었다.

- 오답 풀이** ① 우리말은 높임법이 발달되었는데,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보다 높임 선어말 어미가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② ‘孔·공·지’는 현대어로 풀이하면 ‘공자께서’이다. ‘공지’는 주격 조사 ‘ㅣ’가 사용된 것이지, ‘께서’가 사용되지 않았다.  
 ③ ‘굴·우·사·디’는 현대어로 풀이하면 ‘말씀하시기를’이다. ‘굴+·우·사+·디’에서 ‘시’와 ‘오’가 줄어서 ‘샤’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중세 국어에서도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⑤ 현대 국어의 상대 높임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격식체는 ‘하십시오체’(아주 높임), ‘하오체’(예사 높임), ‘하계체’(예사 낮춤), ‘해라체’(아주 낮춤)로 나뉘고, 비격식체는 ‘해요체’(두루 높임), ‘해체’(두루 낮춤)로 나뉜다. 그러나 중세 국어에서는 ‘-쇼셔’, ‘-라’ 등과 같은 종결 어미가 쓰였으므로 현대 국어와 같은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09** 『동국정운』식 표기는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표시하여 중국 발음에 가깝게 한자음을 표기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다)의 ‘孔·공·지’, ‘曾·중·지’, ‘父·부·모·모’ 등은 중성 표기가 없어 『동국정운』식 표기에서 벗어난 것이 있으므로 이는 현실음에 맞게 표기한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16세기 작품인 (나)에서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려 쓰이는 모음 조화가 파괴된 모습이 보인다. 그 예로 ‘비·르·소·미·오’를 보면 음성 모음인 ‘ㅡ’ 다음에 음성 모음인 ‘ㅜ’가 쓰인 ‘-움’이 아니라 양성 모음인 ‘ㅛ’가 쓰인 ‘-움’이 이어짐을 알 수 있다.  
 ② ‘굴·우·사·디’,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알·흙·을’, ‘무·춤·이·나·라’ 등에서 보듯 끊어적기가 확대되었다.  
 ③ 글자 옆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현대 국어에서는 모음 뒤에 주격 조사 ‘가’가 오는데,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 ‘ㅣ’가 사용된 것을 ‘孔·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다)의 내용에 따르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한글과 한국어를 아끼고 사랑하며, 맞춤법과 어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한국어어를 잘못 사용하고 습관적으로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다는 정리는 적절하지 않다.

**11** ‘뵈다’는 ‘뵈어’ 또는 ‘뵈가 되므로 그 뒤에 보조사 ‘요’가 붙을 때에는 ‘뵈어요’나 ‘뵈요’의 형태로 적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여간’은 주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 그 상태가 보통으로 보아 넘길 만한 것임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뒤에 부정하는 말이 나와야 한다.

③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 ‘-아-’를 잘못 넣어서 사용한 경우이다. 이와 같은 예로는 ‘목메다’를 ‘목메이다’로, ‘헤매다’를 ‘헤매이다’로 쓰는 경우를 들 수 있다.

④ 어미 ‘-(으)ㄹ걸, -(으)ㄹ게’ 등은 된소리로 소리 나지만 예사소리로 적어야 하므로 ‘할게’로 적어야 한다.

⑤ ‘잠갔다’는 ‘잠그-+-았-+-다’로 모음 ‘-’가 탈락한 것이므로 ‘잠갔다’로 적어야 한다. 준말이 ‘잠궜다’가 되려면 ‘잠구-+-았-+-다’의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잠구다’는 ‘잠그다’의 잘못이다.

**12** ㉠은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에서 문장의 주체인 ‘아버지’가 대화의 상대를 높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인 화자가 청자를 높인 것이므로 문장의 주체가 상대를 높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사-’를 사용하여 문장의 주체인 ‘아버지’를 높인 문장이다.

③, ④ ㉡은 화자가 청자에게 무언가를 청유 혹은 명령하고 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물을 드리는 행위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은 청자이며, 이에 따라 청자가 곧 문장의 주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드리다’라는 특수 어휘가 사용되었으므로, 문장에 드러나지 않는 객체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⑤ ㉢은 부사격 조사 ‘께’와 특수 어휘 ‘여쭙어보다’를 사용하여 객체 높임이 실현된 문장이다.

**13** ①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가 사용되었지만, 주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가 사용되지는 않았다. 이 문장은 주체의 행위인 ‘말씀’을 높인 간접 높임이 사용되었다. 간접 높임은 대상의 신체 부분, 소유물, 생각 등을 높여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② ‘주무시다’는 ‘자다’의 높임말로, 주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③, ④, ⑤ ‘뵈다’, ‘모시다’, ‘여쭙다’는 객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14** ③에서 문장의 주체는 ‘상품’이다. 그런데 국어에서 물건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높일 수 없다. 따라서 ‘지금 보고 계신 상품은 올해 신상품이에요.’라고 고쳐야 한다.

**15** ㄷ은 부사어 ‘어제’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을 통해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과거 시제 문장임을 알 수 있다. ㄹ은 부사어 ‘지금’과 선어말 어미 ‘-ㄴ-’을 통해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 문장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ㄱ. 선어말 어미 ‘-겠-’이 사용되었지만 벌어질 일에 대한 추측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미래 시제의 문장으로 볼 수 없다.

ㄴ. 선어말 어미 ‘-았-’이 사용되었지만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한 예측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과거 시제의 문장으로 볼 수 없다.

ㄹ. 선어말 어미 ‘-는-’이 사용되었지만 미래에 벌어질 사건을 나타내므로 현재 시제의 문장으로 볼 수 없다.

**16 서술형** 동작상을 사용할 수 있는 용언은 동사뿐이다. 따라서 ‘-고 있다’와 같은 동작상을 ‘바쁘다’와 같은 형용사에 사용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므로,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지 못한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완성된 문장으로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바쁘다’의 품사와 관련하여 밑줄 친 표현이 어색한 이유를 썼다. | <input type="checkbox"/>               |

**17** ㉠은 완료상 표현으로, 어떤 동작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미 끝났거나 그 결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18** ②는 간접 인용문을 직접 인용문으로 잘못 바꾸어 쓰면서 문장의 의미가 달라졌다. ②의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 바르게 바꾸면 ‘손자 녀석이 내게 “용돈 좀 주세요.”라고 하더군요.’가 된다.

**19** ③은 주어인 ‘엄마’가 ‘아기’에게 밥을 먹는 행동을 하게 하였으므로 피동 표현이 아니라 사동 표현이다. ①은 피동 접미사 ‘-리-’를 썼다. ②는 피동 접미사 ‘-되다’를 썼다. ④, ⑤는 피동 접미사 ‘-히-’를 썼다.

**20** ②의 ‘맡겨진’은 사동사 ‘맡기다’와 피동 표현 ‘-어지다’가 함께 사용된 것으로 올바른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이중 피동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잡아먹혀지지는’ ‘잡아먹다’에 피동 접미사 ‘-히-’와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③ ‘되어진’은 ‘되다’에 ‘-어지다’가 결합한 것이다. ‘되다’ 자체가 피동의 의미가 있는데, 그 뒤에 ‘-어지다’가 결합하였으므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④ ‘보여지는’은 ‘보다’에 피동 접미사 ‘-아-’와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⑤ ‘열려진’은 ‘열다’에 피동 접미사 ‘-리-’와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21** ‘받주·온 거·시·라’는 ‘받은 것이라’로 해석된다.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줍-’을 사용해 문장의 객체인 ‘부모’를 높이고 있다.

**22** ‘굴·우·샤·닥’, ‘일·흙·을’, ‘묵·춤·이니·라’에는 이어적기가 보편적으로 나타난 훈민정음 창제 초기와 달리 형태소의 모습을 밝혀 적는 끊어적기 방식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끊어적기 방식은 현대 국어에서도 계속 적용된다.

## 8. 한국 문학의 빛깔



### (1) 시조 두 수

#### 교과서 꼼꼼히 이해하기

101쪽

01 ① 02 ⑤ 03 ③ 04 ⑤

**01** (가)의 화자는 임 없이 보내는 외로운 겨울밤을 잘라 내어, 임과 함께 지내는 밤을 길게 늘리고 싶다는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즉, 임이 없는 상황에서 임을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기다리던 임이 온다는 소식에 마중을 나가는 화자의 모습을 과장되게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애타게 기다리는 임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02** (가)에서 '동지스들 기나긴 밤'은 임이 부재하는 시간으로,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하므로 부정적인 속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은유나 직유 같은 비유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고, '동지스들 기나긴 밤'이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나타내는 이중적인 속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답 풀이** ① 각 장은 네 마디로 끊어 읽을 수 있다.

② '기나긴 밤'을 임이 없는 밤에는 '서리서리 너털다가', 임이 온 밤에는 '구뽀구뽀 퍼리라'라고 하여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밤'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추상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인데, 이를 잘라 내거나 이불 아래 넣어 두었다가 여러 굵이로 펼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서리서리', '구뽀구뽀'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로, 이와 같은 순우리말로 된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다.

**03** (나)는 임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임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화자가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여 허둥지둥 달려가는 모습을 '곰빅넝비 넝빅곰빅', '천방지방 지방천방'과 같은 의태어, '워령충창'과 같은 의성어를 사용하여 과장되게 묘사함으로써 웃음을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설의법은 쉽게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른다. (나)에는 질문의 방식이 쓰인 구절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의인법은 인간이 아닌 대상을 인간처럼 표현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나)에 제시된 사물 중 인간처럼 표현된 것은 없다.

④ (나)에서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정확히 어떤 계절 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웃음을 유발하는 시조의 내용으로 보아 분위기가 암울하다고도 볼 수 없다.

⑤ (나)에서는 화자가 중문 지나 대문을 지나 건너편 산에 보이는 주추리 삼대 쪽으로 뛰어가는 모습에서 공간의 이동이 나타난다. 즉 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는 드러나지 않는다.

**04** (나)의 화자가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임이 오는지 바라

본 것은 맞지만, 건너편 산에 올라가서 본 것은 아니다. 화자는 대문으로 나가 문지방 위에서 임이 오는지 건너편 산을 바라보다가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여 그리로 뛰어가고 있다.

####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102~105쪽

01 ① 02 ② 03 ④ 04 주추리 삼대 05 ⑤  
06 ③ 07 ① 08 ④ 09 ③ 10 ① 11 ②  
12 ② 13 ④ 14 ⑤ 15 ⑤ 16 ③ 17 누  
이와 재회하기를 기대하며 불도에 정진함 18 ③

**01**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가)의 화자는 임이 오면 넣어 두었던 동짓날 밤을 길게 펴 임과 오래 함께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고, (나)의 화자는 임이 온다는 소식에 허둥지둥 서두르며 마중 나갈 정도로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와 (나) 둘 다 임에 대한 절실한 그리움은 나타나지만, 임에 대한 비난이나 원망의 감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와 (나)는 둘 다 현재의 상황을 그리고 있다. (가)에서는 임이 오는 날 밤을 길게 하고 싶다는 미래에 대한 의지는 나와 있으나, 임과 정확히 때를 정하여 약속한 것은 아니다.

④ (가)와 (나)에는 현재 임과 이별했다는 상황만 나타날 뿐, 임과 이별한 이유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임이 없는 현실을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가)와 (나)의 화자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지를 다지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02** (나)는 사실시조로 주 작자층이 중인이나 평민이어서 실제 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익살스럽고 풍자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남녀 간의 사랑과 정, 부정적인 현실 비판 등의 삶의 진솔한 문제를 드러내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기녀인 '황진이'가 지은 평시조이고, (나)는 작자를 알 수 없는 사실시조이다.

③ (가)에 비해 (나)의 초장과 중장은 길이가 길어져 있기는 하지만, 둘 다 초장, 중장, 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가)의 종장 첫 음보는 '어론 님'으로 세 글자로 고정되어 있고, (나)의 종장 첫 음보 역시 '모쳐라'의 세 글자로 고정되어 있다.

⑤ (가)와 (나)는 외형물이 나타나는 정형시이다. 평시조는 고려 말기에 나타났고, 조선 후기에는 평시조의 정형성에서 벗어난 사실시조가 나타났다. 사실시조는 양반을 비롯하여 중인, 평민 계층에서 향유되었다.

#### 【참고 자료】 연시조

시조는 평시조, 연시조, 사실시조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중 연시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
|----|---------------------------------------------------|
| 작자 | 양반 사대부 계층이 심화된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평시조를 엮어 부름             |
| 주제 | 자연 속 삶의 즐거움이나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로 평시조와 유사함              |
| 형식 | 2수 이상의 평시조를 하나의 주제로 엮었으며 각 수가 일관된 체계에 따라 긴밀하게 연결됨 |

**03** ‘어론 님’은 정든 임이라는 의미이다. (가)의 화자가 황진이라면, 〈보기〉의 내용을 참고할 때 ‘어론 님’은 ‘이사중’이라는 인물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긴 겨울밤의 시간을 비축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시간이 바로 ‘동지·소동 기나긴 밤’이다.  
 ② ‘기나긴 밤’은 임이 없기에 더 길게 느껴지는 밤이다. 그래서 이 밤을 잘라 내고 싶은 것이다.  
 ③ ‘춘풍 니불’은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을 가리키는 말로, 황진이의 거처에 있는 것이다.  
 ⑤ ‘님 오신 날 밤’은 황진이와 임이 만난 기쁜 날로, 화자가 길이를 길게 늘리고 싶은 밤이다.

**04** (나)에서 화자는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여 허둥지둥 달려가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 것은 ‘주추리 삼대’가 자신을 속여서 그렇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즉, 주추리 삼대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잘못이나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이다.

**05** 화자는 밤이라서 자신의 모습을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것이 다행이라며 낙천적인 사고관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 겹언쩍어 한다는 설명은 바르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추상적인 시간 개념인 ‘밤’의 허리를 자른다고 표현한 것에서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임이 없는 밤을 잘라 내고 싶어 하는 화자의 마음에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느낄 수 있다.  
 ② 잘라서 넣어 두었던 동짓달의 긴 밤을 임이 오신 날 펴고 싶다는 것은, 그만큼 임과 함께 오래오래 있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이 투영된 것이다.  
 ③ 임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임이 오는지 보러 가는 화자의 행동에서, 임이 오기도 전에 들뜬 화자의 심정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여 달려가는 화자의 모습을 과장되게 나타내어 임을 조금이라도 빨리 만나고 싶은 화자의 심정을 부각하고 있다.

**06** (나)는 초가에 있는 화자가 ‘달’과 ‘초가’를 바라보는 근경에서, 초가를 둘러싼 ‘강산’을 바라보는 원경으로 시야가 확장되고 있다. 즉,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다)는 시선의 이동이 아니라 화자의 움직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에는 추상적인 시간인 ‘밤’을 잘라 넣어 두었다가 펴겠다는 독특한 발상이 나타나고 있고, (나) 역시 자연물인 ‘강산’을 병풍처럼 둘러 두고 보겠다는 기발한 발상이 나타나고 있다.  
 ② (가)에서는 ‘서리서리’, ‘구뽀구뽀’와 같은 의태어를 사용하고 있고, (다)에서는 ‘곰비곰비 님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과 같은 의태어를 사용하여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④ (가)는 기녀인 황진이의 작품으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주제로 하고, (나)는 양반 사대부인 송순의 작품으로 자연에서 살아가는 즐거움, 즉 안빈낙도(安貧樂道)를 노래하고 있다.  
 ⑤ (나)는 평시조로 초창, 중창, 종창의 기본 형식을 지키고 있는 반면, (다)는 사설시조로 초창과 종창이 두 구 이상 길어진 형태를 보이고 있다.

**07** (가)는 기녀인 황진이의 시조로 섬세하고 우아한 어조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가)는 청자를 어떤 한 사람으로 특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말을 건네는 방식이 아니라 ‘-리라’와 같이 화자의 다짐이 느껴지는 종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② (가)는 임이 없는 ‘동지·소동 기나긴 밤’을 잘라 내어 이불 속에 넣어 두었다가, 임이 오는 밤에 굵이굵이 펴 것이라며 임과 오래 같이 있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③ (나)의 화자가 ‘십 년을 경영’했다는 것에서 화자가 자신의 소망대로 자연 속에서 살기 위해 매우 오랜 시간을 계획했음을 알 수 있다.  
 ④ 화자가 ‘초가삼간’을 지은 곳은 강산이 둘러싸고 있는 곳이므로 화자가 자연 속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자는 자연을 단순히 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물과 방을 한 칸씩 나눠 가지며 살 정도로 자연 속에 동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가)는 ‘황진이’의 시조로 여성 화자의 섬세하고 우아한 표현이 느껴지고, (나)는 ‘송순’의 시조로 자연 속에서 화자가 느끼는 풍류가 나타난다.

**08** 화자가 ‘강산’을 들이지 않는 것은 화자의 초가가 매우 작아 들여놓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강산’ 역시 ‘달’, ‘청풍’과 마찬가지로 화자가 즐기는 자연물이다.

- 오답 풀이** ① 화자가 ‘십 년을 경영하여’ 초가집을 지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② ‘초려삼간’은 세 칸짜리 초가를 이르므로, 아주 소박한 집이며 이는 욕심 없는 청빈한 생활을 보여 준다.  
 ③ 화자는 초가집의 세 칸 중 한 칸은 ‘달’에게 주고, 한 칸은 ‘청풍’에게 준다고 하였으므로 ‘달’과 ‘청풍’은 화자가 함께 지내고 싶은 자연물임을 알 수 있다.  
 ⑤ 화자가 자연물인 ‘강산’을 둘러 두고 보는 것은 강산을 병풍처럼 인식한 것으로 자연과 동화되어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 준다.

**09** ㉠의 ‘즌 덕 모른 덕 굴회지 말고’는 ‘진 데 마른 데 가리지 않고’라는 의미이다. ‘진 데’는 땅이 질척질척한 곳을 이르고, ‘마른 데’는 땅이 젖지 않아 말라 있는 곳을 이른다.

**10** (가)의 화자는 동짓달 긴 밤의 한가운데 시간을 베어 놓았다가 임이 오면 펼쳐 임과 함께 보내겠다고 하였고, (나)의 화자는 임을 기다리다 임과 비슷한 물건을 보고 허겁지겁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다)의 화자는 누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불도에 정진하며 누이와 재회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가)~(다) 모두 대상과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다.

**11** (가)의 화자는 임이 부재한 긴 겨울밤의 시간을 잘라 두었다가 임이 오는 날 밤에 이어 붙이겠다며 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다)의 화자는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서 삶의 무상함과 허망함을 느끼고 있다(㉡).

**12** (나)는 임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사설시조로, 사대부의 정서와 이념이 바탕에 깔려 있지는 않다.

13 (가)는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이 아니라 ‘-리라’와 같이 화자의 다짐을 드러내는 종결 표현을 사용하였고, (나)는 특별한 청자를 설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둘 다 독백적 어조를 활용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14 (가)는 입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고, <보기>는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고자 하는 안빈낙도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는 ‘동지스돌’이라는 표현을 통해 계절적 배경이 겨울임을 알 수 있다.  
 ② <보기>는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시조로, 화자는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가)와 <보기>는 모두 3장, 6구, 4음보를 기본형으로 하는 평시조이다.  
 ④ (가)는 조선 시대의 기생인 ‘황진이’가 지은 시조이고, <보기>는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사대부인 ‘송순’이 지은 시조이다.

15 ‘밤’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하여, 이미지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고 화자의 외로움이 잘 느껴지도록 하였다.

16 (다)는 향가로서 ‘기-서-결’의 3단 구성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을 뿐, 민요조의 전통 율격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① 1~4구는 ‘기’, 5~8구는 ‘서’, 9~10구는 ‘결’로 볼 수 있다.  
 ② ‘누이’를 ‘앞’에, ‘한 부모’를 ‘한 가지’에 비유하여 누이의 이른 죽음을 추모하는 애뜻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④ ‘나는 간다는 말도 /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에서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누이의 죽음을 맞이한 화자의 괴로운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⑤ ‘아아’라는 감탄사를 활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17 **서술형** (다)의 시적 화자는 ‘기(1구~4구)’에서는 누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서(5구~8구)’에서는 누이의 죽음에서 삶의 무상함을 느끼고 있으며, ‘결(9구~10구)’에서는 불도(佛道)를 닦으며 서방 정토에서 누이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누이와 재회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불도에 정진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18 (나)에서 화자는 입을 그리워하며 입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정옛말’은 입과의 회포를 푸는 말이 적절하다.

01 (가)에서는 동짓날 밤 입의 부재에 따른 화자의 외로움이 나타나고, (나)에서는 입을 애타게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다)에서는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화자의 애뜻한 정서가 나타난다.

- 오답 풀이** ① 이상 세계는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세계를 이른다. (다)에서는 ‘미타찰’이라는 공간을 이상 세계라고 할 수 있지만, (가)와 (나)에는 이러한 공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자연 친화적인 자세는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을 이른다. (가)~(다) 모두 자연을 즐기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③ (가)~(다)의 화자는 모두 현재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나 안타까움 등을 노래하고 있다.  
 ④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모습은 (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와 (나)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02 (나)에 나타난 ‘놈’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화자가 만일 남이 보았으면 민망했을 텐데 밤이라서 다행히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할 때 쓰인 표현일 뿐이다.

- 오답 풀이** ① 추상적인 시간인 ‘밤’은 자를 수 없는 추상적 대상이지만 한 가운데를 자를 수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② (나)에서 화자가 입으로 착각한 대상은 사실은 ‘주추리 삼대’인데, 화자는 오히려 ‘주추리 삼대’가 자신을 속였다고 하고 있다.  
 ④ ‘예’는 화자가 있는 곳이자,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이승을 가리킨다.  
 ⑤ ‘떨어질 앞’은 죽은 누이를 비유하는 시어이다. 이를 통해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3 (가)는 평시조, (나)는 사설시조, (다)는 향가이다. 집단적이고 서사적인 성격의 시가는 고대 가요로, (가)~(다)와 같은 갈래는 고대 가요와 달리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작품이 많다. 고대 가요는 고대 부족 국가 시대에서 삼국 시대 초기까지 불린 노래를 일컫는다. 고대 가요에는 ‘구지가’, ‘황조가’, ‘공무도하가’ 같은 작품이 있다.

04 초장과 중장에서는 입이 온다는 소식에 화자가 중문과 대문을 지나 건너편 산으로 정신없이 달려가는 모습이 해학적으로 그려지면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당시 평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05 <보기>에는 ‘성안에 담 → 담 안에 집 → 집 안에 두지 → 두지 안에 께’와 같이 입을 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연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나)에는 입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등장하지 않으며 ‘주추리 삼대’도 화자가 임인 줄로 착각한 대상일 뿐이다.

- 오답 풀이** ① (나)의 중장에서는 입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얹치락뒤치락 허둥지둥 달려가는 화자의 모습을 과장하여 표현함으로써 웃음을 주고 있다. <보기>에서도 입이 오지 못하는 이유를 과장되게 설정하여 웃음을 주고 있다.  
 ③ <보기>의 화자는 한 해 열두 달 한 달 서른 날이라는 수많은 날 중에서 자신을 보러 올 하루도 없느냐며 입을 책망하고 있다.

##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106~107쪽

- 01 ⑤    02 ③    03 ①    04 ⑤    05 ②    06 ④  
 07 ㉠은 화자와 입이 재회하는 시간이고, ㉡은 화자가 죽은 누이와 재회할 수 있는 공간이다.    08 ③

④ <보기>에서는 '성 안에 담 → 담 안에 집 → 집 안에 두지 → 두지 안에 궤 → 궤 안에 너'처럼 연결되는 연쇄법과 과장법, 또한 크고 높고 강한 것에서부터 점차 작고 낮고 약한 것으로 끌어 내려 표현함으로써 강조의 효과를 얻는 점강법이 사용되었다.

⑤ (나)에 사용된 '워령충창'은 '우당탕탕탕'이라는 의성어로, 잘 울리는 바닥에 무엇이 몹시 요란스럽게 떨어지거나 부딪치거나 뛰는 소리를 나타낸다.

**06** [D]는 한 부모에게서 나왔지만 누이가 죽어서 삶의 무상함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 부분이다. 또한 <보기>에서 월명사는 누이가 무사히 극락세계로 갔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A]는 삶과 죽음의 길이 이승에 있다는 말로 누이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② [B]에서 '나'는 누이로 [B]는 누이의 죽음을 의미한다. 또한 '몰다 이르'고'에서 누이의 죽음이 갑작스러운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C]의 '이른 바람'은 누이의 죽음이 요절임을 알려 준다. [C]는 누이를 '떨어질 앞'에 비유하여, 요절한 누이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E]의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에는 누이를 잃은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

**【참고 자료】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 해제: '죽은 누이를 위해 제사를 지내며 부르는 노래'라는 뜻으로, 승려였던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49재를 지내던 중 이 향가를 지어서 불렀다고 한다. 가장 정제된 형태의 향가로, 불교의 윤회 사상이 드러난다.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주제: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와 슬픔의 종교적 승화

**07 서술형** ㉠은 화자가 기다리던 임이 오는 시간으로 화자와 임이 재회할 수 있는 시간이다. 화자는 이 시간이 오면 이불 아래 넣어 둔 '밤'을 여러 굵이로 찢 놓는다고 하였다. ㉡은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중에서 아미타불이 다스리는 서방 정토를 가리키는데, 화자와 죽은 누이가 재회하고자 하는 공간이다.

| 평가 기준                   | 확인 ☑                     |
|-------------------------|--------------------------|
| 대상과의 '재회'라는 공통점을 밝혀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제시된 형식에 맞게 썼다.          | <input type="checkbox"/> |

**08** (나)는 ㉢에서 시상이 전환되어 앞부분의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남이 보지 않아 다행이라고 하고 있고, (다)는 ㉣에서 시상이 전환되어 누이의 죽음으로 심화된 고뇌와 슬픔을 종교적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는 글자 수가 고정되어 있지만, ㉣는 글자 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② ㉢는 '마침'이라는 부사어로, 종장 전체를 꾸며 주기는 하지만 주제를 집약한다고 보기 어렵다. ㉣ 역시 감탄사로 주제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④ ㉢는 앞에서 심화되었던 고뇌와 슬픔의 탄식이 집약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나, ㉣는 특별히 화자의 정서가 고조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와 ㉣는 둘 다 화자가 독백체로 하는 말로 특정한 청자나 독자를 부르는 말이 아니다.

## (2) 속미인곡 / 진달래꽃

### 교과서 꼼꼼히 이해하기

|        |      |      |      |                                      |
|--------|------|------|------|--------------------------------------|
| ① 111쪽 | 01 ① | 02 ② | 03 ④ | 04 ④                                 |
| ② 113쪽 | 05 ⑤ | 06 ④ | 07 ④ | 08 ㉠은 소극적 사랑을 의미하고, ㉡은 적극적 사랑을 의미한다. |
| ③ 115쪽 | 09 ① | 10 ② | 11 ① | 12 ④                                 |

**01** 「속미인곡」의 갈래는 가사이다. 가사는 '서사-본사-결사'의 삼단 구성으로, 3·4(4·4)조, 4음보의 연속체로 이루어진다. 정격 가사의 경우 마지막 행은 평시조의 종장과 글자 수가 같은 경우가 많으며, 조선 후기에는 마지막 행이 평시조의 종장과 일치하지 않고 길이가 길어진 변격 가사가 많이 창작되었다.

**오답 풀이** ② 3단 구성으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표기한 향찰로 기록된 것은 향가이다.

③ 3장 6구 4음보의 율격을 기본형으로 하며, 종장의 첫 구절이 3음절인 것은 시조이다.

④ 몇 개의 절 또는 연으로 나뉘는 분절체로, 3음보의 율격에 후렴구가 있는 것은 고려 가요이다.

⑤ 자연 발생하여 전해지는 구전 가요로 대개 후렴구가 있고 3음보 또는 4음보인 것은 민요이다.

**02** 계절에 따른 사상의 전개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정서 및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본사'에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가 드러나긴 하지만 이는 실제로 계절이 변한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임이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화자의 걱정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속미인곡」의 갈래는 가사로 4음보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속미인곡」은 '여인 1'과 '여인 2' 두 화자의 대화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④ 「속미인곡」은 김만중이 「서포만필」에서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참 문장은 이 세 편(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뿐이다.'라고 하였고, 그중에서 대부분 우리말로 표현된 「속미인곡」의 수준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

⑤ 「속미인곡」은 여성 화자를 내세워 이별의 정한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3** [D]는 화자가 임과의 이별은 이미 조물주에 의해 정해진 운명이라며 체념하고 있는 부분이다. 화자가 [C]에서 이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고, [D]의 첫부분에서도 하늘이나 사람을 탓할 수 없다고 한 부분에서도 ④의 설명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여인 1'이 '데 가는 데 각시 본 듯도 혼대이고'라고 말하자 [B]에서 '여인 2'가 '어와 네여이고'라고 답하는 것을 통해 '여인 1'은 '여인 2'와 서로 알던 사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A]에서 어찌 백옥경을 이별하고 누구를 보러 가느냐고 묻는 것을 통해 '여인 1'이 '여인 2'에게 임과 이별한 이유를 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B]에서 '여인 2'는 '소설 드러 보오'라고 말함으로써 하소연을 시작하고 있으며,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과안죽 훈가마는'이라고 하여 임의 사랑이 과분함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C]에서 '여인 2'는 '내 몸의 지은 죄 뉘기 빠하시니'라고 하여 임과 이별한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자책하고 있다.

⑤ [E]에서 '여인 2'는 임이 '편후실 적 몇 날일고'라고 하며 '춘하고열(春寒苦熱)'과 '추일동턴(秋日冬天)'을 어떻게 지내는지, '죽조반(粥早飯) 조석(朝夕) 뉘'와 '기나긴 밤의 중'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04** ㉠은 '여인 2'가 이별의 이유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자책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신의 죄가 산같이 쌓였다며 직유법과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자연물인 강물이 말이 없다고 표현하였으므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② 어린이를 어른의 스승이라고 한 것은 얼핏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나 그 안에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③ '잘 되면 제 탓'과 '못 되면 조상 탓'이 형식적으로 대구를 이루고 있고, 내용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⑤ 지각을 했다는 사실을 비꼬는 표현으로,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법이 사용되었다.

**05** 「속미인곡」은 '여인 1'과 '여인 2'가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여인 1'은 '여인 2'에게 질문과 위로를 하며 작품의 전개를 유도하는 보조적 화자이며, '여인 2'는 '여인 1'의 질문에 응하여 작품의 주제를 구현하는 중심 화자이다. 따라서 '여인 2'가 작가인 정철을 대변하는 인물이라면, '여인 1'은 작가인 정철에게 질문이나 위로를 하며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물이다. '여인 1'과 중심 화자인 '여인 2'는 둘 다 작가인 정철의 분신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화자와 이별한 '임'이 임금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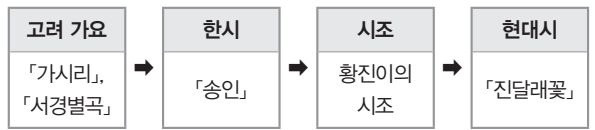
**06** 여성 화자를 설정하면 정서를 더욱 섬세하고 간절하게 드러낼 수 있는데, 이 작품 역시 여성 화자를 설정하여 임에게서 멀어진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절절한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속미인곡」은 대부분 우리말로 표현하여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 주고 있지만, 여성 화자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②, ⑤ 주로 강한 어조로 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판이나 그에 대한 극복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여성적 어조보다는 남성적 어조를 통해서이다.

③ 여성 화자를 설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여러 명의 화자를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여성 화자라도 「속미인곡」처럼 두 명의 화자를 설정하여 대화체로 구성할 수도 있지만, 「진달래꽃」이나 「가시리」처럼 독백체로 구성할 수도 있다.

#### 【참고 자료】 전통 시가와와의 관련성



「진달래꽃」은 이별의 슬픔을 인고의 의지로 극복해 내는 여성 화자를 설정하여 이별의 정한이라는 문학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07**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정서를 객관화하거나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대상을 의미한다. 화자는 임에게로 가고자 노력하지만 방해되는 요인으로 인해 가지 못하고 쓸쓸하게 남아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빈 비'로, 임이 없는 쓸쓸한 마음을 '반벽청등'으로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08 서술형** ㉠ '낙월'은 임을 멀리서 비출 뿐이지만, ㉡ '구준비'는 오래도록 내리며 직접 임의 옷을 적실 수 있다. 따라서 ㉠ '낙월'보다 ㉡ '구준비'가 더 적극적인 애정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소극적 애정관과 적극적 애정관의 비교가 잘 드러나게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제시된 형식에 맞게 썼다.                   | <input type="checkbox"/>               |

**09** 이 시에서는 진달래꽃에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진달래꽃을 의인화하지 않았으며, 다른 시어에서도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② 종결 어미 '-우리다'를 반복하여 음악적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③ '나 보기가 / 역겨워 / 가실 때에는'과 같이 3음보의 민요조 율격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④ 1연의 내용을 4연에서 변용하여 다시 제시하는 수미 상관의 구조를 취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⑤ 이 시에서는 붉고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지닌 '진달래꽃'을 통해 이별의 정한이라는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0** 「진달래꽃」은 임이 가시는 길에 뿌려져 임에게 밝히는 화자의 분신으로,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과 희생적 사랑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이 시는 진달래꽃의 붉고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임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11** 공감각적 심상은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바뀌는 것으로, 하나의 대상에서 두 개 이상의 감각을 동시에 느끼는 것이다. 이 시는 2연에서 진달래꽃의 붉고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2** 「산화공덕(散花功德)」은 불교 용어로 부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꽃을 뿌려 그 길을 영화롭게 축복한다는 뜻이다. ㉠ 역시 임이 가시는 길에 진달래꽃을 뿌려 그 길을 축원한다는 뜻이지, 임과의 이별을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다.



- 01 ㉔      02 ㉔    03 ㉔      04 ㉔  
 05 ㉔      06 ㉔      07 ㉔      08 ㉔      09 ㉔      10 ㉔  
 11 ㉔      12 진달래꽃, ㉔는 '권 씨'의 분신으로 '권 씨'를 상징한다. '진달래꽃' 역시 화자의 분신으로 화자를 상징하는 시어이다.      13 ㉔  
 14 ㉔      15 ㉔      16 ㉔      17 ㉔      18 ㉔      19 ㉔  
 20 '낙월'은 '지는 달'로, 임이 계신 곳을 멀리서 잠깐만 비출 수 있는 반면 '구준비'는 '어두침침하게 오랫동안 내리는 비'로, 임을 적실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임 가까이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1 ㉔

01 역설적 표현은 이치에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진술을 통해 진실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 시가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역설적 표현의 예로는 '아아, 님은 갓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 하였습니다'와 같은 표현을 들 수 있다.

○답 풀이 ① 가사는 보통 '서사-본사-결사'의 삼단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이 가사 역시 (가)~(나)는 서사, (다)~(마)는 본사, (바)는 결사로 이루어져 있다.

② 이 가사는 보조적 화자인 '여인 1'과 중심 화자인 '여인 2'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화자가 임과 헤어진 이유를 나타내는 (나)에서 과거에 화자가 임의 사랑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⑤ 마지막 구(낙구의) 글자 수는 평시조의 글자 수와 유사하게 배열되어 있다.

02 (마)에서 '꿈'은 화자가 꿈속에서라도 임을 만나게 해 주는 매개체로 기능한다. '오던된 계성'은 날이 샐 무렵에 우는 닭의 소리 혹은 방정맞은 닭 울음소리로 해석하는데, 화자의 잠을 깨워 꿈속에서조차 임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로 기능한다.

03 '지는 죄'는 화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임과 이별했다며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기>에서 '선조'는 '정철'의 말이 곧고 바르기 때문에 동인의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두둔하였다. '선조'가 '정철'의 바른 말 때문에 정철을 미워한 것이 아니다.

○답 풀이 ① '네로다 녀기실시'는 '네로다 여기심에'라는 의미이므로, 앞의 내용인 '임이 사랑함직 한가마는'과 <보기>의 내용을 볼 때, '정철'이 '선조'의 사랑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③ '임'은 임금, 즉 '선조'를 가리키고, '각시'인 화자는 '정철' 자신을 가리킨다.

④ '구름'과 '안개'는 화자가 '일월'을 볼 수 없게 하는 존재이므로, '정철'을 비판하는 동인으로 볼 수 있다. '일월'은 임금, 즉 '선조'를 가리킨다.

⑤ '벽옥경'은 임금이 계신 곳인 한양을 가리킨다. 화자가 '벽옥경'과 이별하였다고 했으므로, '정철'이 탄핵을 받아 한양에서 떠났음을 알 수 있다.

04 (라)에서 임을 보기 위해 '높은 뒀'에 올라갔다가 '물 7'에 갔다가 하는 등 바쁘게 돌아다녔던 화자는 (마)에서 지쳐서 잠깐 쉼잠을 들게 되고, 꿈속에서 임을 만나게 된다.

○답 풀이 ① (가)에서 '여인 1'이 이별한 이유를 묻자, (나)에서 '여인 2'가 자신이 지은 죄가 많으며 자책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조물주의 탓이라며 이별을 운명으로 돌리고 있다.

② (다)에서는 '여인 2'가 임이 봄추위 여름 더위를 어떻게 지내며, 가을철 겨울철은 누가 모셨는지를 들며 임을 걱정하고 있다.

③ (라)에서 화자는 임의 소식이라도 알기 위해 '높은 뒀'에 올라가기도 하고, 뱃길을 알아 보려 '물 7'에 가기도 하나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

⑤ (바)에서 '여인 2'가 죽어서 '낙월'이라도 되어 임 계신 곳을 비추고 싶다고 하자, '여인 1'은 '구준비'가 되라며 조언하고 있다.

05 「속미인곡」과 「사미인곡」은 모두 여성 화자를 설정하여 임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절절하게 노래하고 있다. 「사미인곡」은 여인의 독백체로 작품을 전개하고 있고, 이후에 창작된 「속미인곡」은 보조적 인물을 설정하여 대화체로 전개하고 있다.

#### 【참고 자료】 정철, 「사미인곡(思美人曲)」

- 해제: 임과 헤어진 여성을 화자로 설정하여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한 가사이다. 벼슬에서 물러난 정철이 임금에 대한 충절을 노래한 충신연주지사로, 우리말 구사가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주제: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연군지정)

06 ㉔은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서성대니'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바쁘게 임의 소식을 들으러 돌아다니던 화자는 힘이 다해 쫓잡을 자게 된다.

07 ㉔ '낙월'은 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겠다는 화자의 간절한 사랑을 나타내지만 멀리서 임을 바라보기만 한다는 점에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표현이다. ㉔ '구준비'는 임의 옷을 적시며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임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답 풀이 ① ㉔와 ㉔는 둘 다 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소재이므로,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② ㉔와 ㉔ 둘 다 죽어서라도 임을 만나고 싶은 소망이 담긴 소재로 희생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어느 쪽이 더 잘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③ ㉔는 멀리서 임을 바라보는 대상이며 ㉔는 임의 옷을 적시며 가까이 갈 수 있는 대상이다.

④ ㉔와 ㉔는 둘 다 화자가 죽어서 된 대상으로 임을 직접 찾아가는 소재이므로, 임을 기다리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한 소재로 보기 어렵다.

08 (가)의 3연에서는 임을 붙잡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고 이별을 체념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나)의 1연에서는 임과의 이별을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답 풀이 ② (가)는 '가시리 가시리'와 같은 시어의 반복, 여음 '나눈'의 반복, 후렴구 '위 증증가 대평성다'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나)는 각 연의 끝에서 '~우리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

③ (가)와 (나)는 둘 다 여성 화자라는 한국 문학의 전통을 잇고 있는 작품이다.

④ (가)는 이별의 정한을 간결하고 솔직한 어조로 노래하고 있고, (나)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여 이별에 대처하는 화자의 자세를 노래하고 있다.

⑤ (가)는 '가시리/가시리/잇고'처럼 3·3·2조의 3음보이고, (나)는 '나 보기/가/역겨워/가실 때에는'처럼 7·5조, 3음보의 율격을 보이고 있다.

09 (가)와 (나)의 화자는 둘 다 이별을 담담한 자세로 수용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10 고려 가요는 고려 시대에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적 시가로, 일부 작품은 궁중 음악의 가사로 수용되기도 하였다. 즉 일반 평민 계층이 주 창작층이었으므로 실제 작자를 알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고려 가요는 소박하고 일상적인 시어를 통해 평민들의 소박한 삶과 꾸밈없는 생활 감정을 드러낸 것이 특징이다.

③ 고려 가요는 3음보의 분언체로 되어 있으며 후렴구를 사용하여 음악적 경쾌함을 살렸다.

④ 고려 가요는 문자를 모르던 일반 평민들이 주 창작층이었기 때문에 구전되어 전해지다가, 조선 시대에 이르러 한글 창제 이후 한글로 기록되어 정착되었다.

⑤ 고려 가요는 평민들이 주 창작층으로 이들이 담아내는 정서는 주로 남녀 간의 사랑, 자연에 대한 예찬, 이별의 아쉬움, 삶의 애환 등 일상적이고 소박한 삶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그러다 보니 한글로 정착될 때 당시 지배층이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라고 하여 고려 가요의 내용을 개작하거나 삭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11 의성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로, ‘땡땡’, ‘우당탕’ 같은 말을 가리킨다. ‘걸음걸음’은 ‘걸음을 걸을 적마다’를 나타내는 부사로 소리를 흉내 낸 말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작품에는 의성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1, 3, 4연의 1행은 7글자, 2행은 5글자, 3행은 7글자와 5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7·5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1연은 ‘드리우리다’, 2연은 ‘뿌리우리다’, 4연은 ‘흘리우리다’로 ‘~우리다’가 반복되고 있다.

③ 1연을 4연에서 변형하여 반복하고 있어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영변에 약산’이라는 구체적 지명을 통해 향토적 정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2 서술형 <보기>를 통해 ‘권 씨’가 구두를 매우 소중히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중 ‘권 씨’가 신고 나간 한 켤레의 구두는 ‘권 씨’를 상징한다. ‘진달래꽃’ 역시 화자가 임을 축복하기 위해 뿌려준 것으로 화자를 상징한다.

| 평가 기준                       | 확인 ✓                     |
|-----------------------------|--------------------------|
| (나)에서 ‘진달래꽃’을 찾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와 ‘진달래꽃’의 상징적 의미를 적절하게 썼다. | <input type="checkbox"/> |

13 ‘진달래꽃’에는 떠나려는 임과 떠나 보내지 않으려는 화자의 갈등이 드러난다. 화자는 표면적으로는 임을 잡지 못하고 이별의 슬픔을 참고 견디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임을 붙잡고 싶으며 임이 제발 자신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는 반어적 표현으로 이별에 대한 슬픔과 이를 참겠다는 감정이 모두 담긴 것으로 이 감정이 갈등을 일으킬 때 한(恨)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자신을 떠나려는 임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임에 대한 원망과 자책이 충돌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② 화자는 이별의 상황에서 체념적 태도를 보이므로 체념하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 미련을 버렸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꽃을 뿌리는 행위는 임에 대한 축복일 뿐, 원망의 감정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라는 것은 자기희생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몰라주는 임과의 갈등은 시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14 ㉠은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후렴구로 ‘위’는 감탄사, ‘중즐가’는 악기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이다. 뜻이 없으므로 빠져도 시상 전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후렴구가 작품의 분위기에 맞지 않는 것은, 고려 가요가 민요로 불리다가 나중에 궁중 음악으로 수용되면서 첨가된 것으로 추측하는 근거가 된다.

**오답 풀이** ② 화자는 떠나는 임을 잡으면 다시는 임이 돌아오지 않을까 봐 걱정되어 붙잡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임에 대한 감정을 절제하고 체념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③ ‘설은 남’의 주체를 임으로 보면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이 되어, 임 역시 이별을 슬퍼하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주체를 화자로 보면 ‘화자를 서럽게 하는 임’이 되어, 임이 화자를 떠난 상황으로 해석된다.

④ 화자는 임과 이별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데, 화자가 추측하는 이별의 이유로 제시한 것이다.

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는 ‘아니’와 ‘눈물’의 어순을 바꾸어 의지를 강조하는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15 「속미인곡」은 한자어보다는 우리말을 주로 사용하였다. 소박하고 진솔한 표현으로 우리말 표현의 아름다움을 잘 살리고 있는 작품이다.

16 이 시가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두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가에 시상 전개의 반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사람이라 허물후라’, ‘천 리(千里)를 바라보라’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② ‘춘한고열(春寒苦熱)은 ~되섯노고’, ‘산천(山川)이 ~바라보라’ 등에서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이별한 임을 걱정하고, 임과의 사이를 가로막힌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④ ‘내 몸의 지은 죄 뉘기 빠혀시니’ 등에서 비유와 과장을 사용하여 화자의 상황과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⑤ (라)에서 ‘놈은 뉘히 올라가니’, ‘물 7의 가’, ‘모첨(茅簷) 촌 자리의’ 등에서 공간의 이동을 활용하여 이별의 상황에서 임과의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17 이 시가는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로, ‘임금-신하’의 사회적 관계인 ‘충(忠)’을 ‘남성-여성’의 개인적 관계인 ‘그리움’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하면 이별의 안타까움을 한층 애절하고 절실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참고 자료] 여성 화자와 이별의 정서에 대한 전통적 계승

우리의 전통 문학 작품에서는 임에 대한 정서를 좀 더 간절하고 섬세하게 표현하기 위해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양상은 「사미인곡」, 「속미인곡」을 거쳐 한용운, 김소월의 작품으로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 <보기>를 통해 정철이 동인의 비판 대상이었음에도, 선조는 정철을 충성스러운 신하로 여겨 그가 말을 너무 곧고 바르게 하기 때문에 남에게 미움을 받는다며 두둔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님’이 ‘반기시는 노비치 네와’ 다른 것을 정철이 남에게 너무 곧고 바른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9** (바)에서 ‘여인 2’는 ‘여인 1’에게 자신이 ‘낙월’이 되어 임이 계신 창 안을 환하게 비추겠다고 말할 뿐, 자신의 사랑을 임에게 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엇디후야 니별후고’를 통해 ‘여인 1’이 ‘여인 2’에게 임과 이별한 이유를 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내 몸의 지은 죄’, ‘하눌히라 원망후며’, ‘설워 풀터헤니 조물의 타시로다’ 등에서 ‘여인 2’가 자신의 잘못과 조물주 때문에 임과 이별하게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글란 싱각 마오’에서 ‘여인 1’이 ‘내 몸의 지은 죄’라고 하며 자책하는 ‘여인 2’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님 다히 소식이 더욱 아득한데이고’, ‘썸의 님을 보니’, ‘썸은 엇디 끼듯 던고’ 등에서 ‘여인 2’가 임의 소식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 서술형** ‘여인 1’은 ‘구준비’가 ‘낙월’보다 더 오래 더 가까운 곳에서 임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인 2’에게 ‘구준비’가 되었다고 말한 것이다.

| 평가 기준                     | 확인 ☑                     |
|---------------------------|--------------------------|
| ‘낙월’과 ‘구준비’의 속성을 비교하여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완성된 문장으로 썼다.              | <input type="checkbox"/> |

**21** 화자는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 물가에 가 보았지만, 바람과 물결이 어수선하고 사공도 없이 빈 배만 놓인 것을 보고 허탈함과 좌절감을 느낀다. 따라서 ‘빈 배’는 임과 이별한 화자의 쓸쓸함과 외로움을 부각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다.

####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122~123쪽

**01** ③      **02** (가)와 (나)는 여성 화자를 설정하여 이별의 정한이라는 주제를 나타낸다.      **03** ⑤      **04** ①      **05** ④      **06** ③

**01** 수미 상관은 시가의 첫 연의 내용을 마지막 연에서 반복하는 것으로 (나)는 1연의 내용을 4연에서 반복하여 시에 안정감을 주고 음악성을 형성하고 있으나, (가)에는 이러한 방식이 쓰이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가)는 가사로 4음보 연속체로 운율을 형성하고, (나)는 3음보의 민요조 율격으로 운율을 형성한다.

② (가)는 두 화자의 대화를 통해 ‘여인 2’의 처지를 드러내고, (나)는 독백체로 시적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다.

④ (나)에서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에 반어법이 사용되어 이별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가)에는 반어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⑤ (가)에서는 ‘낙월’과 ‘구준비’가 화자 ‘여인 2’의 분신이라 할 수 있으며, (나)에서는 ‘진달래꽃’이 화자의 분신이라 할 수 있다.

**02 서술형** (가)와 (나)는 둘 다 실제 작가는 남성이지만 여성 화자를 설정하여 임과의 이별에서 느껴지는 애절한 정서를 절절하게 그려 내고 있다.

| 평가 기준                 | 확인 ☑                     |
|-----------------------|--------------------------|
| 여성 화자라는 공통점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이별의 정한이라는 주제를 바르게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제시된 형식에 맞게 썼다.        | <input type="checkbox"/> |

**03** ‘어엿은 그림재’만 화자를 쫓는 것은 임과 이별한 화자의 처지가 옛날과 달라져 외로운 신체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임금의 은혜가 신하가 머물러 있는 곳까지 미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임의 ‘춘한고열(春寒苦熱)’과 ‘추일동턴(秋日冬天)’을 염려하고 있다. 화자와 임의 관계를 신하와 임금의 관계로 본다면 이는 임금에 대한 신하의 걱정과 그리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화자가 ‘님 다히 소식(消息)’을 알기 위해 ‘놓픈 뒀’과 ‘물?’을 헤매는 것을 신하와 임금의 관계로 볼 때, 신하가 임금의 소식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임금의 부름을 기다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화자는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 ‘놓픈 뒀’에 올라가나 구름과 안개로 인해 ‘일월(日月)’을 보지 못함을 안타까워한다. 이를 신하와 임금의 관계로 볼 때 ‘일월’은 임금임을 알 수 있고, 지상의 공간에는 신하가, 천상의 공간에는 임금이 있는 것이므로 군신의 수직적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독수공방하는 시적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는 임금과 이별하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신하를 임과 이별하고 독수공방하고 있는 여인으로 바꾸어 표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04** ㉠은 꿈속에서나마 임과 만나고 있는 화자를 깨움으로써 임과 화자의 만남을 방해하는 소재이다. ㉡와 ㉢는 ‘놓픈 뒀’에 올라간 화자가 ‘일월’ 즉, 임금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소재이고, ㉣와 ㉤는 화자가 강가에 가서 뱃길을 보려 해도 이를 방해하는 소재이다.

**오답 풀이** ㉡, ㉠ ‘낙월’과 ‘구준비’는 둘 다 화자가 죽어서라도 되고 싶은 대상으로, 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낙월’이 멀리서 바라보는 소극적인 대상이라면, ‘구준비’는 직접적으로 임의 옷깃을 적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상이다.

**05** (나)에서 슬픔의 주체는 화자 자신이다. 화자가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임에게 자신이 뿌린 진달래꽃을 밟으며 가 달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시에 나타난 상황만으로 임이 이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나 보기가 역겨워’는 화자가 추측하고 있는 이별의 원인이며, 가시는 것의 주체는 임이므로 이 시구는 화자의 슬픔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② 화자는 임과의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이별을 순수히 받아들이는 체념의 정서라고 할 수 있다.

③ 꽃을 뿌리는 것은 ‘산화공덕(散花功德)’ 사상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는 가시는 임을 축복하겠다는 의미이다. 임과의 이별로 슬프지만 자신의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기보다는 임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다.

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겠다는 것은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것으로, 슬픔을 참고 견디겠다는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자가 <보기>에서 말하는 슬픔을 내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6** <보기>의 '서경별곡'은 이별의 정한을 주제로 하는 고려 가요이다. (나)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에 대해 인고(忍苦)의 자세를 드러내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반해 <보기>의 화자는 서경을 사랑하지만 임께서 사랑만 해 주신다면 길쌈 배를 버리고라도 임을 따르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보기>의 '질삼비'를 통해 여성 화자임을 알 수 있으며, 떠나간 임을 따르겠다는 태도 역시 여성 화자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나) 역시 임과의 이별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전통적인 여성 화자의 모습인 점을 통해 (나)와 <보기>의 화자는 모두 여성임을 알 수 있다.
- ② 음악성이 있는 후렴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나)가 아니라 <보기>이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리리'는 악기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로 'ㄹ', 'ㅇ'음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보기>에서는 '서경(西京)'이라는 지명을 밝히고 있고, (나)에서는 '영변(寧邊)에 약산(藥山)'이라는 지명을 밝혀 향토적 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에서는 '가실 때에는'이라고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여 말하고 있으나, <보기>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 않다.

**[참고 자료] 작가 미상, 「서경별곡(西京別曲)」**

- 해제: '서경'은 고려 시대 때 지명이고, '별곡'은 보통 한글로 기록된 고려 가요를 일컫는 말이다. 이 작품은 이별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여인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 주제: 이별의 정한
- <보기> 부분의 현대어 풀이:  
서경이 서울이지마는 / 님은 데 작은 서울 사랑할 만도 하지만 / 여의 기보다는 길쌈 배 버리고 / 사랑하신다면 울어곰 쫓아옵니다.

### (3) 허생전

#### 교과서 꼼꼼히 이해하기

|        |      |        |                                                                                     |
|--------|------|--------|-------------------------------------------------------------------------------------|
| ① 127쪽 | 01 ④ | 02 ①   | 03 ④                                                                                |
| ② 129쪽 | 04 ③ | 05 ⑤   | 06 빈 섹                                                                              |
| ③ 131쪽 | 07 ④ | 08 ④   | 09 ④                                                                                |
| ④ 133쪽 | 10 ④ | 11 ④   | 12 ⑤                                                                                |
| ⑤ 135쪽 | 13 ④ | 14 이중적 | 15 ③                                                                                |
| ⑥ 137쪽 | 16 ② | 17 ⑤   |                                                                                     |
| ⑦ 139쪽 | 18 ④ | 19 ⑤   | 20 '허생'의 이인다운 면모가 부각된다. / 여운을 남기고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 '허생'의 주장이 당시에 수용되기 어려운 것임을 암시한다. |

**01** '변 씨'는 만 냥을 빌려 달라는 '허생'의 당당한 태도에 당장 만 냥을 내준다. 그리고 '변 씨'의 자제와 손들의 말을 통해, '변 씨'가 하루아침에, 평생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허생'에게 이름도 묻지 않고 만 냥을 빌려주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허생의 처'가 '허생'에게 '변 씨'를 소개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허생'은 과거를 보기 위해 글을 읽은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자책하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다.
- ③ '변 씨'는 '허생'의 초라한 행색에 놀라지 않은 채 대범하게 돈을 빌려준다.
- ⑤ '허생'과 '허생의 처'의 대화를 통해 '허생'이 장인바치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본래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고, 장사를 하지 않는 것은 밀천이 없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허생'이 사대부의 신분에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허생'은 십 년을 기약하고 과거에도 뜻을 두지 않고 독서를 하며 독서 자체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 독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허생의 처'는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지 않으니, 글을 읽어 무엇합니까?"라고 하며, 뒤이어 장인바치 일과 장사는 하지 못하냐고 묻고 있으므로, 글 읽기는 실생활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허생'은 십 년을 목표로 글 읽기를 하다 '허생의 처'의 구박에 못 이겨 칠 년 만에 운중가로 나선다. 즉 그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 알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㉔을 통해 '허생'이 사교성이 없어 평소 주변 사람과의 교류를 꺼려 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허생'은 처음 보는 사람인 '변 씨'에게도 당당한 모습으로 돈을 빌리는 대범한 인물이다.

- 오답 풀이** ① '허생'은 독서를 하지만 과거를 보지 않고, 경제 활동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허생의 처'가 바느질품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 ②, ③ '허생의 처'가 몹시 배가 고파서 울음 섞인 소리로 '허생'에게 '과거'를 보든가, '장인바치 일'을 하든가, '장사'를 하든가 심지어 '도둑질'까지 하라고 구박하는 것을 통해 '허생의 처'가 양반의 경제적 무능을 비판하는 실용적 사고를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허생'에 대한 비난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⑤ '변 씨'에게 돈을 빌리러 간 '허생'의 외양만 보고 '변 씨'의 자제와 손들은 '거지'라고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허생'은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04** '전개 1-㉔'은 '허생'이 '변 씨'로부터 빌린 돈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하여 큰돈을 버는 장면이다. '허생'의 매점매석으로 조선의 전반적인 경제 구조가 취약하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과일과 말총이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허생'이 만 냥으로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통해 당시 조선 경제의 취약성이 드러난다.
- ② '허생'이 과일을 뽕땅 사들인 후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상인은 도리어 열 배의 값을 주고 과일을 사가게 된다. 이를 통해 사대부들이 제사와 같은 의례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④ 과일과 말총은 제사를 지내고 의복을 갖춰 입을 때 꼭 필요한 양반들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허생'이 매점매석한 것이다.

⑤ '허생'이 매점매석한 '과일'과 '말총'이 다시 유통되지 못하고 가격이 열 배로 오르는 것을 통해 교통 여건이 열악하여 물건을 다시 조달하여 집결 할 수 없는 유통 구조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참고 자료】 '허생'이 독점한 과일과 말총의 의미

'허생'이 시장에서 굳이 과일과 말총을 사들인 것은 조선이 양반 사회였던 것과 관련이 있다. 지배층으로 행사하는 양반에게는 명예를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했다. 명예를 지키고 체면을 차리기 위해선 제사를 지내고 손님에게 번듯한 상차림으로 접대를 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과일이 올라가야 했다. 또 양반은 의복을 제대로 갖춰 입어야 하는데 머리에 망건을 두르고, 망건 위에 탕건을 쓰고, 그 위에 갓을 써야 했다. 망건, 탕건, 갓의 주 재료가 말총이다. 결국 과일과 말총은 조선 시대 양반들의 필수품이라 할 수 있다. '허생'이 이러한 물건들을 매점매석하는 모습을 통해 작가는 양반의 허례허식을 비판하고 있다.

05 '만 냥'은 '허생'이 '변 씨'에게 빌린 돈으로, '허생'의 장사 밑천(①)이자 사건을 전개하는 매개체(②)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만 냥'으로 쉽게 큰돈을 벌었으므로 이는 '허생'이 이인(異人)임을 드러내면서도(③) 조선 경제의 취약함을 보여 준다(④). 그러나 이 글에서 '허생'은 이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빈 섬'으로 가려 하고 있으므로 조선에 머문다고 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허생'은 거상으로 성장하지 않고 사대부로 남아 있다.

06 '허생'은 매점매석을 통해 큰돈을 벌고 난 후, '늙은 사공'을 찾아가 바다 밖에 혹시 사람이 살 만한 '빈 섬'이 없느냐고 묻는다. 이 '빈 섬'은 '허생'이 이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시험적 공간이다.

07 '허생'은 빈 섬에 이상 사회를 건설하여 백성들이 안심하고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이루고자 하였다. 매점매석의 상행위는 '허생'이 '빈 섬'에 오기 전에 했던 행위이다.

08 [A]에는 '허생'이 군도들을 데리고 '빈 섬'에 들어가서 당시의 조선 사회와는 다른 이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했던 일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약적 제사를 통해 서사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09 ㉔에서 '허생'이 '군도'들에게 돈을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한 것은 돈이 없어 도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수단을 마련해 주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재물에 대한 '허생'의 부정적 인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㉔에서 군도가 수천 명이나 우글거리는 것은 혼란스러웠던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드러나는 것이다.

② ㉔에서 조정에서는 군사를 징발하여 군도를 잡으려 하였으나 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군도를 토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㉔에서 도둑은 땅과 처자식이 없기 때문에 도둑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백성들이 도둑이 된 원인은 피폐한 경제 현실 속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⑤ ㉔에서 군도들은 '허생'을 '장군'이라 부르는데, 이는 큰돈을 마련해 주겠다는 약속을 '허생'이 지키는 것을 보고 그가 평범하지 않은 인물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10 '허생'은 빈 섬에서 백성을 구제하고 나라의 안정을 도모한다. 이렇듯 작가는 지배층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허생'이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 당대 지배층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허생'이 빈 섬에서 문자를 만들려 했으나 이는 빈 섬의 문물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에 새로운 문자가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② '허생'이 빈 섬에서 나오며 돈 오십만 냥을 바다에 버리는 것으로 보아 이상 사회 건설을 위해 큰돈이 필요함을 드러내려 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허생'은 빈 섬에서 군도들을 데리고 들어가 농사를 짓고 무역을 하는 등 이상 사회 건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유흥자적인 삶의 필요성을 주장한다고 볼 수 없다.

⑤ '허생'은 땅이 좁고 덕이 없어 빈 섬을 떠난다고 하였지만 이는 섬의 한계일 뿐, 조선의 땅이 좁아 새로운 국가를 세우야 하는 것과 관련짓기는 어렵다.

11 '허생'은 '빈 섬'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며 이상 사회를 건설하려 한다. 그러나 중국의 새로운 문물을 들여오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모습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허생'이 말한 '조그만 시험'이란 농업을 통한 자급자족(自給自足)(①), 해외 무역을 통한 부의 축적(②), 군도들의 교화(⑤)이다. 또한 이러한 행동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상 사회 건설을 위한 '시험'이었음을 알 수 있다(③).

12 ㉔을 통해 '허생'이 스스로를 장사치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허생'이 지닌 삶의 목표는 글 읽기에 있지 결코 돈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큰돈을 번 것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 말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다른 예의범절은 가르치지 않고 '장유유서(長幼有序)'만 강조하고 있으므로, 복잡한 예의범절보다 기본적인 생활 윤리를 중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섬에서 나오면서 다른 배들을 모두 불태우고 가는 이가 없다면 오는 이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현실 세계의 영향이 섬에 미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백만 냥'이 유통될 경우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조선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글을 아는 사람을 섬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화근'을 없앴다고 한 것은 글을 아는 사람이 화근이라는 뜻이므로, 당시 식자층이었던 집권층에 대한 비판을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13 '허생'이 자신이 큰돈을 번 과정을 상세히 말하는 것은 '변 씨'의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지만 당시 조선의 경제 구조와 유통 구조의 취약함을 비판하고, 후세에 당국자들이 자신과 같은 매점매석의 방법을 쓴다면 백성을 해치고 나라를 병들게 할 수 있음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이때 사대부들도 큰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미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허생’은 ‘변 씨’가 가져온 십만 냥을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거절하고, 최소한의 양식과 옷 정도만 도움을 줄 것을 부탁한다. 이를 통해 볼 때 ‘허생’은 개인의 경제적 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② ‘허생’은 매점매석을 통해 번 돈으로 도적들을 양민으로 만들고, 섬에서 생산한 양식으로 돈을 벌고 빈민을 구휼한다. 또한 나라 안을 두루 다니며 빈민을 구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빈민 구제를 위해 국가의 경제적 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③ ‘허생’이 ‘변 씨’에게 최소한의 양식과 옷을 부탁하면서 “일생을 그러면 족하지요.”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허생’은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재물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⑤ ‘허생’이 ‘변 씨’가 가져 온 재물을 보고 “왜 재물 때문에 정신을 괴롭힐 것이요?”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허생’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인격을 수양하고 정신을 가다듬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4** ‘허생’은 사회적 측면에서는 재물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개인적 측면에서는 자신이 사대부임을 벗어나지 않으려 하며 장사치를 무시하고, 재물을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등 재물을 부정적으로 본다. 이처럼 ‘허생’은 재물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15** ‘허생’은 돈을 나누어 열 가지 물건을 사게 되면 단위가 작아 굴리기가 쉬운 까닭에 한 물건에서 실패를 보더라도 다른 아홉 가지의 물건에서 재미를 볼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조그만 장사치들이 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허생’은 이와 달리 만 냥을 가지고 한 가지 물건을 독점하여 가격이 오르면 판매하는 매점매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오답 풀이** ① “만 냥을 빌린 다음에는 그의 복력에 의지해서 일을 한 까닭으로, 하는 일마다 곧 성공했던 것이고”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에 통하질 않고,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질 못해서, 온갖 물화가 제자리에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지지요”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내 스스로 나의 재주가 족히 백만 냥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한 가지 물종이 한곳에 묶여 있는 동안 모든 장사치들이 고갈될 것이요, 이는 백성을 해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후세에 당국자들이 만약 나의 이 방법을 쓴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만들 것이요.”를 통해 알 수 있다.

**16** ‘이완’은 임금의 신임을 받는 당시 집권층을 대표하는 인물로, ‘허생’이 제안하는 계책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이완’의 모습을 통해 명분만 앞세우는 당시 집권층의 무능함(ㄷ)과 북벌 정책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있다(ㄱ). 또한 허구적인 이야기 속에 실존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작품의 현실성을 높이고 있다(ㄴ).

**오답 풀이** ㄴ, ㄹ ‘이완’은 집권층을 대변하는 존재로 명분을 이유로 들어 ‘허생’이 제안하는 계책을 모두 거절하고 있을 뿐, ‘허생’의 주장을 비판하거나 국정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17** ‘이완’은 [A]에 해당하는 ‘허생’의 첫 번째 계책을 듣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뒤, 두 번째 계책을 듣고자 한다. 이에 ‘허생’은

‘이완’의 간청에 못 이겨 [B]에 해당하는 새로운 계책을 제안한다. 즉 [A]와 [B]는 서로 다른 계책이므로, [B]가 [A]의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허생’은 “내가 와룡선생(臥龍先生) 같은 이를 천거하겠으니”라고 하였는데 이는 숨어 있는 인재가 많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당대 조선 사회의 인재 등용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② [A]에서 “임금께 아뢰어서 삼초초려(三草草露)를 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다. 이는 인재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③ [B]에서 명나라 장졸들의 자손들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와서 정착 없이 떠돌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에 대한 대우가 올바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④ [B]에서 조정 종실(宗室)의 딸들을 명나라 망명객에게 시집보내고, 훈척(勳戚) 권귀(權貴)의 집을 빼앗아 명나라 망명객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명의 망명객을 우대함으로써 당시 종실과 훈척 권귀의 기득권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허생’의 ‘세 가지 계책’ 중에서 두 번째 계책의 내용은 종실과 훈척 권귀의 기득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실의 권한을 강화하여 훈척 권귀의 기득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허생’이 제안한 계책은 헛된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현실 대응책이다.

② ‘허생’이 제안한 두 번째 계책인 명나라의 망명객을 우대하여 훈척 권귀의 기득권을 폐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③ ‘허생’이 제안한 첫 번째 계책인 올바른 인재를 적극적으로 등용해야 한다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⑤ ‘허생’이 제안한 세 번째 계책인 청나라와 문물을 교류해야 한다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19** ‘이완’은 ‘허생’에게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책을 알려 달라고 하면서도, 이를 실행하기 어렵다고 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는 ‘허생’이 제안한 계책이 국가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실리보다는 명분을 중시하는 사대부 집권층의 허위의식 때문이다.

**20 서술형** 이 소설은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일반적인 고전 소설과 달리 ‘허생’의 잠적으로 인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잠정적으로 유보된 채 종결된다. 이는 ‘허생’의 비범함과 이인(異人)으로서의 행적을 보다 신비롭게 하려는 의도에 의해서이며, 작품에 반영된 작가의 사상이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급진적인 것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 평가 기준                                    | 확인 ☑                     |
|------------------------------------------|--------------------------|
| ‘허생’의 이인다운 면모가 부각된다는 내용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여운을 남기고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내용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허생’의 주장이 당시에 수용되기 어려운 것임을 암시한다는 내용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결말 처리 방식의 효과를 두 가지 이상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140~147쪽

- 01 ①    02 ⑤    03 ⑤    04 ⑤    05 ③    06 ④  
 07 ④    08 ②    09 ④    10 ⑤    11 ③    12 ③  
 13 ④    14 ②    15 잘 알지도 못하는 '변 씨'에게 큰돈을 빌리는  
 상황에서 부끄러운 기색 없이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허생'이 대범  
 하고 과감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16 ③    17 ⑤    18 ④  
 19 ①    20 ②    21 '허생'은 재물의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중시  
 하며, 재물은 정신적 도(道)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다.  
 22 ⑤

01 이 글은 '허생'과 '허생의 처'의 대화, 집을 나가 '변 씨'의 집  
 에 찾아가는 '허생'의 행동, 당당하게 돈을 빌리는 '허생'과 대범  
 하게 돈을 빌려주는 '변 씨'의 행동, 매점매석을 하는 '허생'의 행  
 동 등을 통해 각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다.

### 【참고 자료】 고전 소설의 일반적인 특징

|    |                                                                          |
|----|--------------------------------------------------------------------------|
| 인물 | 한 인물의 성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평면적 인물' 혹은 한 시대나 한 집단의 성격을 대표하는 '전형적 인물'이 나타남 |
| 사건 | 막연한 시간적·공간적 배경에서 우연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건이 발생함                                     |
| 주제 | 주로 행복한 결말이 나타나며,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를 주제로 함                                      |
| 구성 | 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평면적 구성'이나 주인공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사건을 다루는 '일대기적 구성'이 나타남       |

02 '변 씨'의 자제와 손들은 '허생'의 볼품없는 외모를 보며 '변  
 씨'가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아해한다. 하지만 '변 씨'는 '허생'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것이므로, '허생'을 시험해 보려 한다  
 는 것과, 안 주면 모르되 이왕 만 냥을 주는 바에 성명은 물어서  
 무엇하겠냐고 말한다. 따라서 '허생'의 비범함을 알아채는 이는  
 '변 씨'이다.

- 오답 풀이 ① 만 냥을 빌려 달라는 '허생'의 부탁에 '변 씨'는 "그러시오."  
 라고 하며 당장 만 냥을 내준다.  
 ② 돈을 빌리러 온 '허생'에 대해 '변 씨'는 "저 객은 형색은 허술하지만, 말  
 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  
 아,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  
 해 '허생'은 당당한 태도로 '변 씨'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했음을 알 수 있다.  
 ③ '허생'은 장인바치 일이나 장사, 도둑질이라도 못 하느냐는 아내의 구박  
 에 독서를 그만두고 '변 씨'를 찾아가서 돈을 빌리게 된다.  
 ④ '허생의 처'는 '허생'에게 글을 공부하여 과거를 볼 것이 아니면 장인바  
 치 일이나 장사는 못 하느냐고 한다. 이는 선비도 생계를 위해서라면 장사  
 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03 ① '안성'은 '허생'이 '변 씨'에게 빌린 돈으로 과일을 매점매  
 석하기 위해 이동한 공간이다. 따라서 '허생'은 ③ '변 씨'의 집  
 에서 빌린 돈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① '안성'으로 이  
 동한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허생'이 ④ '묵적골'에서 ⑥ '운증가'로 이동한 것은 맞지만,  
 이는 성중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인지 물어보기 위함이었으며, '변 씨'와 안  
 면이 있지 않다.  
 ② '허생'은 ③ '변 씨'의 집에 가는 목적인 돈을 빌리기 위해 ⑥ '운증가'에  
 서 어떤 준비를 한 것은 아니다.  
 ③ '허생'은 ③ '변 씨'의 집에서 돈을 빌릴 때 그저 당당하게 말했을 뿐, ④  
 '묵적골'에서 공부한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한 것이 아니다.  
 ④ '허생'이 ③ '변 씨'의 집에서 ① '안성'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④ '묵적  
 골'에 들르거나 '아내'를 만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04 안성이 삼남의 길목이며, 안성에서 각 지역의 사람들이 마  
 주치는 것을 언급한 것은 '허생'이 안성에서 매점매석을 한 이유  
 를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각 지역 사람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  
 주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만 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의 형편  
 을 알 만하구나."라는 말에서 조선 경제 구조의 취약함을 비판하고 있다.  
 ② 과일을 열 배의 값을 주고 사야 하는 이유가 잔치나 제사 때문이므로 잔  
 치나 제사에 몰두하는 양반들을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허생'이 매점매석한 '과일'과 '말총'이 다시 유통되지 못하고 가격이 열  
 배로 오르는 것을 통해 조선 사회가 교통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여 물건  
 을 다시 조달하여 집결할 수 없는 열악한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망건값이 열 배로 뛰어오른 것을 통해 의관과 겹치레를 중시하는 양반  
 들의 허례허식을 비판하고 있다.

05 '변 씨'는 '허생'의 말과 행동을 보고 '허생'이 평범하지 않은  
 인물임을 알아채고 선뜻 만 냥을 빌려준다. 이처럼 절차를 따지  
 지 않는 '변 씨'의 모습에 자제와 손들은 의아함을 드러낸다. 따  
 라서 이는 당시 사회에서 금전 거래를 할 때의 일반적인 모습이  
 라고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허생'은 글 읽기만 좋아하고, 그의 처가 남의 바느질품을 팔  
 아서 입에 풀칠을 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무능한 남편을 대신하여 아내가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② '허생의 처'가 평생 과거를 보지 않으니 글을 읽어 무엇하느냐고 물어보  
 는 것으로 보아 과거는 일반적으로 글을 읽는 선비가 목표로 삼는 일임을  
 알 수 있다.  
 ④, ⑤ '허생'이 '변 씨'에게 빌린 돈으로 과일을 모조리 사들이자 나라가 잔  
 치나 제사를 못 지낼 형편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허생'은 말총을 사들이  
 고는 "몇 해 지나면 나라 안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과일과 말총이 양반들에게 필요한 품목이며, 양반들이  
 제사와 의관을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06 ③에는 '허생'의 초라한 행색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  
 황을 나타내는 말은 '헤어진 옷과 부서진 것'이라는 뜻으로 초라  
 한 차림새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폐포파립(敝袍破笠)'이 가  
 장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기세등등(氣勢騰騰)'은 '기세가 매우 높고 힘찬 모양'을 이  
 르는 말이다.  
 ② '누란지세(累卵之勢)'는 '층층이 쌓아 놓은 알의 형세'라는 뜻으로, 몹시  
 위태로운 형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③ '아연실색(啞然失色)'은 '뜻밖의 일에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놀람'을 뜻하는 말이다.
- ⑤ '환골탈태(換骨奪胎)'는 '사람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하여 전혀 딴 사람처럼 됨'을 이르는 말이다.

**07** '허생'은 (나)에서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엔 먼저 부(富)하게 한 연후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衣冠)을 새로 제정하려 하였더니라."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허생'이 처음 섬에 들어올 때 이상 사회를 건설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보기>의 '홍길동'은 '율도국을 공략하여 왕위를 쟁취하고 왕도 정치를 실현함으로써, 가난과 지배층의 착취가 없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그 사회에서 생을 마치게 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상 사회를 건설할 생각으로 율도국을 정벌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허생'은 조선 사회의 모순을 인식하고 도둑들을 교화하여 이상 사회를 건설하려 하였으며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 없는 사람들을 구제한다. '홍길동' 역시 사회의 모순에 반발하고 도둑들의 과수가 되어 활빈당을 조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 후 섬으로 들어가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게 된다.
- ② '허생'은 삼 년 간 빈 섬을 다스리고 난 후 섬을 떠나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고, '홍길동'은 율도국에서 생을 마치게 된다고 하였다.
- ③ '허생'은 매점매석을 통해 번 돈으로 군도들의 정착을 돕게 되고, 조선에 돌아온 후에도 가난하고 의지 없는 사람들을 구제한다. 반면 <보기>의 '홍길동'은 '각 지방의 탐관오리들을 찾아가 재물을 탈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라고 하였다.
- ⑤ '허생'은 '장기도'와의 해외 무역을 하는 등의 경제 활동을 하며, <보기>의 '홍길동'은 왕위를 쟁취하고 왕도 정치를 실현하여 가난과 지배층의 착취가 없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였으므로 정치 활동을 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 참고 자료 ] 허균, 「홍길동전」**

- 해제: 조선 광해군 때에 허균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 능력이 뛰어나지만 재상이 서열로 태어난 탓에 천대를 받던 홍길동이, 집을 나와 활빈당이라는 집단을 결성하여 관아와 해인사 따위를 습격하다가 율도국을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사회 제도의 결함, 특히 적서 차별(嫡庶差別)을 타파하고 부패한 정치를 개혁하려는 의도로 지은 사회 소설이다.
- 주제: 모순된 사회 제도 개혁과 이상 사회 건설

**08** '허생'은 장기도와 해외 무역을 통해 흥년이 든 그 지방을 구휼하고 은 백만 냇을 얻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허생'이 해외 무역을 통해 부의 증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허생'이 군도들을 데리고 빈 섬으로 들어간 것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못해 도둑이 된 사람들을 다시 양민으로 만들어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허생'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엄격한 법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③ '허생'은 섬의 '군도들'에게 최소한의 유교적 예절인 '장유유서(長幼有序)'만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유학을 통한 왕도 정치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④ '허생'은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재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계획을 연연중에 드러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⑤ '허생'은 스스로를 장사치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며, '허생'이 지닌 삶의 목표는 글 읽기에 있지 결코 돈에 있지 않다. 따라서 장사를 통해 큰 성공을 거둔 것에 대한 '허생'의 자부심이 느껴진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9** (라)에서 '허생'은 자신의 상행위에 대해 설명하는데, 만 가지 중에 하나를 독점해서 이득을 보는 상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보기>에서 설명하는 매점매석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매점매석은 물가의 안정과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한편 '허생'은 열 가지 물건을 사서 아홉 가지 물건에서 재미를 보는 것은 조그만 장사치들이 하는 짓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④는 '허생'이 사용한 매점매석의 방법이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허생'은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에 통하지 않고,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질 못해서, 온갖 물화가 제자리에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지지요."라고 하여, 자신의 방법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물화가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 ② '허생'은 첫 번째는 과일, 두 번째는 말총을 독점하였다가 가격이 올랐을 때 되팔아 이익을 취했다. 즉 '허생'은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하였다가 가격이 올랐을 때 매각하여 폭리를 취하는 매점매석을 한 것이다.
- ③ <보기>에서는 매점매석이 물가의 안정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방해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에 해를 끼치게 되므로 이를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고 했고, '허생'은 매점매석의 방법을 사용하면 백성을 해치는 길이 되고 후세에 당국자들이 만약 이 방법을 쓴다면 반드시 나라는 병들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 ⑤ '허생'은 매점매석을 하면 모든 장사치들이 고갈되는 것이라고 했고 <보기>에서는 매점매석을 하게 되면 시장 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지 못한다고 했다. 따라서 '허생'이 한 매점매석에 의해 장사치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시장 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 참고 자료 ] 「허생전」이 쓰인 조선 후기의 상업의 모습**

매점매석은 허생이 처음 고안해 낸 것이 아니라 조선 후기에 상인들이 흔히 쓰던 방법이었다. 조선시대에 상업은 시전(市廛)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정한 세금을 바친 상인들만 정부의 허락을 받아 가게를 열고 상업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상점을 시전이라 불렀다. 시전에는 다양한 점포가 있었는데 허생이 매점매석을 했던 과일과 망건을 파는 과일전, 망건전도 있었다. 시전 상인은 세금을 내는 공식 상인이었던 만큼 각지의 상품 유통권을 장악하였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모든 상품은 일단 시전 상인의 손을 거친 후에만 판매될 수 있었다. 시전 상인들의 상행위는 그 자체가 매점매석이었던 셈이다.

**10** '허생'은 '글을 아는 자들'을 '화근'으로 표현하며 모두 섬에서 내보낸다. 이는 당대 지식인(위정자)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아 '허생'은 글을 아는 자들이 현실과 유리된 채 실리를 외면하고 명분만 따지며 이론과 관념으로만 세상을 논하여 양민과 사회에 해를 끼칠 것을 염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11** 이 글은 서사 문학의 대표적인 갈래인 고전 소설이다. 작가는 조선의 현실을 꿰뚫고 있는 지식인 ‘허생’을 통해 조선의 취약한 경제 구조, 수천의 군도를 토벌하지 못하는 집권층의 무능함 등을 드러냄으로써 조선 후기의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12** (가)에서 ‘변 씨’가 “나 또한 그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라고 말한 점에서 ‘변 씨’는 ‘허생’에게 만 냥을 빌려주면서 돌려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3** “땅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놈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둑이 된단 말이오?”, “아니, 왜 바라지 않겠소? 다만 돈이 없어 못 할 뿐이지요.”라는 군도의 우두머리의 말을 통해서 당시에 가난하여 어쩔 수 없이 도둑이 된 백성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4** ‘허생’의 행동을 통해 당시 조선은 자급자족의 경제 구조로, 교통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물건의 국내·해외 유통이 어려워 매점매석과 같은 행위가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당시 조선의 경제 구조가 매우 취약했음을 알 수 있다.

**15 서술형** ‘변 씨’가 ‘허생’을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 ‘허생’은 외양은 초라하지만 당당한 언행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처지가 가난하여 돈을 꾸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에서 그의 성격이 대범하고 과감함을 알 수 있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당당함’, ‘대범함’, ‘과감함’ 등 ‘허생’의 성격을 드러내는 표현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완성된 문장으로 썼다.                                 | <input type="checkbox"/>               |

**16** ‘허생’이 돈을 벌기 위해 전국의 과일을 두 배의 값으로 모조리 사들이는 상황이므로, ‘물건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여 한꺼번에 샀다가 팔기를 꺼려 쌓아 둬’이라는 뜻의 ‘매점매석(買占賣惜)’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산해진미(山海珍味)’는 ‘산과 바다에서 나는 온갖 진귀한 물건으로 차린, 맛이 좋은 음식’을 이르는 말이다.

② ‘일거양득(一舉兩得)’은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을 이르는 말이다.

④ ‘이용후생(利用厚生)’은 ‘기구를 편리하게 쓰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넉넉하게 하여, 국민의 생활을 나아지게 함’을 이르는 말이다.

⑤ ‘동분서주(東奔西走)’는 ‘동쪽으로 뛰고 서쪽으로 뛴다는 뜻으로, 사방으로 이리저리 몹시 바쁘게 돌아다님’을 이르는 말이다.

**17** (나)에 ‘변 씨’가 ‘허생’에게 오 년 동안에 어떻게 백만 냥이나 되는 돈을 벌었는가를 조용히 물어보았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그가 ‘허생’이 돈을 번 방식을 따라하여 더 많은 부를 쌓으려 했는지는 알 수 없다.

**18** (다)에서 ‘허생’은 ‘조성기’, ‘유형원’ 같은 유능한 인재가 은

둔 생활을 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이들을 등용하지 않는 집정자들을 비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의 “후세에 당국자들이 만약 나의 이 방법을 쓴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만들 것이요.”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② (다)의 “지금의 집정자들은 가히 알 만한 것들이지요.”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③ (가)의 “만 냥이 어찌 도(道)를 살찌게 하겠소?”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⑤ (나)의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에 통하지 않고,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질 못해서, 온갖 물화가 제자리에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지지요.”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19** ‘허생’은 자신이 초야에 묻혀 지내는 상황을 합리화하고 위정자의 인재 등용을 비판하기 위해 적국에 사신으로 갈 만한 ‘조성기’가 배장방이로 늙어 죽었고, 군량을 조달할 만한 재능이 있는 ‘유형원’이 바닷가에서 소용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20** 〈보기〉의 글쓴이는 사농공상이 모두 같은 백성이고, 높고 낮음이 없는 평등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 반면 이 글의 ‘허생’은 자신이 빌려준 돈에 대해 심분의 일로 이자만 쳐서 받겠다고 하는 ‘변 씨’에게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라고 말하며 질책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허생’이 아직도 사농공상의 전통적인 계급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인 계층을 얕잡아 보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21 서술형** “만 냥이 어찌 도(道)를 살찌게 하겠소?”, “내가 하루아침의 주림을 ~ 만 냥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라는 말을 통해 ‘허생’은 재물(만 냥)을 정신적 가치(道)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허생’이 재물의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허생’이 재물은 정신적 도(道)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다는 내용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완성된 문장으로 썼다.                                           | <input type="checkbox"/>               |

**22** (나)에서 ‘허생’은 자신이 죽히 백만 냥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지녔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반드시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이 하늘의 뜻임을 언급하며, 거상이라면 직감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알아보았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148~149쪽

**01 ④** **02 ①** **03 ②** **04** ‘변오기’와 ‘무령왕’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살신성인하며 실리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인물들과 달리 사대부는 명분만 중시하여 무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여, ‘허생’은 이를 비판하고 있다. **05 ⑤** **06 ⑤**

**01** 이 글에서 ‘허생’은 나라를 위한 계책을 요구하는 ‘이완’에게 세 가지 계책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완’은 이를 실행할 생각을 하지 않고 사대부로서의 명분에만 얽매어 세 가지 계책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완’이 세 번째 계책을 거절했을 때 ‘허생’은 결국 크게 화를 내며 집권층을 비판하고, 심지어 칼을 찾아서 ‘이완’을 찌르려 한다. 따라서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허생’과 ‘이완’의 대립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서술자의 개입이나 인물의 내적 독백은 나타나지 않으며, 주로 ‘허생’과 ‘이완’의 대화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③ 고전 소설에서 전기성이란 비현실적이거나 기이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제시된 글에서는 ‘허생’과 ‘이완’의 대화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기성을 바탕으로 한 환상적인 사건이 전개된다고 보기 어렵다.

⑤ ‘허생’과 ‘이완’의 대화는 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다.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이 나란히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02** 이 글에서 ‘허생’은 ‘이완’에게 세 가지 계책을 제안하는데, ‘이완’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허생’의 계책을 모두 거절한다. 이에 ‘허생’은 예법이라는 명분만을 중시하는 사대부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들 또한 이와 같은 비판 정신을 오늘날에도 적용하여 명분보다는 실리를 위한 실용적 태도를 가져야 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이 글에서 ‘허생’은 유교적인 예법만을 중요시하는 사대부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당시에 유교적인 예법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태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올바른 유교 문화 정립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③ ‘허생’은 당시 명나라 유민을 출대했던 것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당대의 정책과 관련된 것이므로 오늘날 계승해야 할 시대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④ 당시에는 인재를 양성하지 않아 인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인재가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에 ‘허생’이 인재를 천거하졌으니 임금이 삼고초려를 할 수 있겠냐고 한 것이다. 즉, ‘허생’은 당시 능력이 있던 인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을 비판한 것이므로 올바른 인재를 길러 내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이 글에서 ‘허생’은 명분만을 추구하며 실리를 소홀히 하는 사대부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당시 실리만을 추구하느라 명분을 소홀히 여긴 것은 아니다.

**03** (다)에서 ‘허생’은 자신이 제안한 모든 계책을 거절하는 ‘이완’의 태도를 크게 꾸짖고 있다. ‘허생’은 실리적인 면은 등한시하고 명분만 좇는 사대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허생’이 내놓은 세 가지 계책은 당시에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급진적인 것이라 할 수 있지만, ‘허생’이 계책을 내놓으며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우려되는 점을 언급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실리를 위해 명분을 버린 ‘변오기’와 ‘무령왕’이라는 역사적 인물들을 내세워, 명분만을 중시하는 ‘이완’ 및 사대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③ ‘허생’은 자신이 구체적인 계책을 제시해 주었음에도 실행하기 어렵다고만 하는 ‘이완’의 무능한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 했다.’라고 한 부분을 통해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허생’은 ‘이완’에게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할 판국에~”라고 말하며 고작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넓은 소매의 옷을 고쳐 입지 않는 것이냐며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⑤ ‘허생’은 ‘변오기’의 머리카락과 ‘무령왕’의 옷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완’이 말한 ‘예법’이라는 용어에 대해 “넓은 소매의 옷을 고쳐 입지 않고 댜에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나?”라고 하며 비판하고 있다.

**04 서술형** (다)에서 ‘허생’은 “변오기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무령왕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되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변오기’와 ‘무령왕’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했던 인물로, ‘허생’은 이와 비교하여 당시 사대부들이 대명(大明)을 위해 원수를 갚겠다는 목적을 말하면서도 유교적 예법이라는 명분은 버리지 못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변오기’와 ‘무령왕’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리를 추구했던 인물들임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허생’은 사대부가 명분만 중시하여 무능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비판하고 있음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05** ‘허생’이 제안한 세 가지 계책 중 ㉠은 인재 등용 문제 비판, ㉡는 명의 망명객 우대와 종실과 훈척 권귀의 기득권 폐지, ㉢는 청과의 교류 및 문물 도입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는 모두 현실적인 제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허생’이 갈수록 비현실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이완’의 거부 의사가 확고해진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6** ‘동문서답(東問西答)’은 ‘물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을 의미하는 말이다. ㉠에서 ‘이완’은 사대부로서의 명분을 이유로 들어 ‘허생’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을 뿐,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방약무인(傍若無人)’은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허생’은 ‘이 대장’이 들어왔음에도 움직이지 않고 있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② ‘심사숙고(深思熟考)’는 ‘깊이 잘 생각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허생’의 제안을 들은 ‘이완’은 고개를 숙이고 찬찬 생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③ ‘결초보은(結草報恩)’은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가)에서 ‘허생’은 “명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 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옛 은혜’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서 조선에 군대를 파병한 것을 말하며, ‘허생’은 명나라 장졸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함을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④ ‘면종복배(面從腹背)’는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함’을 의미한다. ‘허생’은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실정을 정탐하면서 추후에 천하를 뒤집고 국치를 씻을 것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대단원 정리 문제



- 01 ④    02 ④    03 ②    04 ⑤    05 ②    06 ③  
 07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08 ①    09 ③    10 ③  
 11 ②    12 만 냥    13 ⑤    14 ④    15 ③    16 ④  
 17 ①    18 ④    19 ①    20 ③    21 ④    22 ①  
 23 ③    24 ②    25 ②    26 ⑤    27 ③

01 (라)는 현대 시로, 일정한 형식이 없는 자유시이다. 한편 (다)의 갈래는 가사로 4음보의 연속체이며 시조에 비해 긴 형식의 노래이다. 또한 마지막 행이 시조의 종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마무리되기도 한다. 따라서 형식상 (라)가 (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1연과 4연에서 나타나는 수미상관은 (라) 작품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갈래는 평시조이다. 시조는 고려 말기에 나타나 조선 시대에 전성기를 이룬 서정 문학이다. 시조의 기본 형태는 평시조로, 평시조는 3장(초장, 중장, 종장) 6구, 45자 내외, 4음보의 정형화된 형식을 기본 형으로 한다.

② (나)의 갈래는 사설시조이다. 사설시조는 평시조의 변형으로, 종장의 첫 마디가 세 글자인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장의 어느 마디든지 마음껏 길어질 수 있으며, 그 길이에 제한이 없듯이 정해진 통일성도 없다는 점이 형식적 특징이다.

③ (다)의 갈래는 가사이다. 가사는 시조가 성행한 시기인 조선 시대에 전성기를 이룬다. 가사는 길이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시조보다 길이가 길고, 율격은 4음보로 시조와 동일하다.

⑤ (라)는 민요의 전통을 계승하여 민요조의 3음보 율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 달리 (가)는 4음보의 율격을 지닌다.

【참고 자료】 평시조와 사설시조

|     | 평시조              | 사설시조                |
|-----|------------------|---------------------|
| 작자층 | 양반 사대부 계층이 주로 창작 | 중인, 평민 등이 주로 창작     |
| 형태  | 3장 6구 4음보 45자 내외 | 평시조의 3장 중 어느 장이 길어짐 |

02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물의 특징이나 모양, 행동 등에 의미를 부여해서 자신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담아내는 표현 방식이다. 객관적 상관물을 사용하여 화자의 외로운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라)가 아니라 (다)이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밤'이라는 추상적 시간을 접었다가 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② (나)에서는 '천방지방 지방천방'과 같은 의태어와 '워렁충창'과 같은 의성어를 사용하여 버선을 벗어 품에 품고 신을 벗어 손에 쥐고, 진 곳 마른 곳 가리지 않고 임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해학성을 드러내고 있다.

③ (다)는 '여인 1'과 '여인 2'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⑤ (라)는 종결 어미 '~우리다'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3 (나)의 화자는 임이 온다는 소식에 '지방(地方)' 위에 앉아 기다리다 임의 모습인 듯한 모습이 보이자 버선과 신발을 벗어 들고 건너편 산으로 달려가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또한 (다)의 화자 역시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 '넙픈 뒹'에 올라가고, '물'에 가서 뱃길을 알아보는 등 임과 만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오지 않는 임을 그리워할 뿐,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③ (다)의 화자는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셔'라고 하여 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나, (라)의 화자는 떠나는 임을 축복할 뿐, 이러한 의지를 나타내지 않는다.

④ (나)와 (다)에는 임이 부재한 상황에서 임을 만나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 있지만 (라)의 이별의 상황은 화자가 가정한 상황이며, 만약 이별을 하게 된다면 이별의 아픔을 참고 인내하겠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⑤ (가)~(다)는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 하지만 (라)의 화자는 아직 임과 이별한 것이 아니며 만약 이별을 하게 된다면 표면적으로는 슬픔을 인내하며 임을 축복하며 보내 주겠다고 하고 있다.

04 (나)의 '밤'은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고 달려나간 남을 웃길 뻔한 자신의 실수를 가려 주는 시간을 의미하고, (다)의 '밤'은 임에 대한 그리움이 극대화되어 꿈을 통해 임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을 걱정하며 보내는 시간을 의미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의 '기나긴 밤'은 임이 부재하는 부정적 시간으로 화자가 상대적으로 길게 느끼고 있다.

② (가)의 '오신 날 밤'은 사랑하는 임과 함께 있는 시간으로 화자가 상대적으로 짧게 느끼고 있다.

③ (나)에서 화자는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는 실수를 하지만, 밤이 기에 이러한 실수를 남이 보지 못했음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④ (다)의 '밤'은 화자가 임을 만나러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시간으로 임에 대한 외로움이 극대화되며, 이후 꿈에서 임을 만나게 된다.

05 <보기>의 화자는 창 밖에 어른어른 비치는 것을 임이라 착각하고 펄쩍 뛰어 급히 나가보지만, 그것은 임이 아닌 '달빛에 널 구름'이었으며 이러한 실수를 남이 보지 못하기에, 낮이 아니라 밤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시가의 발상과 전개 과정이 (나)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표현상의 측면에서도 (나)에는 '천방지방 지방천방'과 같은 의태어가, <보기>에는 '어른어른', '펄떡'과 같은 의태어가 사용되어 구체적인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오답 풀이** ① (나)의 화자는 '주추리 삼대'가, <보기>의 화자는 '달빛에 널 구름'이 임의 모습인 줄 알고 착각하여 뛰어나가고 있다.

③ (나)와 <보기>의 화자는 모두 종장에서 만약 낮이었으면 남을 웃길 뻔하였다고 남이 보지 못하는 밤이라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다.

④ (나)에서는 '건넌 산(山)'이라고 하여 임을 만나기 위해 나간 장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보기>에는 임을 만나기 위해 나간 장소가 드러나지 않는다.

⑤ (나)는 임을 만나러 허겁지겁 달려가는 모습을 다양한 의태어와 의성어를 사용하여 과장되게 묘사하고 있으며, <보기> 또한 '펄떡 뛰어' 등으로 과장된 표현을 통해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6 [C]에서 화자는 입에 대한 그리움으로 꿈에서 입을 만나게 된다. 이때 ‘옥 같은 모습이 반 넘어 늘었구나’라는 것은 입의 모습이 늘어 보인다는 화자의 말이다. 즉 화자와 함께 있을 때는 옥과 같았던 입의 얼굴이 화자와 헤어져 있을 때 늘었다는 뜻으로, 늘어 버린 화자의 처지를 하소연한 것이 아니다.

07 (라)에서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가 다른 반어적 시구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이다. 화자는 이와 같은 반어적 표현을 통해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입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08 ‘허생’은 ‘변 씨’에게서 만 냥을 빌리자 안성으로 내려가 과일을 독점하여 열 배의 이익을 남긴다. 이는 매점매석의 폐해이기도 하지만 만 냥으로 하나의 물품을 독점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시 조선의 경제 규모가 취약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② ‘빈 섬’은 농경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이다. 하지만 글을 아는 자들은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학문을 왜곡하여 양민들의 삶과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화근’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이는 양민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식 계층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③ 명나라 유민이 조선으로 이동해 온 것은 조선이 예전 임진왜란 때 명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조선으로 온 것이지 명나라 유민에 대한 정책이 잘 갖춰져서 조선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허생’은 두 번째 계책에서 명나라 유민들이 정처 없이 떠돌고 있으며, 명나라 유민을 대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④ ‘허생’은 세 번째 계책에서 청나라에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상인의 출입을 금지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⑤ ‘이완’은 사대부의 예법을 지키느라 ‘허생’의 세 가지 계책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사대부를 중심으로 의복과 의관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나타났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9 ‘허생’이 빈 섬을 경영하는 것은 가족 단위를 근간으로 하는 농경 사회로서의 이상 사회 건설을 시험하는 것으로, ‘허생’은 식자층이지만 당시 집권층이 해결하지 못했던 군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상 사회를 건설하였다. 따라서 명분만 중시하고 경험 없는 식자층에게 국가 경영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허생’은 매점매석의 방법으로 큰돈을 벌지만, 한편으로는 나라의 경제 구조를 걱정하는 비판적 시각도 보이고 있으므로 작가는 이와 같은 방법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② ‘허생’이 매점매석의 방법으로 큰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조선에서는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조선의 경제 구조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가는 이를 비판함으로써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한다고 할 수 있다.

④ ‘허생’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계책에서 인재 등용의 문제와 훈척 권위의 기득권 제한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⑤ ‘허생’은 세 번째 계책에서 청나라와 문물 교류를 통해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해야 하며, 무능한 지배층은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 ‘허생’이 ‘글을 아는 자’들을 ‘화근’이라고 하며 데리고 나오는 것은 글을 아는 자들은 학문을 왜곡하여 양민들의 삶과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도움을 받아 무능한 지배층을 개혁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고, 삼남(三南)의 길목이었기 때문에 ‘허생’은 과일을 매점매석하기 위해 안성을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허생’은 군도들을 데리고 빈 섬으로 들어가 집을 짓고 농사를 하며 해외 무역을 시도한다. 그 후 ‘조그만 시험’이 끝났다고 말한다. 이처럼 ‘허생’은 빈 섬에 이상 사회를 건설하여 백성들이 안심하고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이루고자 하였다.

④ 당시 양반들이 명예를 지키고 체면을 차리기 위해선 제사를 지내고 손님에게 번듯한 상차림으로 접대를 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과일이 올라가야 했다. 과일 값이 열 배로 오르는 모습은 허례허식을 중시하는 양반들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⑤ ‘허생’은 빈 섬에 이상 사회를 건설하여 군도들이 먹고살 길을 마련해 주고 있다.

11 ‘허생’은 (라)의 세 번째 계책에서, “저 땅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한번 천하를 뒤집고 국치를 쫓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청나라와 전략적 교류를 하며 기회를 노리다가 후에 명나라를 위해 복수를 하자는 의미이다. ‘저 땅의 호걸들’은 조선의 호걸이 아니며, ‘허생’의 말에서 청나라를 정벌하고 조선의 영토를 넓히려는 의미도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허생’의 ‘두 번째 계책’에 해당한다.

③, ④ ‘허생’의 ‘첫 번째 계책’에 해당한다.

⑤ ‘허생’의 ‘세 번째 계책’에 해당한다.

12 ‘허생’은 ‘변 씨’에게 빌린 만 냥으로 과일을 모두 사들이고 이를 비싼 가격에 되파는 매점매석을 통해 돈을 번다. 그리고 이렇게 번 돈을 밀천으로 삼아 빈 섬에 이상 사회를 건설한다. 이렇듯 ‘만 냥’은 ‘허생’이 이인(異人)임을 드러내는 소재이기도 하다.

13 (가)와 (나)에는 모두 여성 화자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입에 대한 사랑과 이별의 정한을 있는 그대로 노래하고 있으며,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노래하고 있지는 않다. 남성 작가가 여성 화자를 통해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것은 정철이 지은 「속미인곡」처럼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 계열의 작품들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가)의 ‘나 보기가 역겨워’와 (나)의 ‘날리는 엇디 살라 후고’에 화자인 ‘나’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② (가)는 ‘나 보기가 / 역겨워 / 가실 때애는’과 같이, (나)는 ‘가시리 / 가시리 / 잇고’와 같이 3음보의 율격이 나타나고 있다.

③ (가)와 (나)는 모두 이별의 안타까움과 슬픔, 그리움을 절실하게 노래하는 이별의 정한(情恨)을 주제로 삼고 있다.

④ (가)의 1~4연과 (나)의 1~4연은 각각의 연이 유사한 문장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이 한 작품 안에서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면 형식 면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 【참고 자료】 충신연주지사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연모하는 노래로 사회적 관계인 '충(忠)'을 개인적 관계인 '그리움'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이다. 남성인 화자가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자신의 심정을 하소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서'의 '정과정', '정철'의 '사미인곡', '속미인곡' 등의 작품이 있다.

14 (가)의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에서 '아니'가 '눈물'의 앞에 놓여 도치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와 임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일 뿐, 화자가 억누르고 있는 분노의 정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답 풀이 ① 종결 어미 '-우리다'를 1, 2, 4연의 끝에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자연물인 '진달래꽃'을 화자의 분신으로 나타내고, 임이 진달래꽃을 밟고 가도록 표현함으로써 화자의 희생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③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이라고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⑤ 4연에서 표면적으로는 임이 떠날 때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반면, 이면적으로는 임이 떠날 때 눈물이 나고 슬프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반어법을 통해 임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15 <보기>에 따르면 고려 가요 작품은 평민들의 삶과 정서를 담은 작품들이 많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화자가 여성의 목소리를 내는 여성 화자일 뿐, 평민 여성 작가가 지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답 풀이 ① <보기>에 따르면 고려 가요는 처음에 민간에서 유행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나)는 3음보의 민요조 율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나)에는 본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위 증증가 대평성대(太平盛代)'라는 후렴구가 있다. 이를 통해 (나)가 노래의 형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나)의 주제는 이별의 정한으로, 고려 가요의 내용적 특징인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

⑤ (나)는 여러 연으로 구성된 작품이지만, <보기>에 따르면 고려 가요에는 한 연으로 구성된 작품도 있다고 하였다.

## 【참고 자료】 작가 미상, 「가시리」

- 해제: 전통적 정서인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고려 가요로 사랑하는 임을 보내는 여인의 애절한 마음이 진솔하게 표현되어 있다. 제목 '가시리'는 '가시리잇고'의 준말로 떠나는 임에게 정말로 '가시렵니까'라고 질문하는 것으로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 주제: 이별의 정한(情恨)

16 (다)의 갈래는 가사로, 4음보의 연속체이며 시조보다 길이가 긴 형식상의 특징을 보인다. 3음보 율격을 보이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으며, '추일동턴(秋日冬天)은 뉘러서 피섯는고'와 같은 행도 '추일 / 동턴은 / 뉘러서 / 피섯는고'로 끊어 읽으므로 4음보라고 볼 수 있다.

17 (가)와 (나) 모두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답 풀이 ② (나)와 (다)에서는 '나'라는 화자를 작품 속에 직접 드러내어 시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③ (다)의 '구름'과 '안개'는 조정을 어지럽히는 간신을, '일월'은 임금을 상징하여 간신들로 인해 임금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라)에서는 화자의 분신으로서 '진달래꽃'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임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감내할 정도로 임을 사랑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④ (가)에서는 '밤'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구체적 사물로 시각화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⑤ (나)에서 '곰비곰비 남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워령충창'에서 음성상징어를 통해 그리운 임을 빨리 만나려고 달려가는 화자의 행동을 과장하여 묘사하고 있다.

18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벽 가운데 걸려 있는 등불'로서 '눌 위향야 불갓는고'를 참고할 때, 임과 이별한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 자료】 객관적 상관물

- 개념: 글쓴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감정을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물의 특징이나 모양, 행동 등에 의미를 부여해서 자신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담아내는 표현 방식이다.
- 효과: 문학 작품에서 글쓴이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작품의 흥미와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문학 작품에 객관적 상관물을 사용하면 이러한 위험을 피해 가면서도 글쓴이의 감정을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19 (라)와 <보기> 모두 한국 서정 문학의 전통적 정서인 '이별의 정한'이 드러나 있다.

○답 풀이 ②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에서 알 수 있듯이 (라)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만, <보기>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고 있다.

③ '가시는 걸음걸음 / 놓인 그 꽃을 /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에서 알 수 있듯이 (라)의 화자는 이별의 정한을 자기희생을 통한 숭고한 사랑으로 승화하고 있지만, <보기>에는 화자의 자기희생적 의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④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에서 알 수 있듯이 (라)의 화자는 임이 나를 떠난다면 슬퍼도 꼭 참고 보내 드리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라)와 <보기>는 모두 3음보의 민요조 율격을 드러내고 있다.

## 【참고 자료】 작자 미상, 「아리랑」

- 해제: 이별의 상황에서 소박하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이별을 거부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민요이다.
- 주제: 이별의 정한

20 '물 7톤 얼굴이 편히 실 적 몇 날일고'는 임과 이별한 화자가 연약한 임의 안부를 걱정하는 것일 뿐, 자신이 임을 불편하게 한 것을 후회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은 임이 온다는 말을 듣고 임이 오는 것을 보기 위해 '저 념밥을 일 지어 먹고' '지방 우회' 올라가 앉은 것이므로, 임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 화자의 들뜬 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은 임이 오는 줄 알고 허겁지겁 달려갔으나 임이 아니라 '주추리 삼대'임을 확인하고 머쓱해하는 것이므로, 화자가 자신의 행동을 겸연쩍어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④ ㉢의 '구름'과 '안개'는 화자로 하여금 '일월'을 볼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은 화자가 임을 그리워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을 때 꿈에서 임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임과 재회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얼마나 절실한지 짐작할 수 있다.

**21** '거머뿔들'은 '검은빛과 흰빛이 뒤섞인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다. 화자가 임으로 착각하고 있는 대상이기는 하지만, 화자가 기억하고 있는 임의 옷차림에서 연상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22** '허생'이 '이 대장'에게 "너는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대장'이 "대장이오."라고 답변한 것을 통해 '이 대장'이 '허생'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이완'은 실존 인물이며, 임금의 신임을 받는 당시 집권층을 대변하는 인물로 이 글에서 비판의 대상이다.

**오답 풀이** ① '허생'은 실리를 중시하나 '이완'은 명분을 중시한다.  
 ② 작가는 실존 인물인 '이완'을 작품에 등장시킴으로써 이야기에 사실성을 부여한다.  
 ④ 작가의 입장을 대변하여 당시 무능한 사대부를 비판하는 것은 '허생'의 역할이다.  
 ⑤ '이완'은 당면한 사회 문제는 알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인물이다.

**24** 이 글의 결말 부분에서 '허생'은 종적을 감추었을 뿐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허생'이 자신을 찾아온 '이 대장'에게 무례를 범하고 또 그를 칼로 찌르려는 행동을 한 것에서 '허생'의 이인다운 면모가 드러나고 있으며, 자신이 살던 집을 홀연히 떠나는 것에서 '허생'의 기이한 인물됨이 부각되고 있다.  
 ③ '허생'이 간 곳을 모른다고 끝을 맺고 있으므로 독자는 자유롭게 이후의 내용을 상상해 볼 수 있다.  
 ④ '허생'이 '이 대장'에게 자신의 계책을 말했지만 자신도 그것이 너무 급진적인 것이어서 당시에 수용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현실 문제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 위해 집을 떠났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⑤ '허생'이 '이 대장'에게 자신의 계책을 제시하고 홀연히 집을 떠난 것은 스스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25** (나)에서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었다는 것은 병자호란 당시 조선이 청나라에 군신의 예를 갖추게 된 것을 의미하므로, 조선이 북벌론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제 정치의 역학 관계를 계산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허생'의 말 '천하를 뒤집고 국치를 씻을 수 있을 것'을 고려할 때 '이 대장'이 '허생'을 찾아온 이유는 나라에서 구하는 '어진 인재', 곧 북벌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를 찾기 위한 것이다.

③ '천하를 뒤집고 국치를 씻'는다는 것은 <보기>의 '민족적 굴욕을 씻기 위해 북벌을 계획하고'와 상통하는 내용이다.

④ '대명을 위해 원수를 갚겠다'는 것은 <보기>에서 '북벌론'의 주요 이론적 근거와 상통하는 내용이다.

⑤ '너 같은 자'는 명분만 앞세우고 실천을 하지 않는 사대부와 같은 자들로, <보기>에서 국제적인 역학을 고려하지 않고 약한 군사력으로 무모하게 북벌을 추진하던 '조선의 집권층'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참고 자료】 북벌론

북벌론은 조선의 군사력을 길러 청을 정벌하자는 주장이다. 병자호란 이후에도 조선의 집권층이나 유학자들 중에는 여전히 청을 오랑캐의 나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조선은 문화가 높지만 청은 문화가 낮은 야만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들은 병자호란 때 오랑캐인 청을 황제의 나라로 받들겠다는 약속을 매우 부끄럽게 여겼다. 따라서 부끄러움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청을 정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벌론에서 '북(北)'은 곧 조선의 북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청을 가리킨다.

**26** '허생'은 '이완'이 찾아왔으나 문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 '변 씨'가 '이완'이 찾아온 이유를 말하였으나 못 들은 척하고 있다. 이처럼 '허생'이 '이 대장'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이유는 이 글의 뒷부분에서 '허생'이 자신의 계책을 모두 거절하는 '이 대장'을 칼로 찌르려고 한 행동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허생'은 '이 대장'과 같은 무능한 집권층에 대해 강한 반감과 불신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27**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첩자를 보내 그 나라의 형편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는 것은, 적을 알아야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지피지기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 중 '지피지기(知彼知己)'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호시탐탐(虎視眈眈)'은 '범이 눈을 부릅뜨고 먹이를 노려본다'는 뜻으로,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형세를 살피며 가만히 기회를 엿봄. 또는 그런 모양'을 이르는 말이다.  
 ② '오월동주(吳越同舟)'는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동정서벌(東征西伐)'은 '동쪽을 정복하고 서쪽을 친다'는 뜻으로, 이리저리 여러 나라를 정벌함'을 이르는 말이다.  
 ⑤ '역지사지(易地思之)'는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을 이르는 말이다.

## 9. 문제를 해결하는 힘



### (1) 옷 한 벌로 세상 보기

#### 교과서 꼼꼼히 이해하기

❶ 163쪽

01 ④ 02 ⑤ 03 ④ 04 노동 비용을 줄여 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이다.

❷ 165쪽

05 ③ 06 ④ 07 최신 유행하는 옷을싼 가격에 살 수 있게 되어 열렬히 호응한다. 08 ⑤

❸ 167쪽

09 ④ 10 ⑤ 11 ④ 12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옷 입기를 실천해야 한다.

01 '서론-①'에서 '요즘은 유행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 거의 매일 새로운 옷이 쏟아져 나오고', '유행은 어느새 바뀌고 몇 번 입지도 않은 옷은 더 이상 입지 못할 옷이 되어 버려진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글쓴이가 인식한 문제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유행을 따르기 위해 옷을 쉽게 사고 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 자료】패스트패션(fast fashion)

최신 유행을 즉각 반영한 디자인, 비교적 저렴한 가격, 빠른 상품 회전율로 승부하는 패션 또는 패션 사업을 뜻하는 말이다. 주문을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인 패스트푸드(fast food)처럼, 빠르게 제작되어 빠르게 유통된다는 의미에서 패스트패션(fast fashion)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02 '본론 1-①'에 제시된 옷 소비가 증가하는 원인은 의류 업체 간의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옷 가격이 점점 내려간 것이고, '본론 1-②'에 제시된 원인은 의류 업체 간의 속도 경쟁으로 옷 출시 기간이 줄어들어 최신 유행을 반영한 옷이 빠르게 공급되는 것이다.

03 ㉠에서는 미국에서 발간한 한 잡지의 보도를 인용하여 미국에서 옷 구매량이 빠르게 늘어났음을 제시하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 하여 현대인들의 옷 소비가 증가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04 서술형 '본론 1-①'에서 의류 산업은 노동 집약 산업으로 제품을 만들 때 노동력의 비중이 크므로, 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동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의류 업체가 임금에 낮은 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 평가 기준                    | 확인 ☑                     |
|--------------------------|--------------------------|
| 노동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내용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라는 내용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05 '본론 2-③'에서 '디자인 도용에 대응하기 위해 원작 디자인은 지적 재산권 소송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원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적 재산권의 특성상 원작 디자이너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본론 2-③'에서 소송에 드는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디자이너도 많다고 하였다.

② '본론 2-④'에서 지적 재산권 소송의 경우 창조와 모방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소송 과정이 길고 복잡하다고 하였다.

④ '본론 2-②'에서 디자인 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처벌로 입게 될 손해보다 더 크다고 하였다.

⑤ '본론 2-②'에서 일부 의류 업체는 옷을 빠르게 생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옷을 디자인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06 '본론 2-④'에서 한 해 생산되는 의류 중 4분의 3이 버려지고, 버려지는 옷과 직물의 65퍼센트는 합성 섬유로 만들어져 매립해도 좀처럼 썩지 않고 태우면 유해 물질을 내뿜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옷들이 타지 않아 해양에 배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7 서술형 '본론 2-①'을 보면 신상품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싼 가격으로 파는 것은 하나의 사업 전략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최신 유행을 반영한 옷을싼 가격에 살 수 있게 되어 이러한 전략에 열렬하게 호응하고 있으며, 의류 업체들은 많은 이익을 얻게 되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고 하였다.

| 평가 기준                  | 확인 ☑                     |
|------------------------|--------------------------|
| 소비자가 열렬히 호응한다는 반응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소비자가 그와 같이 반응한 이유를 썼다. | <input type="checkbox"/> |

08 쉬운 옷 소비가 가능해진 것에 대해 소비자들은 열렬히 호응한다고 하였으므로 소비자가 너무 빠른 유행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본문의 내용과 맞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④ ㉠은 긍정적으로만 보이는 의류 업체의 사업 전략이 가진 부정적 영향을 문제로 제기한 것으로, 이 글에서는 디자인 도용과 환경 오염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09 '결론-④'에서 공정한 과정을 거쳐 옷을 생산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들고, 당연히 그 비용은 옷 가격에 반영된다고 하였다. 이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공정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옷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공정한 과정을 거쳤더라도 가격이 비싼 옷은 구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글쓴이의 생각과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①, ② '결론-①'에서 의류 업체는 이윤을 내는 데 열중하고 소비자는 유행을 좇아 옷을 구매하여 기업 윤리나 소비 윤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③ '결론-④'에서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지구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⑤ '결론-②'에서 옷의 정보를 알기 어렵다면 소비자는 해당 기업에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10** '본론 2-⑥'에서, 일부 의류 업체들이 옷을 더 빨리 생산하기 위해 공장에 납품 기한을 최소한으로 주면 의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근로를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됨을 알 수 있다.

**11** 이 글에서는 유행에 따른 과도한 옷 소비를 비판하고 있으며, 가격이 비싸더라도 공정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옷을 구매해야 한다고 하였다. 옷을 구매할 때 유행에 맞는지, 가격이 저렴한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글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오답 풀이** 이 글의 '결론'에서 옷이 쉽고 빠르게 소비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는 내가 입을 옷을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었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⑤) 옷을 필수품으로 인식하고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지 않아야 한다(③)고 하였다. 또한 옷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옷을 소비해야 한다(①)고 하였다. 그리고 옷에 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경우 해당 기업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②).

**12** 글쓴이는 '결론-④'에서 이 글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주장을 밝히고 있다. 즉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지 결정하는 작은 선택이 의류 산업과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구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옷 입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168~171쪽

**01 ③**    **02 ①**    **03** • 의류 업체 간의 가격 경쟁으로 옷 가격이 내려감    • 의류 업체 간의 속도 경쟁으로 유행이 반영된 옷이 빠르게 출시됨  
**04 ②**    **05 ④**    **06 ④**    **07** 옷의 정보를 확인하고 생산 과정이 공정했는지 따져 본 후 옷을 구매하는 것이다.    **08 ①**    **09 ⑤**  
**10 ①**    **11 ⑤**    **12 ⑤**    **13** 옷 구매 횟수와 구매량이 증가하는 추세는 세계적인 현상임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01** 이 글에서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라)에 제시된 그린피스 2016년 보도 자료는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통해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② 옷 소비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 즉 (다)에서 디자인 도용 문제, (라)에서 환경 오염 문제, (마)에서 노동력 착취 문제를 제시한 후 (바)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밝히고 있다.

④ (마)에서 방글라데시의 사례를 통해 개발 도상국의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글쓴이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⑤ (가)와 (나)에서 옷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의 원인을 의류 업체 간의 가격 경쟁 또는 속도 경쟁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02** 글을 읽을 때 글쓴이의 생각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자신이 공감하는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글의 내용을 유연한 사고로 바라보고 배경지식이나 이전에 읽은 책의 내용을 살려 자신

의 관점에서 재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글을 읽으면 단순히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글쓴이의 생각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만한 창의적인 방안을 떠올릴 수 있다.

**03 서술형** 이 글의 (가)와 (나)에서는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옷을 쉽게 사고 버리는 현상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가)에서는 의류 업체 간의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옷 가격이 내려간 것을, (나)에서는 의류 업체 간의 속도 경쟁으로 옷의 출시 기간이 줄어든 것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 평가 기준                                    | 확인 ☑                     |
|------------------------------------------|--------------------------|
| 의류 업체 간의 가격 경쟁으로 옷 가격이 저렴해졌음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의류 업체 간의 속도 경쟁으로 유행을 반영한 옷이 빠르게 생산됨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04** (바)의 내용을 참고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유행을 따르기 위해 옷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면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옷 입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주장을 알 수 있다.

**05** (라)에서 버려지는 옷과 직물의 65퍼센트는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매립해도 썩지 않고 태우면 유해 물질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④의 설명은 천연 섬유인 면화에 해당하는 문제점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일부 의류 업체는 옷을 빠르게 생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옷을 디자인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② (다)에서 세계적인 규모의 한 의류 업체는 디자인 도용 혐의로 50번 넘게 고발당했지만 디자인 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처벌로 입게 될 손해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③ (라)에서 '한 해에 생산되는 의류의 양은 ... 그중 4분의 3, 즉 600억 점의 의류는 결국 소각되거나 매립된다.'라고 하였다.

⑤ (마)에서 많은 의류 업체는 시간당 임금이 낮은 개발 도상국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데, 일부 업체는 납품 기한을 최소한으로 주기 때문에 노동자는 납품 기한을 지키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노동을 강요당하고 쉬는 시간도 빼앗기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하였다.

**06** 나. (라)에 따르면,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의류를 태우면 유해 물질을 내뿜어 환경 오염을 가속화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매년 어마어마한 양으로 쏟아지는 버려지는 의류를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르. (마)에 따르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일부 의류 업체로 인해 개발 도상국의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르. (바)에 따르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을 것인지 결정하는 우리의 작은 선택은 전 세계 의류 산업과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 나아가 지구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며, 우리가 이를 깨달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ㄱ. 디자인 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처벌로 입게 될 손해보다 크기 때문에 의류 업체가 디자인 도용 혐의로 고발당하여도 이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모든 의류 업체의 디자인 도용 여부를 조사하여 고발해야 한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ㄴ. 이 글에서는 개발 도상국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 도상국에서 의류를 생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07 서술형** (바)의 내용으로 볼 때, 글쓴이는 번거롭더라도 옷의 정보를 확인하고, 생산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따져 본 후, 이와 같은 정보를 고려하여 옷을 소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글쓴이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으로 과도한 옷 소비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글쓴이가 제시한 옷 소비 방법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완결된 문장으로 썼다.          | <input type="checkbox"/>               |

**08** 이 글은 현대인들이 유행을 따르기 위해 옷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문제 상황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옷의 정보 확인하기, 생산 과정의 공정성 평가하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결 방안들의 장단점을 비교하거나 그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② (나), (다), (라)에서 의류 업체 간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옷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 의류 업체 간 속도 경쟁으로 최신 유행을 반영한 옷을 생산하는 기간이 줄었기 때문에 소비자가 많은 옷을 쉽게 소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③ (나)에서 A 기업이 청바지를 5만 원에 팔고 B 기업이 4만 5천 원에 팔 때 소비자가 어떤 기업의 청바지를 살 것인지에 대한 상황을 가정하여 의류 업체 간 가격 경쟁이 치열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④ 우리가 매일 입는 옷과 관련하여 옷을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는 현대 사회의 문제적 현상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⑤ (마)에서 한 의류 업체의 경우 디자인 도용 혐의로 50번 넘게 고발당하고 언론으로부터 수차례 비판을 받았지만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예를 들어, 일부 의류 업체들이 옷을 빠르게 생산하기 위해 타인의 디자인을 도용하는 문제점에 대해 말하고 있다.

**09** (라)에서 신상품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싼 가격으로 파는 사업 전략은 소비자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고,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게 된 의류 업체는 함박웃음을 지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② (나)에서 옷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의류 업체 간의 치열한 가격 경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의류 산업은 대표적인 노동 집약 산업이라서 전체 생산 비용에서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임금이 낮은 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노동 비용을 줄이고 있다고 하였다.

③ (가)에서 요즘은 유행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 매일 새로운 옷이 쏟아져 나오고, 유행에 따라 몇 번 입지도 않은 옷은 더 이상 입지 못할 옷이 되어 버려진다고 하였다.

④ (다)에서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도가 낮은 부분을 축소하거나 없애 제작 기간을 줄이고 운송 시간도 단축하여, 현재는 단 2주 만에 제품을 생산해서 매장에 선보이는 의류 업체까지 등장했다고 하였다.

**10** 이 글의 서론인 (가)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유행을 따르기 위해 옷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현상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1** 패스트패션의 특징은 최신 유행을 반영한 디자인, 비교적 저렴한 가격, 빠른 상품 회전율이다. 이 글과 <보기>에는 생산·유통되는 의류의 종류나 양에 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 글쓴이는 옷의 정보를 알기 어렵다면 해당 기업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옷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옷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옷을 많이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사)에서 공정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옷을 소비함으로써, 의류 산업과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구의 환경까지 공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②, ③, ④ (바)에서 유행을 따라 옷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적 재산권 침해, 환경 오염, 기업의 노동력 착취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다.

**13 서술형** 글쓴이는 2010년대에 들어 미국인이 구입한 옷의 양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자료를 통해 옷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흐름이 아니라 의류 소비의 세계적인 흐름임을 드러내고 있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옷 구매 횟수와 구매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한 문장으로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172~173쪽

**01 ③ 02 ② 03** 의류 업체들이 옷을 빠르게 생산하기 위해 옷을 디자인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 또한, 디자인을 도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처벌로 인한 손해보다 크기 때문이다.

**04 ② 05 ②**

**01** 이 글은 어떤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드러내는 논설문(주장하는 글)이다. 논설문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여 증명함으로써 읽는 이를 설득하기 위해 쓴다. 때문에 논설문의 문체는 주로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다. 글쓴이의 개성적이고 독특한 문체를 살펴보는 것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방법이다.

**02**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와 (나)는 문제 상황의 원인, (다)~(마)는 문제 상황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바)는 해결 방안이다. 의류 업체들이 디자인을 도용해 불법 복제품을 제작하는

것은 (다)의 내용인데, 이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므로 ㉠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에서 옷 소비가 증가하는 문제의 원인은 의류 업체 간의 가격 경쟁과 속도 경쟁 때문이라고 하였다.

③ (라)는 문제 상황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며, 의류의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고 하였다.

④ (마)는 문제 상황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며, 개발 도상국의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였다.

⑤ (마)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언급한 부분이며,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옷 입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하였다.

**03 서술형** (다)를 통해 일부 의류 업체들이 옷을 빠르게 생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디자인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며, 디자인 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처벌로 입게 될 손해보다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디자인을 도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기>의 A사는 최신 유행을 즉각 반영한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 빠른 상품 회전율로 승부하는 패스트패션 브랜드로, (다)에 제시된 것과 유사한 이유로 ○○○ 씨의 디자인을 도용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평가 기준                                         | 확인 ☑                     |
|-----------------------------------------------|--------------------------|
| 옷을 빠르게 생산하기 위해 디자인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디자인을 도용하여 얻는 이익이 처벌로 인한 손해보다 크다는 내용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04** 이 글에 비춰 볼 때, <보기>에서 개발 도상국이 파키스탄의 어린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축구공을 만드는 것은 싸고 빠르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임을 추측할 수 있다. 아이들이 노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축구공을 싼값에 생산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생산 기간이 단축될지는 <보기>나 이 글의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③ (가)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데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을 노동 집약 산업이라고 하였고, (마)에서 많은 의류 업체가 제품 제작에 드는 비용을 줄이려 시간당 임금이 낮은 개발 도상국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든다고 하였다.

④ (마)에서 최소한으로 준 납품 기한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파키스탄 공장의 노동자들은 납품 기한을 지키기 위해 하루 종일 일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⑤ <보기>에서는 ○○○ 회사의 축구공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따라서 이 글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소비자의 의류 불매 운동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05** 심화 학습은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학습하는 것이다. 이미 (마)에서 개발 도상국인 방글라데시의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바)에 언급되어 있으므로 ②는 심화 학습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디자인이 도용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로 인해 불이익을 겪은 디자이너의 사례는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와 해결책을 생각해 보는 것은 심화 학습 내용으로 적절하다.

③ (나)에서 의류 업체 간의 속도 경쟁으로 가능한 온갖 운송 방법을 사용하여 운송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류 업체가 운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이 방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은 심화 학습의 내용으로 적절하다.

④ (가)에서 의류 산업은 노동 집약 산업이라고 하였고, (마)에서 방글라데시의 의류 산업 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노동 집약 산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산업의 노동자들은 어떤 대우를 받는지 확인하는 것은 심화 학습의 내용으로 적절하다.

⑤ (나)에서 옷을 만들어 가게에 전시하기까지는 약 6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현재는 그 기간이 훨씬 줄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의류 제작 기간이 6개월인 업체와 2주인 업체의 이익을 비교해 보고, 의류 제작 기간을 줄이는 것이 실제로도 효율적인지 확인하는 것은 심화 학습의 내용으로 적절하다.

## (2)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 교과서 꼼꼼 이해하기 |                                |      |      |      |
|-------------|--------------------------------|------|------|------|
| ① 177쪽      | 01 ③                           | 02 ⑤ |      |      |
| ② 179쪽      | 03 휴대 전화를 유용한 수업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 04 ③ | 05 ② |      |
| ③ 181쪽      | 06 ⑤                           | 07 ④ | 08 ① | 09 ④ |

**01** ①은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찬성 측의 의견이다. '반대 1'은 학교는 여러 사람과 함께 생활하며 공동의 규범과 예의범절을 익히는 곳이기에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론을 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반대 측은 휴대 전화를 제외한 개인 소지품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②, ④ 찬성 측의 의견이다.

⑤ '반대 2'는 학교는 친구, 선생님과 직접 소통하는 곳이라고 하였으나, 휴대 전화가 필요한 응급 상황이 있다는 것은 '찬성 1'의 의견이다.

**02** 필수 쟁점은 논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어야 하는 세부 주장으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은 이에 대해 논증을 구성하게 된다. '찬성 1'은 ③과 같이 휴대 전화 사용을 강제적으로 규제하면 학생들의 자율적인 절제 의지를 꺾으므로 학생 스스로 휴대 전화를 조절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1'은 ⑥과 같이 청소년들이 휴대 전화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스스로 이를 조절하기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로 보아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다투는 필수 쟁점은 '학생들은 휴대 전화를 자율적으로 절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이다.

**03 서술형** '찬성 2'와 '반대 2'는 입론에서 휴대 전화를 수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 담화에서 알 수 있는 필수 쟁점은 '휴대 전화를 유용한 수업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이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휴대 전화를 수업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썼다. | <input type="checkbox"/>               |

**04** '반대 1'은 '찬성 2'의 입론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토론 순서를 지키지 않고 끼어들어 자신의 의견을 말함으로써 상대의 발언을 방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찬성 2'가 "제 발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사회자가 "반대 신문은 찬성 측의 입론 후에 듣겠습니다. 찬성 측 토론자께서는 입론을 계속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다.

**05** '반대 2'는 '찬성 2'가 청소년이 휴대 전화를 유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는지 물으며 반대 신문을 하자, 한국 정보화 진흥원이 2015년에 발표한 조사 내용을 입론의 근거로 제시하여 이에 답변하였다. 이처럼 권위 있는 기관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면 주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06** 반론은 상대측에서 제시한 주장, 근거, 사례 그리고 주장과 근거 간의 연결 고리 등에서 허점과 오류를 찾아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측이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한 반론의 내용이 아니다.

**07** 사회자는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자의 발언을 정리·요약하여 말해 준다. 또한 토론의 배경과 규칙을 설명하고 논제를 제시하며 토론자들이 규칙을 어길 때 이를 제지하여 원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사회자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지녀야 하기 때문에 양측의 의견 중 어느 쪽에 동의하는지 밝혀서는 안 된다.

**08** '찬성 1'은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개인 사용 물품을 규제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고(ㄴ), 또한 교내에서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한다고 해서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하였다(ㄷ). 한편 '찬성 2'는 반론에서 휴대 전화의 교육적인 활용 가능성을 폄하하지 말고 휴대 전화를 학습에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ㄱ).

**09** 토론에서 토론자가 제시하는 사례는 청중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라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사례여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공정성을 점검하는 요소이다.

②, ⑤ 타당성을 점검하는 요소이다.

③ 신뢰성을 점검하는 요소이다.

#### 【참고 자료】 토론의 평가 기준

|     |                                                             |
|-----|-------------------------------------------------------------|
| 신뢰성 | 제시한 정보나 자료의 출처가 믿을 만한가?                                     |
| 타당성 | 근거로부터 결론을 끌어내는 방식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이치에 부합하는가?                    |
| 공정성 |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고 도리에 맞는 내용이며, 사실이나 가치 판단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가? |

#### 소단원 평가 문제

본문 182~187쪽

**01** •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현재 상황은 부당하다. • 학생들은 휴대 전화를 자율적으로 절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02** ④ **03** ⑤  
**04** ③ **05** ③ **06** ② **07** ① **08** 토론에서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발언해야 하는데, '반대 1'은 상대측의 발언 도중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여 상대측의 발언을 방해하였다. **09** ④ **10** ③  
**11** ⑤ **12** ③ **13** ④ **14**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률이 성인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을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 제시하여, 상대의 의견을 반박하고 주장의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15** ③

**01 서술형**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필수 쟁점이다. 논제에 대해 '찬성 1'은 입론에서 학생들은 휴대 전화를 소지하고 사용할 자유가 있고, 휴대 전화 규제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절제 의지를 꺾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반대 1'은 입론에서 학교에서는 휴대 전화 사용의 자유보다 바른 생활 태도를 익히는 것이 우선이며, 청소년은 절제력이 부족해 휴대 전화 중독률이 높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입론에서 알 수 있는 필수 쟁점은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현재 상황은 부당하다.'와 '학생들은 휴대 전화를 자율적으로 절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이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현재 상황은 부당하다는 쟁점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학생들은 휴대 전화를 자율적으로 절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쟁점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02** 이 토론에서 사회자는 토론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질문을 통해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부분도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이번 시간에는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을 통해 사회자가 논제를 제시하고 토론의 시작을 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그럼 먼저 찬성 측 제1 토론자의 입론을 듣겠습니다."와 "반대 측 제2 토론자,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통해 사회자가 토론의 절차에 따라 발언권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양측 토론자는 토론 규칙을 잘 지키며 적극적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을 통해 사회자가 토론 참여자에게 토론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당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사회자의 첫 번째 발언인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라는 말을 통해 사회자가 논제와 관련한 사건을 밝히고 토론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반대 1'은 입론에서 한국 정보화 진흥원이 발표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률과 성인의 휴대 전화 중독률을 비교하고,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률이 전년에 비해 3.7퍼센트 증가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반대 1'은 권위 있는 기관의 발표 내용을 근거로 청소년이 과도하게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것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찬성 1'의 입론에는 토론에 사용된 주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찬성 1'은 "상당수 학교에서는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휴대 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라며 일반적인 통념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했을 때의 장점과 관련이 없으며 현재 상황을 보여 줄 뿐이다.

③ '반대 1'은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④ '반대 1'은 한국 정보화 진흥원에서 발표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학생들의 과도한 휴대 전화 사용 실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이 필요한 이유와는 관련이 없다.

**04** [B]에서 '찬성 1'은 "이미 학생들은 휴대 전화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여 주제와 관련한 실상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학교에서 휴대 전화 사용을 제한한다고 해서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을 막을 수 있을까요?"라고 하여 상대측 주장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반대 신문의 목적**

- 요점을 명확히 한다.
- 주요 논쟁점을 설정한다.
- 상대의 시인이나 용인을 얻어 낸다.
- 상대의 오류, 특히 논리적 오류를 드러낸다.
- 청중에게 자신의 날카로운 비판력과 분석력을 보여 준다.

**05** 찬성 측은 상당수의 학교에서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휴대 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지 이를 논제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6** '찬성 2'는 휴대 전화를 교육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며 실제로 휴대 전화를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오답 풀이** ① '찬성 2'는 교육 현장에서 휴대 전화를 활용하는 수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며 자신이 주장한 휴대 전화의 교육적 활용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반대 1'은 반대 신문을 통해 휴대 전화 사용이 성적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찬성 측의 주장대로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④ '반대 2'는 한국 정보화 진흥원이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휴대 전화가 유해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을 언급하며 찬성 측이 주장한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⑤ '반대 2'는 한국 정보화 진흥원이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하면 학습보다는 유해적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수업과 학습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을 주장하고 있다.

**07** '찬성 2'는 입론과 반대 신문에 대한 답에서, 휴대 전화의 정보 검색 기능, 쌍방향 소통 기능, 동영상 및 사진 촬영 기능 등

의 여러 기능이 다양한 과목의 수업에서 도움이 되는 사례와 실제 교육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이미 제시하였다.

**오답 풀이** ② '찬성 2'는 교육 현장에서 휴대 전화를 활용하는 방법을 자신의 블로그에 소개한 선생님이 계시다고 하였다. 이 블로그 주소를 출처로 정확히 밝히면 자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③ '반대 1'은 휴대 전화 사용이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성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으나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휴대 전화 사용이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성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근거 자료를 제시한다면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④ '반대 2'는 한국 정보화 진흥원이 2015년에 발표한 조사 내용을 제시하여 청소년이 휴대 전화를 이용하는 용도를 제시하고 있다. '반대 2'는 이러한 현황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⑤ '반대 2'는 학생들이 휴대 전화를 사용할 때 화면을 금방 넘겨 버리는 모습과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정보를 검색하여 쉽게 해결하려는 경향 등을 설명하며 청소년들의 이러한 휴대 전화 사용 양상으로 볼 때, 휴대 전화가 학습보다는 유해적 용도로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08 서술형** [A]에서 '반대 1'은 '찬성 2'의 입론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반대 신문을 하고 있다. 토론에서는 말하기의 순서가 정해져 있으며 사회자가 발언권을 부여하면 말을 해야 함에도 '반대 1'은 상대측의 발언 도중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상대의 발언을 방해하고 있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토론에서는 순서에 따라 발언해야 함에도 발언 도중에 자신의 의견을 말했음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상대측의 발언을 방해했음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09** '반대 2'는 '학교에서만이라도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하여 실제로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으므로 '반대 2'가 직접 소통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만, 간접적인 소통과 직접적인 소통의 특성을 대조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제시된 글은 토론의 절차 중 '반론'에 해당한다. 반론에서 토론자들은 상대의 주장이나 근거가 지닌 허점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한다.

② '반대 1'은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교내에서의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③ '찬성 1'은 '공연이나 영화를 볼 때 관객이 스스로 휴대 전화를 끄게 하는 것처럼'이라고 다른 상황에 비유하여 학생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⑤ '찬성 2'는 마지막 발언에서 "일상 깊숙이 들어온 휴대 전화를 학생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하기보다는 학습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10** '찬성 1'은 '반대 1'이 반론에서 제시한 내용 중,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이 심각하며 이를 예방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라고 하며 반대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한다고 해서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을 막을 수는 없으며, 학생 스스로 휴대 전

화 사용을 절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을 주장하며 '반대 1'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반대 1'은 학교는 친구, 선생님과 관계를 형성하며 더불어 생활하는 곳이므로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휴대 전화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교라는 공간적 특성을 언급하며 찬성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반대 1'이 휴대 전화 중독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내 휴대 전화 사용 규제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④ '반대 2'는 휴대 전화를 활용한 교육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교육 환경과 청소년은 직접 소통보다 휴대 전화를 이용한 간접 소통에 익숙하다는 청소년의 소통 실태를 제시하여, 학교에서만이라도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⑤ '찬성 2'는 '반대 2'가 교내에서의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하자, 앞으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휴대 전화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폄하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고 하며 반박하고 있다.

**11** '찬성 1'의 입론에서는 교내에서의 학생들의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부당한가의 문제를, '반대 1'의 입론에서는 학생들이 휴대 전화 사용을 자율적으로 절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찬성 2'와 '반대 2'의 입론에서는 휴대 전화를 수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필수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12** '찬성 2'는 수학 시간에는 칠판의 글씨를 사진으로 찍고, 과학 시간에는 실험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복습하고, 국어 시간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모르는 단어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휴대 전화를 수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대 전화의 인터넷 검색 기능을 통해 주어진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은 '반대 2'의 의견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④ (다)와 (라)에서는 '찬성 2'와 '반대 2'가 휴대 전화를 유용한 수업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각자 논증을 구성하여 토론하고 있다. '찬성 2'는 휴대 전화의 여러 기능을 수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반대 2'는 휴대 전화를 교육적 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은 과장된 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찬성 2'는 입론에서 휴대 전화의 정보 검색 기능, 쌍방향 소통 기능, 동영상 및 사진 촬영 기능 등은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⑤ '반대 2'는 입론에서 휴대 전화를 사용할 때에는 한 가지 자극에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새로운 자극을 찾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력이 저하된다고 하였다.

**13** '반대 1'은 '찬성 2'의 입론이 끝나기 전에 중간에 끼어들어 자신의 의견을 말하였다. 또한 반대 신문물을 하면서도 '찬성 2'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근거 없는 발언을 하며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

**14 서술형** '반대 1'은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률에 관한 한국 정보화 진흥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

률이 성인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표한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률이 성인에 비해 높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였을 때의 효과를 적절히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완성된 문장으로 썼다.                            | <input type="checkbox"/>               |

**15** ㉠은 '반대 2'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는 반대 신문이다. 즉, 상대측의 입론이 끝난 뒤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여 상대측의 주장이나 근거 중 논제에서 벗어난 부분이나 모순된 내용, 논리적 오류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 [ 참고 자료 ]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

|              |                                                                                                                                                        |
|--------------|--------------------------------------------------------------------------------------------------------------------------------------------------------|
| <b>입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찬성 측: 현재 상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필수 쟁점별로 주장과 근거를 들어 논증함</li> <li>반대 측: 논제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찬성 측의 주장과 근거를 반박하며 논증함</li> </ul> |
| <b>반대 신문</b> | 상대측 주장의 허점을 지적하여 질문함                                                                                                                                   |
| <b>반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대측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거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상대측의 논증을 지적함</li> <li>자기 측 논증의 논리성을 강조하여 주장을 강화함</li> </ul>                |

#### 소단원 심화 문제

본문 188~189쪽

**01** 반대 신문식 토론 **02** ③ **03** ⑤ **04** ② **05**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률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볼 때, 청소년의 판단력과 절제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내에서라도 휴대 전화 사용을 제한한다면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01** <보기>의 설명과 이 토론의 내용을 볼 때, 이 토론은 어떤 논제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여 상대방의 논지를 반박함으로써 승부를 가리는 반대 신문식 토론임을 알 수 있다. 반대 신문에서 질문자는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 중 논리적인 오류를 찾아내어 질문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하게 토론을 진행한다. 질문 과정을 통해 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하며 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02** '㉠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긴급하게 연락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현재 상황은 부당하다.'라는 필수 쟁점에 대한 찬성 측 주장의 근거이다.

**03** '반대 1'은 자신이 제시한 자료가 한국 정보화 진흥원에서 2015년 발표한 조사 내용이라고 출처를 밝혔으므로 출처가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찬성 1'은 휴대 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 현황을 '상당수'라고 모호하게 표현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② '찬성 1'은 자신의 주장과 상반되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 ③ '반대 2'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질문한 것은 아니다.
- ④ '반대 1'은 학교의 성격을 공동의 규범과 예의범절을 익히는 곳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학교의 성격을 본질과 다르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 참고 자료 ] 토론자의 올바른 태도**

- 논제에서 벗어난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 토론 규칙을 준수하며 다른 참여자에게 예의를 갖춰야 한다.
- 감정을 앞세우거나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고 침착하고 논리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04** <보기>는 휴대 전화를 조회 시간에 수거하고, 종례 시간에 돌려주는 A 중학교의 규정에 대해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이다. 즉,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판단이므로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할 것을 주장하는 찬성 측이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보기>에서 국가 인권 위원회는 토론을 통해 학생 스스로 규칙을 정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하되, 학생 스스로 휴대 전화 사용을 조절하는 태도를 기르게 하자는 찬성 측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05 서술형** [A]는 '찬성 1'의 반대 신문으로, '찬성 1'은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휴대 전화를 사용하고 있음을 들어 '반대 1'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앞서 입론에서 '반대 1'은 성인보다 훨씬 높은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률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A]에 대해 교내에서라도 휴대 전화 사용을 제한하면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 평가 기준                                                  | 확인 ☑                     |
|--------------------------------------------------------|--------------------------|
|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률과, 부족한 절제력과 판단력을 근거로 들었다.                | <input type="checkbox"/> |
|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제한하면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본문 190~194쪽

**대단원 정리 문제**

- 01** ⑤    **02** ④    **03** ③    **04** ③    **05** '찬성 2'가 휴대 전화의 교육적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한다.
- 06** ④    **07** ⑤    **08** ①    **09** ③    **10** 옷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현상 때문에 디자인 도용, 환경 오염, 노동력 착취의 문제가 발생했다.
- 11** ⑤    **12** ②

**01** (가)와 (나)는 옷 소비가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문제 현상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다) 역시 교내 휴대 전화 사용 규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생긴 문제를 인식하고 토론 활동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는 문제 상황의 원인을 가격 경쟁과 속도 경쟁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 ② (나)는 문제 상황으로 인해 디자인 도용이 발생하는 것을 서술하고 있지만 시간 순서대로 설명한 것은 아니다.
- ③ (다)는 찬성자와 반대자가 상대방에게 논제에 관한 질문을 하여 상대방의 논지를 반박함으로써 승부를 가리는 반대 신문식 토론이다. 문제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최적의 대안을 이끌어 내는 것은 토의이다.
- ④ (가)~(다) 모두 독자나 청중을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2** <보기>에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등록하지 못한 이유는 디자인 등록 비용이 많이 들고 등록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자인 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등록 비용을 낮추고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디자이너의 창의성 계발과 도덕성의 회복이 디자인 도용과 무관하지는 않으나, <보기>와 (나)에서는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의 문제와 등록 제도의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세계적인 규모의 의류 업체는 디자인 도용 혐의로 50번 넘게 고발을 당하고 언론으로부터 수차례 비판을 받았지만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 ② (나)에서 의류 업체가 디자인을 도용하는 이유는 옷을 빠르게 생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옷을 디자인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③ (나)에서 세계적인 규모의 의류 업체가 디자인을 도용한 이유는 그로 인한 이익이 처벌로 입게 될 손해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⑤ <보기>를 통해 디자인을 등록하는 데 한 점당 40만 원 정도가 들고, 신청을 하더라도 3개월 정도 기간이 걸려 소규모 디자인 업체는 따로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럴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03** '찬성 1'의 입론에 따르면, 상당수의 다른 학교에서도 휴대 전화, 즉 개인 소지품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다른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개인 소지품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③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4** '찬성 2'는 '반대 2'의 입론에 대한 자신의 반대 신문에서 '청소년이 휴대 전화를 주로 유흥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라고 하며 상대방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주장이 논점에서 벗어났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찬성 2'는 정보 검색 기능, 쌍방향 소통 기능, 동영상 및 사진 촬영 기능 등 휴대 전화의 다양한 기능을 나열하여 휴대 전화가 다양한 방식의 수업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② '찬성 2'는 입론에서 수학 시간, 과학 시간, 국어 시간에 각각 휴대 전화의 여러 기능을 활용한 수업 활동의 예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④ '반대 2'는 휴대 전화 화면을 볼 때 다음 화면으로 금방 넘겨 버리는 등 학생들의 일반적인 휴대 전화 사용 습관을 상기시키며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⑤ '반대 2'는 휴대 전화는 학습보다 주로 유흥적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면서 휴대 전화의 주된 용도를 소개하고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금지하자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05 서술형** <보기>에서 휴대 전화를 수업에 활용하는 교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휴대 전화를 활용한 수업은 더욱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기>는 '찬성 2'가 휴대 전화의 교육적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찬성 2'가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휴대 전화의 교육적 활용도가 높아지는 등 휴대 전화를 수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06** 토론을 하기 전에 필수 쟁점에 따른 토론 계획서를 작성하면 효과적으로 토론에 임할 수 있다. '찬성 2'의 입론을 보면 휴대 전화의 여러 기능은 학습을 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휴대 전화를 수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찬성 2'는 입론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가능해졌고, 수업에서 휴대 전화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 모든 학교에서 휴대 전화를 이용해 수업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다. 따라서 잘못된 것은 ④이다.

**07** 이 토론에서 '반대 1'은 상대방의 발언 중에 끼어들어 자신의 의견을 말하여 상대방의 발언을 방해하고 있으며, 반대 신문을 할 때에도 상대방을 존중하며 타당한 근거를 들어 질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근거를 대지 않고 발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측 다른 토론자인 '반대 2'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반대 측 다른 토론자의 의견과 상반된 주장을 한다고 할 수 없다.

**08** (다)에서 그린피스 2016년도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한 해에 생산되는 의류가 800억 점이고, 버려지는 의류가 600억 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생산되는 의류의 양보다 버려지는 의류의 양이 많은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②, ③ (라)에서 의류 업체는 옷을 더 저렴하고 빠르게 판매하여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개발 도상국의 공장에 납품 기한을 최소한으로 주고,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짧은 기간에 많은 노동을 강요받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④, ⑤ (나)에서 일부 의류 업체들이 옷을 빠르게 생산하기 위해 옷을 디자인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도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디자인 도용 혐의로 고발당하면서도 디자인 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처벌로 입게 될 손해보다 크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09** (다)는 그린피스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보도 자료를 인용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고, 한 해 생산되고 버려지는 의류와 직물의 양을 인구와 국토에 견주어 표현함으로써 독자가 그 정도를 실감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10 서술형** 많은 옷을 쉽고 빠르게 소비하면서 디자인이 도용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옷과 직물의 소각 및 매립 과정에서 환경이 오염되었다. 그리고 옷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노동력 착취 문제가 발생하였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옷의 소비량 증가라는 원인을 적절하게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디자인 도용, 환경 오염, 노동력 착취의 문제점을 모두 포함하여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제시된 형식으로 문장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11** 찬성 측은 인격체인 학생들이 개인 물품 사용을 규제당하는 것은 부당하고(ㄴ), 학생 스스로 휴대 전화 사용을 절제할 수 있게 해야 하며(ㄷ), 휴대 전화 사용의 제재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규제하기보다는 학습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ㄱ). 반대 측은 학교는 친구, 선생님과 관계를 형성하며 더불어 생활하는 곳이고(ㄷ),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ㄴ), 아직 휴대 전화를 활용한 교육 기반이 구축되지 않았다고 하였다(ㄱ).

**12** 사회자는 반론을 시작하겠다고 말하며 토론을 진행하고, 양측의 반론이 끝난 후에는 평가를 유도하며 토론을 마무리하고 있다.

#### [ 참고 자료 ] 토론 사회자의 역할

- 토론의 논제를 제시하고 내용을 정리한다.
- 논제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며 토론을 진행한다.
- 토론자에게 발언 기회와 시간을 균등하게 제공한다.
- 토론자들이 토론의 형식과 절차를 지키며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끈다.

## 시험 전에 풀어 보는 내신 적중 문제



### 6. 함께 만드는 세상 (1) 두근두근 내 인생

본문 196~197쪽

- ① 시나리오    ② 장 씨    ③ 조로중    ④ 미라  
⑤ 대수

01 ⑤    02 ③    03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04 ③    05 ③

**01**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담아 창작한 문학 작품을 읽고, 독자는 여러 사람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자신의 삶과 우리 사회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02** 이 글의 '아름'은 '여자'나 '불량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 반대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아름'은 (다)에서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고 창피해하며, 선글라스를 쓰고 다닌다.

② '여자', '불량한 학생들', 길에 다니는 행인들은 '아름'을 혐오하거나 괴롭히고 있다.

④ (나), (다)를 통해 '아름'이 평범한 또래와 다른 외모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다)에서 '미라'의 말을 통해 '아름'이 병원비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는 부모님의 상황을 염려하는 것으로, 속이 깊은 '아름'의 성격을 보여 준다.

**03 서술형** (라)에서 '아름'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순간들을 나열하며 이것이 바로 자신이 '살고 싶어지는 때'라고 한 것은, 평범한 삶의 가치를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평가 기준                                           | 확인 ☑                     |
|-------------------------------------------------|--------------------------|
| '아름'이 나열한 것들의 공통점으로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순간들이라는 내용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완성된 한 문장으로 썼다.                                  | <input type="checkbox"/> |

**04** ㉠ '여자'와 ㉡ '아이들'은 '아름'의 외모만 보고 '아름'에 대한 불쾌감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자신과 다른 대상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이다.

**05** 이 글은 '아름'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 (나)에서 '불량한 학생들'이 '아름'을 괴롭히는 장면에서는 '아름'의 대응 태도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량한 학생들'의 태도를 통해 자기 자신과 사회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적절하다.

### (2)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

본문 198~199쪽

- ① 갈릴레이    ② 존 스노    ③ 이단    ④ 인용  
⑤ 주제    ⑥ 목적    ⑦ 예상 독자    ⑧ 매체  
⑨ 쓰기 맥락    ⑩ 고쳐쓰기

01 ⑤    02 ④    03 ①    04 개요 작성과 글 쓰기

05 ②    06 ③    07 ㉠는 격식체를, ㉡는 비격식체를 사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와 ㉡의 예상 독자가 다르거나, 글이 실릴 매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01** 글을 쓸 때에는 다양한 글쓰기 상황인 쓰기 맥락을 살펴야 하는데, 쓰기 맥락에는 글의 주제, 글을 쓰는 목적, 예상 독자, 글이 실릴 매체 등의 요인이 있다. 글에서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였고, 문장이 자연스러운지는 글을 쓴 뒤 평가해 볼 사항으로 글을 쓰기 전 고려해야 할 다른 쓰기 맥락들과 거리가 멀다.

**02** 이 글은 기존의 편견을 버리고 '용기 있는 이단자'들의 새로운 생각을 수용하자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④와 같이 글쓴이가 '용기 있는 이단자'들을 발굴하려 하거나 이를 통해 과학의 발전을 도모하려 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을 쓴 목적은 새로운 생각을 수용하자는 주장을 독자에게 설득하기 위함이다.

② 이 글은 용기 있는 이단자들의 예로 '갈릴레이'와 '존 스노'의 사례를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③ 이 글은 논설문의 구성을 갖춘 한 편의 완성된 글로, 인쇄 매체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

⑤ 글쓴이의 주장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고 있으므로 일반인을 예상 독자로 설정할 수 있다.

**03** 이 글은 '갈릴레이'와 '존 스노'의 사례를 통해, 기존의 지배적 통념과 다른 새로운 생각과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야 조직과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짐을 주장하고 있다.

**04** 이 글은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글로, 이와 같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보기>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며, 글을 쓰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근거를 마련한 후에는 개요를 작성하고 글을 써야 한다.

**05** 글을 쓰기 전에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글의 주제와 예상 독자와 같은 쓰기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환경 단체의 재정 현황은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자.'라는 주제와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

**06** 설득하는 글의 '본론'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 해결책과 관련된 사례, 또는 그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산업화 시대 이후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하는 것은 '본론'보다 '서론'에서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07 서술형** ㉠과 ㉡는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자는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는 격식체를 사용하고, ㉡는 비격식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쓰기 맥락 요인 가운데 예상 독자 혹은 글이 실릴 매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와 ㉡의 차이점을 알맞게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차이를 불러온 쓰기 맥락 요인으로 예상 독자와 글이 실릴 매체를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7. 우리의 말과 글을 따라서

### (1) 국어의 문법 요소

본문 200~201쪽

- |       |       |       |       |
|-------|-------|-------|-------|
| ① 청자  | ② 종결  | ③ 목적어 | ④ 일치  |
| ⑤ 진행상 | ⑥ 완료상 | ⑦ 라고  | ⑧ 피동문 |
| ⑨ 주제  |       |       |       |

01 ㉠ 02 ㉡ 03 ㉢ 04 ㉤ 05 ㉥ 06 우리는 국어 선생님께 “선생님, 재밌는 옛날이야기를 해 주세요.”라고 졸랐다. 07 ㉦ 08 ㉧ 09 ㉨

**01** 주제 높임법은 문장의 주제, 즉 주어를 높이는 방법이다. 화자, 즉 말하는 사람을 높이는 표현은 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높임 표현은 ‘께서, 께’ 등과 같은 조사와 ‘-(으)사-’의 선어말 어미를 통해 실현되며, 시간 표현은 관형사형 어미, 선어말 어미를 통해 실현되고, 인용 표현은 ‘고’, ‘라고’의 조사를 통해 실현된다.

② 행위의 주체가 주어가 되는 문장은 능동문이며, 피동문은 행위의 대상이 주어가 되는 문장이다.

③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면 과거 시제,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면 현재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뒤에 오면 미래 시제이다. 사건시와 발화시의 선후 관계에 따라 시제의 종류가 나뉜다.

④ 직접 인용 표현은 인용하려는 본래의 말과 글의 형식과 내용이 모두 유지되지만, 간접 인용 표현은 형식은 유지되지 않고 내용만 인용된다.

**02** ㉢은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한 ‘있으시다’라는 표현으로 아버지의 ‘걱정거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문장의 주제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아버지’의 생각인 ‘걱정거리’를 높이는 간접 높임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03** ㉢에서 ‘없다’의 주어는 ‘물건은’이다. 물건은 국어에서 높임의 대상이 아니며, ㉢에 제시된 ‘물건’은 청자의 소유물도 아니기 때문에 높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없으십니다’를 ‘없습니다’로 고쳐야 한다. 또한 ‘찾으시는’의 주체는 청자이므로 ‘찾는’으로 바꾸거나, ‘저희’를 ‘우리’로 바꿀 필요는 없다. 따라서 해당 문장을 바르게 고치려면 ‘찾으시는 물건은 저희 가게에는 없습니다.’라고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높임의 대상이 문장의 객체인 ‘할머니’로, ‘에게’를 ‘께’로, ‘먹으라고’를 ‘잡수시라고’로 고친 것은 객체 높임법에 맞다.

② 높임의 대상은 주어인 ‘삼촌’으로 주제 높임법에 맞게 주격 조사를 ‘께서’로 바꾸었다. 또한 ‘놀러 오다’의 주체는 ‘미영’이므로 ‘오시라고’가 아닌 ‘오라고’로 표현해야 하고, ‘했어’의 주체는 ‘삼촌’이므로 ‘하셨어’로 바꾸는 것이 맞다.

④ ‘올’의 주체는 높임의 대상인 ‘할아버지’이므로 선어말 어미 ‘-사-’를 사용하여 ‘오실’로 고치는 것이 맞다.

⑤ 문장의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으므로 ‘몰어볼게’를 특수 어휘를 사용해 ‘여쭈어볼게’로 고치는 것이 맞다.

**04**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뒤에 오는 시제는 미래 시제이다. ㉤의 ‘들어올’에서 ‘-르’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이다.

**오답 풀이** ① ‘먹은’의 ‘-은’은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이다.

② ‘먹는다고’의 ‘-는’은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③ ‘어렸던’의 ‘-었-’은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며, ‘-던’ 역시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이다.

④ ‘끝났겠더라’의 ‘-았-’은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겠-’은 시제가 아니라 추측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05** ‘늠다’는 형용사가 아닌 동사이기 때문에 진행상을 나타내는 ‘-어 가다’를 사용해도 자연스럽다. 참고로 ‘늠다’의 반의어인 ‘젊다’는 형용사이다.

**오답 풀이** ①, ⑤ ‘깨끗하다’, ‘아름답다’는 모두 형용사인데, 각각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ㄴ-’과 동작상을 사용하여 어색한 문장이 되었다.

③, ④ ‘어둡다’, ‘평화롭다’는 모두 형용사인데, 진행상을 표현하는 ‘-고 있다’와 결합하여 어색한 문장이 되었다.

**06 서술형** 직접 인용은 인용절에 큰따옴표를 하고, 인용절 다음에 조사 ‘라고’를 쓴다. <조건>에서 직접 인용절에 청자를 포함하고 높임 표현은 비격식체로 쓰라고 하였으므로, ‘선생님’을 쓰고, 높임 표현은 ‘해요체’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조건>에 맞게 문장 전체를 고쳐 쓰면, ‘우리는 국어 선생님께 “선생님, 재밌는 옛날이야기를 해 주세요.”라고 즐겼다.’로 쓸 수 있다.

**07**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는 ‘-어/-아지다’와 ‘-게 되다’가 있다. 따라서 이를 사용해 ‘나누었다’를 바꾸면 ‘나누어졌다’ 또는 ‘나누게 되었다’가 되어야 한다. ‘나뉘었다’는 ‘나누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은 것이다.

**오답 풀이** ① ㄱ은 능동문으로 행위의 주체에 초점을 두어 표현하였고, ㄴ은 피동문으로 행위의 대상에 초점을 두어 표현하였다.

② ㄴ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서술어는 ‘걸었네요’가 된다. 그런데 ㄴ에는 ‘걸다’의 행위를 한 주체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능동문으로 바꿀 때 주어를 추가해야 한다.

③ ㄱ은 주체가 전화를 잘못 걸었다는 의미가 강조되는데, ㄴ은 전화가 잘못 걸렸다는 의미가 강조된다.

④ ‘새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었다.’를 피동문으로 바꾸면 ‘온 세상이 새하얀 눈으로 덮였다.’가 된다. ‘덮였다’는 ‘덮었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은 표현이다.

08 ‘새우다’는 ‘한숨도 자지 아니하고 밤을 지내다.’라는 의미의 동사이다. 따라서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 ‘-게 되다’가 붙은 형태인 ‘새우게 되었다.’는 이중 피동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잊혀질’은 피동 접미사 ‘-하-’와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③ ‘가결되어졌다’는 피동 접미사 ‘-되다’와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④ ‘뉘여지지’는 피동 접미사 ‘-이-’와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⑤ ‘빨려진다’는 피동 접미사 ‘-리-’와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09** 연결 어미 ‘-면서’와 보조 용언 ‘-고 있다’는 진행상을 나타내므로, ‘준현이가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먹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좋으세요'의 주어는 '반응'이므로 높여 표현할 필요가 없다.  
'이 제품은 반응이 아주 좋아요.'라고 써야 한다.

③ 문맥상 참가를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참가한 것이므로, '참가되었다'가 아니라 '참가하였다'로 써야 한다.

④ 큰따옴표가 사용된 직접 인용 표현이므로 인용절 뒤에 ‘고’가 아닌 ‘라  
고’를 써야 한다.

⑤ '아직까지도'는 현재까지 상황이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읽어 버렸다'는 '-어 버리다'를 사용한 완료상이어서 어색한 문장이 되었다.

## (2) 국어의 어제와 오늘

본문 202~203쪽

- ① 성조**      **② 모음 조화**      **③ 명사형 어미**      **④ 외래어**  
**⑤ 8중성법**      **⑥ 끊어적기**      **⑦ 동국정운**      **⑧ 예**  
**⑨ 이동**      **⑩ 이어적기**

- 01 ④    02 ④    03 ③    04 ②    05 ②  
06 ㉠ 자주정신, ㉡ 애민 정신    07 ①

**01** (가), (나)는 15세기, (다)는 16세기의 글로, 모두 중세 국어 시기에 쓰였다. 중세 국어에 유입된 외래어를 통해 이웃 나라와의 접촉 과정에서 새로운 문물이 들어왔을 것을 추측할 수 있으나, 서구 문물이 들어온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서구 문물을 표현하는 말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졌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중세 국어 문헌에서는 현대 국어에서 볼 수 없는 많은 고유어를 찾아볼 수 있다.

②, ③ 중세 국어 시기에는 한자어가 많이 유입되면서 한자어의 쓰임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 가운데 한자어와 고유어의 경쟁이 지속되었고 이전 시기에 비해 한자어의 쓰임이 증가하였다.

⑤ 중세 국어 시기에는 몽고, 중국, 여진 등과의 접촉 과정에서 그 나라들의 문물과 언어가 유입되었다.

**02** 중세 국어에서는 높임 선어말 어미가 현대 국어보다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나)의 ‘말쌈미’에서는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 어휘인 ‘말쌈’이 사용되었고, (다)의 ‘말조운’에서는 기본형 ‘말잡다’에서 볼 수 있듯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인 ‘-잡-’이 사용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부루·매’에서는 받침을 조사나 어미의 초성으로 이어지는 이어적기가, ‘일·흙·을’에서는 앞말의 종성을 그대로 앞말에 적고 뒷말의 초성에는 ‘ㅇ’을 적는 끊어적기가 나타나고 있다.

② (나)에서는 ‘쉽게’라는 의미의 ‘수·빔’에 ‘병(순경을 비춤)’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다)의 ‘발조온’은 15세기에는 ‘발조훈’으로 쓰였으나 16세기에는 ‘병’이 소실되어 ‘발조온’으로 표기되었다.

③ ‘구·래’는 모음 조화가 이루어졌지만, ‘비·르·소·미·오’는 ‘비릇+이·오’와 같이 ‘비릇’이 음성 모음으로 끝났음에도, 양성 모음인 ‘-오-’이 왔으므로 모음 조화에 어긋난 것을 알 수 있다.

⑤ '字·중'는 한자어의 초성, 중성, 종성을 다 표기한 반면, '子·주'는 종성은 표시하지 않고, 현실음대로 표기했다.

**03** (나)의 ‘이셔도’는 ‘있어도’라는 말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다. 한편 (다)의 ‘굴으샤되’에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샤-’가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① ‘-디’는 ‘ㄷ’이 ‘ㅣ’ 모음을 만나서 ‘ㅌ’으로 바뀌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당시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② ‘뿌메’는 ‘뿌+-움+-에’의, ‘아니흠이’는 ‘아니ㅎ+-움+-이’의 형태로 명사형 어미 ‘-움’과 ‘-음’이 사용되었다.

④ ‘쁘들’에서 ‘ㅼ’을, ‘삐’에서 ‘ㅼ’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배’는 ‘바+ㅣ’로, ‘공지’는 ‘공주+ㅣ’로, 현대 국어에서 주격 조사 ‘가’가 쓰일 자리에 ‘ㅣ’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부르.매 아.니 :뵐.씨’의 ‘:뵐.씨’는 ‘뵐+~르씨’의 형태로 ‘뵐다’는 ‘움직이다’라는 뜻이고, ‘~르씨’는 연결 어미이다. 즉 이 구절은 ‘바람에 가깝지 아니하므로’가 아닌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하므로’라고 해석해야 한다.

**05**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중세 국어의 음운에는 ‘△(반치음)’, ‘ㄹ(순경을 비읍)’, ‘ㆍ(아래아)’가 있는데, 이 중 ①에 나타난 것은 ‘ㄹ(순경을 비읍)’, ‘ㆍ(아래아)’이다. 그런데 ②에는 이런 음운들이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으며 현대 국어에서도 쓰이는 음운들만 사용되었다.

**06** (가)에는 세종 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이 담겨 있다. ㉠은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언어생활의 차이를 인식한 점에서 자주정신이 드러나며, ㉡은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라는 의미로 문자 생활을 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가엾게 여겼다는 점에서 애민 정신이 드러난다.

**07** ‘ㅎ 종성 체언’은 현대 국어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수 톱, 수평아리, 수개, 암개’ 등과 같이 접두사 ‘암’이나 ‘수’가 붙은 말에서 나타난다. ‘암개’는 ‘암+개’로 여기서도 ‘ㅎ 종성 체언’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 (3) 한국어의 위상과 미래

본문 204~205쪽

- ① 세계화    ② 국내    ③ 모아쓰기    ④ 소리  
⑤ 위상    ⑥ 순화    ⑦ 성찰

01 ④    02 ②    03 • 문제점: 외국어와 한자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 • 해결 방안: 외국어는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하고, 어려운 한자어는 쉽게 풀어서 쓰거나 순화된 말로 바꾸어 사용한다.    04 ④    05 ①

01 (가)에서는 한국어 보급 기관과 기관의 수강생, 발간된 한국어 교재의 수, 한국어 능력 시험의 외국인 응시자 수를 제시하였을 뿐, 한국어 사용자 수의 증가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글쓴이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는 외국인이 늘어난다고 해서 한국어 사용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마)에서 한국어의 세계화의 의미와 이를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② (나)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언급하면서 한글이 정보화 시대에 왜 적합한 문자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③ (다)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국어 사용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내에서 한국어의 위상이 낮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라)에서 현재 우리의 언어생활의 문제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정부, 매체, 개인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02 <보기>는 한글을 활용한 자판으로 정보를 입력하여 검색할 때의 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는 한글이 정보화 시대에 유용한 문자임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한글의 우수성과 정보화 시대의 관계를 언급한 (나)에 추가하기에 가장 적절하다.

03 서술형 <보기>에는 외국어를 남용한 사례와 어려운 한자어를 지나치게 사용한 사례가 제시되고 있다. (라)의 '외국어나 외래어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을 불편해하며 이를 고쳐 쓰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끔 행정 용어를 순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내용을 참고하여 문제점과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평가 기준                                                  | 확인 ☑                     |
|--------------------------------------------------------|--------------------------|
| 문제점으로 외국어와 한자어의 과도한 사용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해결 방안으로 '외국어와 한자어의 지나친 사용을 자제하고, 순화하여 사용한다.'라는 내용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각각 한 문장으로 썼다.                                          | <input type="checkbox"/> |

04 ㉠은 잘못된 언어생활을 가리킨다. 그런데 ④의 '가리어졌다'는 '가리다'의 어간 '가리-'에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어지다'가 결합된 말로 이중 피동 표현이 아니다. 따라서 어문 규범에 맞으므로 잘못된 언어생활을 보여 주는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도착하지 않는 상태는 현재 완료 상태이므로 '-고 있다'의 진행형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도착하고 있지 않습니다'를 '도착하지 않았습니다'로 바꾸어야 한다.

② 간접 인용이므로 조사는 '라고'가 아닌 '고'로 써야 한다. 따라서 '자기는 정말 결백하다고 강조하였다.'로 바꾸어야 한다.

③ '남다'의 주어는 '웃'이므로 이를 높이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남으셨습니다'를 '남았습시다'로 바꾸어야 한다.

⑤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이므로 미래를 뜻하는 선어말 어미 -겠-이 사용된 '예상되겠습니다'가 아닌 '예상됩니다'로 바꾸어야 한다.

05 '세 치 혀가 사람 잡는다.'는 세 치밖에 안 되는 짧은 혀라도 잘못 놀리면 사람이 죽게 되는 수가 있다는 뜻으로, 말을 함부로 하여서는 안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②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③ 말 뒤에 겹에 드러나지 아니한 숨은 뜻이 있다는 말이다.

④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라도 일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귀담아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남이 하는 말을 신중하게 잘 들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마땅히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말이다.

### 8. 한국 문학의 빛깔

#### (1) 시조 두 수

본문 206~207쪽

- ① 사설시조    ② 음성 상징어    ③ 이불    ④ 밤  
⑤ 의태어    ⑥ 임    ⑦ 주추리 삼대

01 ⑤    02 ①    03 ②    04 ④    05 ④    06 ①

01 (가)의 화자는 임 없이 보내는 외로운 겨울밤은 짧게, 임과 함께 지내는 밤은 길게 늘이고 싶다는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여 급히 달려 나가고 있으며, (다)의 화자는 누이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이처럼 (가)~(다)의 화자는 모두 이별한 상황에서 그 대상을 그리워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의 화자는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고 달려 나간 자신의 모습을 '낮이었다면 남을 웃길 뻔하였구나.'라고 하며 멋쩍어하고 있다. 하지만 (가)에서는 화자가 멋쩍어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다)는 '생사 길은 / 예 있으면'을 통해 이별의 원인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나)는 이별의 원인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나)의 화자가 임이 온 줄 알고 버선과 신을 벗고 임에게 달려가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가 현실을 수용하는 담담한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나)와 (다)는 모두 대상을 그리워하고 있을 뿐, 대상에 대한 서운한 감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음성 상징어는 음의 성질이나 높낮이, 강약에 따라 다른 단어와 구별되는 말로 의성어와 의태어가 있다. (가)는 '서리서리', '구뽀구뽀'를 통해 이불을 넣고 펼치는 화자의 행동을, (나)는 '천방지방 지방천방', '위령충창' 등을 통해 임을 보기 위해 달려 나가는 화자의 행동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다)의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에서 직유법이 사용되었으나, (가)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③ (다)의 '쏟아 이르고 어찌 갑니까.'에 말을 건네는 방식이 사용되었으나, (나)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④ (다)의 '쏟아 이르고 어찌 갑니까.'에 설의법이 쓰였으나, (가), (나)에는 쓰이지 않았다.

⑤ (가)~(다) 모두 명령적 어조나 화자의 강한 의지, 신념 표출은 나타나지 않는다.

**03** (가)와 (나)의 주제는 임을 기다리는 절실한 그리움이다. ②의 화자 역시 깊은 산속에 살면서 '떨어지는 잎과 부는 바람이 혹시 임이 오는 소리가 아닌가 하노라.'라고 하며, 외로운 상황에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노래를 부르며 인생사에서 느끼는 시름과 고뇌를 풀고 있다. 즉 이 시조의 주제는 노래를 통한 시름 해소이다.

③ 화자는 소반에 놓인 감을 보며 돌아가신 부모를 그리워하고 있다. 즉 이 시조의 주제는 효심이다.

④ 화자는 '성 권농' 집에 술이 익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을 방문하여 술을 마시며 흥취를 즐기고 싶은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즉 이 시조의 주제는 전원생활의 흥취이다.

⑤ 화자는 지리산 양단수에서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보며 즐기고 있다. 즉 이 시조의 주제는 두류산 양단수의 절경 예찬 혹은 자연으로의 귀의이다.

**04** (가)는 평시조, (나)는 사설시조에 해당한다. 사설시조는 평시조의 정형적 형식에서 벗어나 어느 한 장이 두 구 이상, 특히 중장이 길어진 형태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음보도 자유로운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3음보의 형태를 기본으로 한다고 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평시조는 고려 말기에 나타나 조선 시대에 전성기를 이룬 문학이다.

② 평시조는 시조의 기본적인 형태로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6구 4음보를 기본형으로 한다.

③ 사설시조는 평시조가 변형된 형태로 조선 후기에 등장하여 작자를 알 수 없는 작품이 많다.

⑤ 사설시조는 평시조의 정형성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길이가 나타나지만 종장의 첫째 마디는 평시조와 마찬가지로 세 글자로 고정된 형태이다.

**05** ㉠은 “나는 간다.”라는 말도 못하고 어찌 갑니까.’라는 뜻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난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마주한 화자의 괴로움이 드러나는 표현이다. 즉 누이가 자신이 간다고 말도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므로, 이별의 순간 누이가 했던 말이 아니다.

**06** (다)의 '미타찰'은 화자가 죽은 누이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가)의 '어론 님 오신 날 밤'도 기다리던 임이 온 시간이므로 둘은 '재회'의 공간이나 시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건넌 산'은 임이 오는 길로, 화자가 임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공간이다.

③ '거머뿔들'은 화자가 임을 본 것으로 착각하는 대상으로, '주추리 삼대'의 모습이다.

④ '주추리 삼대'는 화자가 임으로 착각하는 대상이다.

⑤ '한 가지'는 누이와 화자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2) 속미인곡 / 진달래꽃

본문 208~209쪽

- |      |       |        |            |
|------|-------|--------|------------|
| ① 여인 | ② 민요  | ③ 대화   | ④ 방해물(장애물) |
| ⑤ 낙월 | ⑥ 구준비 | ⑦ 자기희생 | ⑧ 이별       |
| ⑨ 극복 |       |        |            |

- |      |      |      |                   |
|------|------|------|-------------------|
| 01 ③ | 02 ③ | 03 ② | 04 구름, 안개, 바람, 물결 |
| 05 ④ |      |      |                   |

**01** (가)는 두 명의 여성 화자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반면 (나)는 임과 이별한 한 명의 화자만이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님 다히 / 소식을 / 아쁘려나 / 아자 후니'와 같이 4음보의 율격이 나타나고, (나)는 '나 보기가 / 역겨워 / 가실 때에는', '말없이 / 고이 보내 / 드리우리다.'와 같이 3음보의 율격이 나타난다.

② (나)에는 1연의 내용을 4연에서 변용하여 다시 제시하는 수미 상관의 구조가 나타나지만, (가)에는 수미 상관의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나)는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으로 가상의 이별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나, (가)는 이미 이별한 상황에서 임의 소식을 기다리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

⑤ 공감각적 심상이란 동일한 대상에 대해 하나의 심상이 다른 심상으로 전이되어 나타나는 것인데, (가)와 (나)에서는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02** (나)의 화자는 임이 자신을 떠나가는 길에 진달래꽃을 뿌리고, 이를 밟고 가라고까지 한다. 이처럼 화자가 떠나는 임을 축복하는 것은 임을 향한 사랑과 헌신, 희생적 태도일 뿐, 재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볼 수 없다. 화자는 이별의 상황에도 자신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만을 다짐하고 있다.

**03** 화자가 일월(日月)을 보고 싶어 하며, 산천이 어두워 일월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산천이 어두운 상황은 당시의 부정적인 시대 상황을, 일월은 정철이 그리워하는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임의 소식을 전해 줄 '사롬'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이는 임금의 소식을 전해 줄 신하로 해석할 수 있다.

③ '빈 비'는 임에게로 가지 못하고 쓸쓸하게 남아 있는 자신의 처지를 표현한 것이므로, 홀로 지내는 정철의 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④ 꿈에서 본 임의 얼굴이 늙었음을 걱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실제로 임금과 함께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⑤ 임을 찾으며 창을 열고 바라보니 자신의 그림자만 보였다는 것으로, 임금과 떨어져 있는 '정철'의 쓸쓸한 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04** (가)에서 '구름'과 '안개'는 '산천'을 어렵게 하여 화자가 '임'을 의미하는 '일월'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 '바람'과 '물결'도 뱃길을 어수선하게 하여 화자가 배를 타고 임을 보러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모두 화자를 '임'에게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05** ㉠은 임을 위해 희생을 감수함으로써 이별의 슬픔을 승고한 사랑으로 승화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별을

거부하는 내면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다. 반어적 표현은 ㉔에 나타난다.

### [3] 허생전

본문 210~211쪽

- ① 실학      ② 선비      ③ 상인      ④ 사대부  
⑤ 북벌론      ⑥ 실리      ⑦ 명분

01 ②      02 ②      03 ⑤      04 이완 대장

01 이 글의 ‘허생’은 조선의 취약한 경제 구조를 파악하여 매점 매석으로 큰돈을 벌고, 또 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제책을 ‘이완 대장’에게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인공인 ‘허생’은 조선의 현실을 꿰뚫고 있음이 나타나며, 이 글은 이러한 ‘허생’의 모습을 통해 당대 무능한 양반 계층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 무능한 양반은 ‘이완 대장’인데 그가 특정 사건을 계기로 성격이 변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허생’이 활동하는 공간은 현실적인 공간이며, 이와 나란히 배치된 비현실적 공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허생’은 매점매석이라는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나, 당대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긍정적인 인물이며,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⑤ 이 글은 북벌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바른 정책의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02 (가)에서 ‘허생’은 매점매석을 통해 큰돈을 벌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한 사람의 매점매석에도 흔들리는 조선의 취약한 경제 구조를 엿볼 수 있다. 국가가 이와 같은 상행위를 장려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03 ‘허생’은 (나)에서 세 번째 제책으로, 청나라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청나라에 유학생을 보내어 벼슬을 하도록 하고,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간청해야 한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허생’이 ‘이완 대장’에게 제시한 첫 번째 제책으로, 자신이 ‘와룡 선생’ 같은 이를 추천하면 임금께 아뢰어서 삼고초려를 하게 할 수 있겠냐고 묻고 있다. 이는 인재 등용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② ‘허생’은 체면이나 예의보다 실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임금이 신하에게 삼고초려를 하거나, 변발과 호복을 할 것 등을 제안한 것이다.

③ ‘허생’은 세 번째 제책으로 변발과 호복을 하는 등 청나라와 전략적으로 교류를 하여 조선의 실리를 추구하라고 말한다.

④ ‘허생’은 두 번째 제책으로 종실의 딸을 시집보내는 등 명나라 망명객을 우대하고 훈척 권귀의 기득권을 폐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04 ‘허생’이 제안한 제책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이완 대장’의 태도를 통해 당시 지배층은 현실을 개혁할 의지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작가는 ‘허생’과 ‘이완 대장’의 갈등을 통해 이러한 당대의 집권층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 9. 문제를 해결하는 힘

#### (1) 옷 한 벌로 세상 보기

본문 212~213쪽

- ① 옷      ② 문제점      ③ 속도      ④ 유행  
⑤ 디자인      ⑥ 환경 오염      ⑦ 노동력      ⑧ 상생

01 ②      02 ③      03 ④      04 ④      05 ③

01 비판적 읽기는 글쓴이의 주장이 옳은지, 논증의 방식이 타당하고 논리적인지, 제시된 자료는 적절한지 등을 평가하면서 글을 읽고, 글쓴이의 생각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처럼 비판적인 독서는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의 읽기가 아니라 한 차원 높은 고급 독서 활동으로, 모르는 단어가 나와 사전을 찾아본 것은 적극적인 독서 활동에는 해당되지만 비판적인 읽기로 보기는 어렵다.

02 (다)에서 ‘버려지는 옷과 직물 중 65퍼센트는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매립해도 좀처럼 썩지 않고, 태우면 유해 물질을 내뿜어 환경 오염을 가속화한다.’라고 하였다. 즉, 문제 상황이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을 환경 오염 측면에서 살펴본 내용으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납품 기한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는 늦은 시간까지 노동을 강요당하고 쉬는 시간도 빼앗기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노동력 착취 측면이므로 [C]에 해당한다.

② (라)에서 많은 의류 업체가 제품 제작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간당 임금이 낮은 개발 도상국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든다고 하였다. 이는 노동력 착취 측면이므로 [C]에 해당한다.

④ (나)에서 디자인 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처벌로 입게 될 손해보다 크며 이 때문에 의류 업체들이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디자인 도용 측면이므로 [A]에 해당한다.

⑤ (다)에서 한 해에 생산되는 의류 중 4분의 3, 즉 600억 점의 의류가 소각되거나 매립된다고 하였다. 이는 환경 오염 측면으로 [B]에 해당한다.

03 ㉔은 더 많은 옷을 팔기 위해 의류 업체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옷의 생산 속도를 높이는 것과 옷의 가격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글쓴이는 이를 문제 상황으로 생각하며 많은 옷을 쉽게 소비하는 것의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옷의 생산지를 표시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긍정적인 전략이므로 ㉔과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없다.

04 이 글에서 의류 업체들은 최신 유행의 옷을 소비자에게 더욱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속도 경쟁을 하고, 이로 인해 디자인 도용과 노동력 착취, 환경 오염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④는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옷 입기를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05 ㉔ ‘개선’은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들’의 의미이다. ‘글자나 글 따위의 잘못을 고쳐서 바로 잡음’은 ‘정정(訂正)’의 의미이다.

**(2)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본문 214~215쪽

- ① 반대 신문    ② 필수 쟁점    ③ 휴대 전화    ④ 수업  
⑤ 반론    ⑥ 중독

01 ④    02 ①    03 ④    04 ④    05 ⑤

**01** 이 토론은 반대 신문식 토론으로, 이는 논제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상대방에게 반대 신문을 하며 상대방의 논지를 반박하는 토론이다.

**오답 풀이** ① 심포지엄에 대한 설명이다.

② 원탁 토론에 대한 설명이다.

③ 포럼에 대한 설명이다.

⑤ 패널 토의에 대한 설명이다.

**02** 토론에서 반대 신문이나 반박을 할 때에는 상대의 오류가 드러난 즉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의 순서에 맞추어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야 한다.

**03** '찬성 1'은 반대 신문에서 학생들이 이미 휴대 전화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1'의 주장이 휴대 전화 중독을 막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즉 휴대 전화 중독은 막을 수 없는 문제이므로 이와 같은 내용이 논제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04** '찬성 1'은 입론에서 학생들은 휴대 전화를 소지하고 사용할 자유가 있고, 강제적인 휴대 전화 규제는 학생들이 휴대 전화 사용을 자율적으로 절제하려는 의지를 꺾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반대 1'은 입론에서 학교에서는 휴대 전화 사용의 자유보다 바른 생활 태도를 익히는 것이 우선이며,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률이 높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대립하고 있는 쟁점은 '교내에서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현재 상황은 부당인가'와 '학생들은 휴대 전화를 스스로 절제하여 사용할 수 있는가'임을 알 수 있다.

**05** ㉠은 '반대 1'의 주장으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바른 생활 태도를 익히고 휴대 전화에 중독되지 않게 하려면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통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거나 상대에게 새로운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학생들이 독립된 존재라는 내용을 근거로, 학생들은 휴대 전화를 사용할 자유가 있으므로 학교에서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② 학교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식을 배우고 경험을 하는 곳이라는 성격을 제시하여, 휴대 전화 사용이 필요하다는 찬성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③ 학교는 지식을 배우고 경험을 쌓는 곳이라는 상대측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이와 더불어 학교는 올바른 휴대 전화 사용 태도를 익힐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④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률이 높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m e m 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m e m 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